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현 혜 림

2020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 연구

지도교수 최 대 희

현 혜 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현혜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6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the Time Expression in the Ending of Jeju dialect

Hyun Hye Rim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 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oi, Dae Hee,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 연구

현 혜 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형태소와 의미를 개별적으로 밝히는 성과가 있었지만, 학자마다 시간 표현의 체계를 달리하여 제주 방언 교육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학교 문법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2장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시간 표현의 체계를 검토한다. 학교 문법은 국어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시간 표현은 시제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시간적 위치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상은 개별 시제에 종속된 동작의 모습을 '진행상, 완료상'으로 나눈다. 이러한 체계에 맞춰 국어에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선어말어미와 통사적 구성의 실현 방법을 확인하고 각 의미 기능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체계와 실현 양상을 본다.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제주어구술자료집(1~28)』을 활용한다. 이 자료집은 고령의 방언 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시간 표현이 실현된 자연 발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실현 양상은 시제와 상의 문법적 표지를 중심으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관계를 나누어 살핀다. 이러한 결합 관계를 통해 제주 방언에서 실현된 시간 표현의 여러 이형태를 살핀다. 제주 방언에서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거시제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의 이형태 조건을 확인한다. 후행 요소는 '-아시/어시/여시/라시-'는 어미 '-아, -ㄴ게, -네, -ㄴ가, -냐/니, -카', 명령형 '-라'와 청유형 '-게'와 결합한다. 선어말어미 '-앗/엇/엿/랏-'은 후행 요소가 '-저, -주, -구나'일 때의 결합 양상을 본다.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아/어/여/라-'가 결합하는 요소로 '-라, -ㄴ게, -냐/니, -ㄴ가'가 있고, 주로 과거 어느 시점의 일을 떠올리는 '회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시제 '-ㄴ/느-'는 선행 요소가 동사와 형용사일 때 결합이 가능하다. 주로 '-ㄴ-'은 평서형 어미 '-다'와 반말체 어미 '-어'와 앞에 결합하고, '-느-'는 '-네, -냐/니'가 앞에 결합하여, 현재의 시간 보다 '화자의 확신'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미래시제의 '-크-'는 통사적 조건에 따라 '추측'이나 '의도'를 표현하는데, 후행 요소는 '-라, -ㄴ게, -냐/니, -가(고)'가 결합한다. 제주 방언에서 '진행상'은 국어와 달리 선어말어미가 관여하며, 어간의 품사에 관계없이 결합한다. '-암시/엄시/염시/람시-'는 후행 요소가 '-어, -ㄴ게, -네, -ㄴ가(고), -냐/니, -라, -게'일 때 결합하며, '-암(ㅅ)/엄(ㅅ)/염(ㅅ)/람(ㅅ)-'은 후행 요소가 '-저, -주, -구나, -디야'가 결합한다. 주로 진행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상태 변화'와 '현재'의 의미도 실현된다. 완료상은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이 관여하는데, 선행 요소가 품사에 관계없이 결합되어 국어와 달리 생산성이 넓다.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는 '-아, -ㄴ게, -네, -ㄴ가, -냐/니, -카', 명령형 '-라'와 청유형 '-게'가 결합된다. 반면, 선어말어미 '-아낫/어낫/여낫/라낫-'은 후행 요소로 '-저, -주, -구나'일 때 결합된다.

4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특징을 살펴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주 방언은 국어와 다른 문법적 표지가 실현되고 있다. 과거시제는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에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 기능을 한다. 현재시제는 반말체 어미 '-어'와 결합하여 '화자의 확신'의 의미 기능을 한다. 미래시제는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진행상은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가 결합되어 '상태의 점진적 변화, 현재시제'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 완료상은 '명사-이다'와 '아니다'와 결합하여 점차 선어말어미의 기능으로까지 문법화 과정을 본다. 이러한 제주 방언의 독특한 시간 표현에 대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 5장은 본론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 짓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한 형식적인 문법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제주방언, 학교문법, 시제, 상, 문법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초록>

Ⅰ. 서론·····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

2. 선행 연구·····2

3. 연구 대상과 방법·····6

Ⅱ. 학교 문법의 시간 표현 체계와 실현 방법·····10

1. 학교 문법의 시제·····10

1.1. 시제의 체계·····11

1.2. 시제의 실현 방법·····12

1) 과거시제·····13

2) 현재시제·····15

3) 미래시제·····16

2. 학교 문법의 동작상·····18

2.1. 동작상의 체계·····18

2.2. 동작상의 실현 방법·····19

1) 진행상·····20

2) 완료상·····20

Ⅲ.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와 실현 양상 ·····22

1.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23

1.1. 시제의 체계·····24

1.2. 상의 체계·····26

2.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28

2.1. 시제의 실현 양상·····28

1) 과거시제·····28

2) 회상·····35

3) 현재시제·····4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미래시제·····45
2.2. 상의 실현 양상·····52
1) 진행상·····52
2) 완료상·····61

Ⅳ.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68
1.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특성 ·····68
1.1. 시제의 특성·····68
1) 과거시제·····68
2) 현재시제·····70
3) 미래시제·····73
1.2. 상의 특성·····74
1) 진행상·····75
2) 완료상·····76
2.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교육적 활용·····78

Ⅴ. 결론·····81

<참고자료>·····84
<부록>·····87
<Abstract>·····8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국어와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문법적 표지 비교·····9
<표 2> 학교 문법에서 과거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15
<표 3> 학교 문법에서 현재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16
<표 4> 학교 문법에서 미래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17
<표 5> 학교 문법에서 진행상의 실현 방법과 의미·····20
<표 6> 학교 문법에서 완료상의 실현 방법과 의미·····21
<표 7> 종결형 어미 목록 ·····22
<표 8>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에 따른 실현 방법과 의미·····27
<표 9>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34
<표 10>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회상의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40
<표 11>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45
<표 12>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52
<표 13>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진행상의 실현 환경·····61
<표 14>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완료상의 실현 환경·····67
<표 15> 국어와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비교·····68
<표 16> 국어와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비교·····70
<표 17> 국어와 제주 방언의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비교·····73
<표 18> 국어와 제주 방언의 진행상의 문법적 표지 비교·····74
<표 19> 국어와 제주 방언의 완료상의 문법적 표지 비교·····7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시간 표현의 체계를 밝히고, 시제와 상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의 실현 양상을 보겠다.

제주 방언은 지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형태·통사·의미 측면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중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은 국어와 다른 형태로 실현되어 특수한 언어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형태소와 의미를 밝히는 데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개별 어미들의 기능과 의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학자마다 시간 표현의 체계를 달리하였다. 이러한 점이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교육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한 체계를 세워,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제주 방언 교육에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 방언은 실제 발화자의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자연 발화를 살피면 원활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가져 오고, 언어의 다양성과 실제 언어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 발화의 시간 표현 양상을 확인하여 제주 방언 발화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문법적 표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어가 갖는 보편성과 제주 방언의 특수성을 비교하여 문법적 표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겠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한 형식적인 문법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행해질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방언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문법적 체계를 세워서 언어 사용 환경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한 이해를 가져오고 제주 방언의 특수성을 볼 것이다.

2. 선행 연구

시간 표현에 관한 연구들은 제주 방언의 개별 어미들을 검토하고,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개별 형태의 기능과 의미에 집중한 연구들은 시간 표현의 체계에 관해 다양한 논의들을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1] 시간 표현과 관련한 범주[2]는 '시상·서법 범주, 상 범주, 시제 범주'이다.

제주 방언에서 초기 시간 표현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시상과 서법·양태' 범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서법 범주는 시간을 표현하는 형태소가 서법의 의미를 주의미로 보는 견해로, 홍종림(1983, 1984), 현평효(1985), 우창현(2008)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홍종림(1983)에서는 제주 방언의 '회상법' 형태와 의미를 보았다. 제주 방언에서 회상법의 '-더-'를 인정하고, 환경에 따라 '-아/어/라-'가 있다고 보았다. '-더-'에 대해 화자의 수용적 인식에 따라 '회상법'을 나타내고, 화자의 자극적 정신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과-'를 '회상법'에 두었다. 홍종림(1984)에서는 '-느-'를 동사, 형용사, 지정사 어간에서 활용하는 '양태' 선어말어미로 인식한다. 이 '-느-'의 의미는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현 판단'의 양태로 설명하였다.

현평효(1985)는 제주 방언의 정동사어미를 분석한 연구로,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 화자의 태도에 따른 '서법' 범주로 보았다. 기존 서법에 따라 제주 방언에서도

---

1) 여기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의 형태소를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와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언어학계의 시간 표현에 관련된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는 이남순(1990), 고영근(1990, 2004), 장경희(1998), 문숙영(2005) 등에서 정리되었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한 시간 표현 범주이지만, 언어는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시간 표현 범주를 문숙영(2005)에 기대어 분류하되, 제주 방언에서는 '시상과 서법' 범주를 추가하여 네 가지 견해로 정리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으로 나누고 선어말어미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설법은 '-느-'로 표시하고, 의미 기능을 '화자가 동작주의 동작이나 사태를 지시하여 직접 말하는 서법'으로 설명한다. 회상법은 '-아-'가 결합하지만 문헌상에 흔히 나타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제주 방언의 '-아시-'에 대한 논의는 '-어-'와 '-시-'의 복합 형태로 보고 있다. 완료상 '-앗-'과 완료존속상의 '-아시-'로 별개의 어미로 인식하지만, '-아시/어시-'와 '-앗/엇-'의 경우 문법화 과정을 거쳐 시제의 기능이 더 넓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암시-'에 대한 논의로 미완료상 '-암-'과 미완료존속상 -'암시-'로 본다. 마지막으로 '추측법'과 '의도법'을 표시하는 '-ㅋ-'를 설명한다.

우창현(2008)은 제주 방언의 '-크-'를 중심으로 선어말어미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장에서 '-크-'가 단독으로 나타난 경우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다른 어휘와 문법 형태들의 간섭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크-'의 의미를 '추측, 의도'의 양태의 의미로 정리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서법'의 범주로 처리하던 견해들이 '상' 범주 위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주 방언의 상에 대한 연구는 홍종림(1991), 우창현(1998, 2002, 2004), 고영진(2008) 등에서 살필 수 있다.

홍종림(1991)은 제주 방언에 대하여 '상' 범주를 분석한 연구이다. 제주 방언의 '-아시-'와 '-암시-'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입장이다. '-아시-'의 의미자질로 '실연성'과 '결과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표준어로 '-았/었-'으로 대역할 수 있다. '-암시-'의 의미를 '실연상'으로 설명하며, 표준어로 '-고 있-' 또는 '-느/ㄴ-'으로 대역할 수 있지만,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우창현(1998)은 제주 방언의 '-암시-'와 '-아시-'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상의 구성 요소의 특징을 밝히고 상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아시-'를 종결상으로 보았으며, '-암시-'를 과정상으로 인식하였다. 이 논의에서 '-암시-'는 '-암-'과 '-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아)ㅁ-'은 '미완료상'의 의미를 지니고, '-시-'는 '지속'의 의미를 각각 지닌 것으로 설명한다.

우창현(2002)은 제주 방언의 '-암시-'를 중심으로 국어의 '-고 있-'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암시-'는 상으로 인식하여 '동작 진행'과 '(상태 변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창현(2004)은 제주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하는 '-아시/어시-'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주 방언 '-아시/어시-'가 통사적 구성인 '-아 시-'에서 형태적 문법화 과정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의미 문법화를 거친 '-아시-'는 '결과지속'과 '종결'의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고영진(2008)은 제주 방언의 '상' 범주를 살핀 연구였다. 상 관련 용어로 '완전상', '불완전상'[3]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제주 방언의 상 범주로 '-느-'의 완전상, '-암시-'의 불완전상, '-아시-'의 완료상을 설정하였다.

시제는 기본적으로 상의 의미를 부차적인 의미로 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시제 형식이 주로 문법화 과정을 겪으므로 시제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에서 시제 범주의 연구는 문숙영(2004), 고영진(2007) 등이 있다.

문숙영(2004)은 제주 방언의 '-엄시-'가 현재시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엄시-'는 '-엄 시-'에서 문법화된 형태로, 상적 속성에 따른 결합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시제 형태소로 보고 있다.

고영진(2007)은 제주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현재 시제 '-느-'를 검토하였다. '-ㄴ/은-'을 변이형태로 보았으며, '-나'를 융합형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느-'의 문법적 의미를 '항상성'으로 보아, '-느-'가 존재하면 [+항상성]의 의미가 있고, '-느-'가 없다면 [+일시성]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시상' 범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상은 시제와 상 범주가 별도로 구별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상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시상의 범주가 설정되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에서의 시상에 대한 연구는 문숙영(1998), 이기갑(1999), 정승철(2013), 김지홍(2016) 등에서 다루어졌다.

문숙영(1998)은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은 '-아시-', '-어 나시-'. '-암시-', '-느-'로 두었다. '-암시-'의 의미는 '진행상, 반복상, 습관상, 상태 지속, 상태의 점진적 변화, 현재시제'를 들었다. '-아시-'는 '결과상, 완료상, 완결상, 과거시제'를 들었다. '-어 나시-'는 국어 '-었었-'과

3) 고영진(2008:113-114)은 상 관련 용어를 콤리(Comrie, 1976)의 용어를 따라 '시작-전개-종료'의 완전상은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고, 불완전상은 장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고, 완료상은 특정한 기준 시점에서 그 전에 실현된 것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미 기능이 유사하지만 문법적 지위에서 차이를 지닌다고 보며, '-어나시-'는 보조 용언의 완료상에 속함을 밝히었다. '-느-'는 극히 제한된 어미 앞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고, '-느-'의 의미 기능은 현재시제 보단 '확실성, 이미 앎'이라는 인식 양태의 의미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엄시-'가 '시제' 요소임을 밝혀 연구의 발전을 가져왔다. 문숙영은 '-엄시-'를 부사형 어미 '-어'와 보조사 'ㅁ' 그리고 용언 '시-'로 이루어졌고, 문법화에 의해 선어말어미까지 이른 형태로 보아 '-엄시-'는 통사적 구성에서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기갑(1999)은 제주 방언만이 아니라 타지역의 방언까지도 시상 체계를 비교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는 '-느-'로 의문형 어미에 따라 쓰임을 살폈다. 과거시제로 '-어시-'와 '-엇-', '-라시/랏-'을 설명하며, 일부 동사(앉다 등)에 의해 상태 지속의 의미가 드러남을 설명하였다. 회상 시제로 '-아/어/라/데-'의 쓰임을 밝혔다. 이 형태소의 기능은 회상이 주 의미이지만 단순 과거의 표지로 기능하기도 한다. '-(으)크-'는 형태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의미상 '추정'과 '의도'의 양태적 의미를 밝혔다.

정승철(2013)은 '시상'으로 보아 진행상과 완료상을 설명한다. '-앐/엀-'은 진행상, '-앗/엇-'은 완료상으로 보았다. '-(으)크-'는 의도와 추측의 선어말어미, '-아/어-'는 회상의 선어말어미로 설명한다.

김지홍(2016)은 상과 시제를 포함하는 '시상' 형태를 토대로 설명한다. 의미 자질을 '착수'와 '종결'의 속성을 통해 형태소가 드러난다고 본다. 시상 형태소의 실현은 동사와 형용사 등에 따라 양태성도 수반이 된다고 보았다.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한 시간 표현 연구는 주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공시적인 차원의 연구는 제주 방언에서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개별 어미의 형태와 의미를 세세하게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성과를 가져왔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개별 어미의 형성 과정을 밝히기 위해 통시론적 관점을 부차적으로 다루었지만, 제주 방언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자마다 개별 어미에 대한 문법 범주가 일치하지 않았고, 시간 표현의 통일된 체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별 어미들이 실현 환경에 따른 이형태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을 종결형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시간 표현은 대체로 종결형, 연결형 그리고 관형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시제와 상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말하는 시점(발화시)으로 종결형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종결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연결형의 경우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연결된 것으로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가 종결형과 동일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대부분 주절의 종결형에서 시간 표현이 표시되기 때문에 종속절인 연결형에서는 표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연결형의 시간 표현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관형절의 경우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로, 제주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미가 국어와 비슷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형절의 경우 말하는 시점이 시제와 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고, 다른 발생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에서 시간 부사어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 부사어를 제외하는 것은 특정한 어휘가 시간 표현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어 문장 내에서 어휘가 갖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특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우선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개별 표지를 검토한다.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학자마다 논의하는 제주 방언의 개별 어미들의 형태와 의미 기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논의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선행 연구들은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개별 어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많아, 시간 표현의 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표지를 별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시간 표현의 양상을 살피겠다.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학교 문법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설정하는 체계를 기준으로 보겠다. 학교 문법은 국어의 언어 현상을 그대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법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의 언어 환경에 대하여 적절히 체계화를 갖춰 교육의 효율성을 가져 왔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해 학교 문법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언어의 단편적인 현상만을 다루지 않아 방언 교육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어미가 지닌 통사적 특징을 국어의 보편성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 학교 문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적용된 교과서『국어』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실제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변화했음에도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시간 표현에 대한 내용적 요소는 큰 변화가 없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은 문법 요소에 대한 교육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시간 표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교과서는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이 적용된 것으로 시제와 상의 체계를 다루는 출판사 6종을 분석하겠다.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시간 표현의 체계를 토대로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제와 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제주 방언 화자의 구술 자료를 분석하겠다. 분석한 자료는『제주어구술자료집(1～28)』[4]이다. 이 자료집은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36개의 조사 마을을 지정하여 채록한『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1～37)』가 바탕이 되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보완하고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당시 80대 이상의 조사 지역의 토박이를 대상으로 삼았고, 조사는 조사자와 제보자가 제주 방언으로 묻고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료집은 자연 발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주제는 '조사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등 12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제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 표현과 관련한 양상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표지가 여러 이형태로 실현된 예문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예문을 분

4) 이 연구에서 활용한 예문의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제주어구술자료집'의 마을 지점에 따라 제보자가 다르지만, 연구의 논의는 시간 표현의 문법적 표지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제보자 사이의 차이가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하는 방법으로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표지와 결합 관계에 놓인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선행 요소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아니다'의 어간을 기준으로 표지의 실현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후행 요소로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의 종결 어미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제주 방언에서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표지가 갖는 여러 이형태를 확인하고 그 문법적 제약도 살피기 위함이다. 예문들은 제주 방언의 언어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하여 제보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시간 표현이 실현된 예문을 가져왔고, 예문 뒤에 '[조사 마을](예: [도련동], [함덕리] 등)'로 표기하여 출처를 밝힐 것이다. 그러나 『제주어구술자료집』의 질문 내용들이 제보자가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일에 대한 것이므로 발화 양상이 주로 과거나 회상 혹은 완료상으로 실현되어, 현재나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는 문장을 추출하기 다소 어려웠다. 그러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보자 발화에 없는 경우는 조사자의 발화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연구에서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출처 표기는 '[조사 마을, 조사자](예: [도련동, 조사자])'와 같이 밝혔다.[5] 그리고 일부 예문의 경우 논의 전개 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제주 방언의 표기를 수정하였다.[6] 수정한 예문은 '[조사 마을, 수정](예: [도련동, 수정])'과 같이 표기를 하였다. 다음은 제주 방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 뒤 소괄호(( )) 안에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기존의 자료집에서 동일한 형태에 대해 연구진마다 다르게 대역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하여 표준어를 제시하였다.[7] 표준어 대역은 일대일 대응을 원칙으로 했으며,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작은따옴표(' ')안에 제주 방언의 어휘를 그대로 밝혔다. 또한 제주 방언의 특성상 조사가 많이 생략이 된다는 점에서 표준어 대역에도 조사를 생략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제주 방언에서 종결형에 나타나는 시간 표현에 대한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

5) 다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연구 진행을 위하여 임의로 만들었음을 밝힌다.

6) 예를 들어 '옛날은 돈 부지가 벨로 엇엇어.(옛날은 돈 부조가 별로 없었어.) [남원리]'를 '옛날은 돈 부지가 벨로 엇어서.'와 같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를 밝히기 위하여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엇엇어'를 '엇어서'와 같이 수정하였다.

7) 예를 들어 '생주왕 막 푸느네.(생지황 막 팔잖아.) [선흘리]', '예비고살 봐져사 대학에 가느네.(예비고살 봐야 대학에 가지.) [남원리]', '비 와 가민 이 게역부터 무너 허느네.(비 와 가면 이 개역부터 먼저 해.) [신창리]'에서 '-느네'에 대한 표준어 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팔아, 가, 해'와 같이 수정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장은 이 연구에서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한 시간 표현의 체계와 양상을 다루는 목적을 밝혔다. 또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제주 방언에서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개별 표지들을 살폈다.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시제 표지로는 '-ㄴ/느-', '-아시/어시-', '-더-', '-크-'를 선정하였고, 상 표지로 '-암시/엄시-'와 '-아나시/어나시-'의 기능과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표지들은 국어와 다른 독자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통사론적·의미론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주 방언이 갖는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제주 방언의 문법적 표지를 국어와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어와 제주 방언의 시간 문법적 표지 비교

구분		국어	제주 방언
시제	현재 시제	-는/ㄴ-	-ㄴ/느-
	과거 시제	-았-	-아시/어시-
		-더-	-더-
	미래 시제	-겠-	-크-
상	진행상	-고 있다, -아/어 가다	-암시/엄시-
	완료상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아나시/어나시-

Ⅱ장은 학교 문법에서 시간 표현의 체계를 보겠고,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실현 방법을 볼 것이다. 학교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국어』교과서를 토대로 국어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개념, 체계, 실현 방법도 확인할 것이다.

Ⅲ장은 제주 방언에서 시간 표현의 체계를 보고, 종결형에 나타나는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현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제주 방언의 예문은『제주어구술자료집(1~28권)』을 활용할 것이고,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문법적 표지가 실현된 양상을 살필 것이다.

Ⅳ장은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문법적 특징과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주 방언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실현되어 독특한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학교 문법의 체계에 따라 제주 방언을 적용하였을 때, 제주 방언 교육의 활용 방안과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마지막 Ⅴ장은 이 연구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학교 문법의 시간 표현 체계와 실현 방법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 문법[8]에서 논의하는 시간 표현의 체계와 실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국어의 시간 표현 체계를 이해하면 제주 방언에서 논의하는 시간 표현의 문법적 표지와 특징을 국어와 비교하여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Ⅱ장에서는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시간 표현의 체계에 따라 '시제와 상'의 개념과 실현 방법을 살펴보겠다. 학교 문법은 시간 표현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이 변화하였음에도 내용 요소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9]에 따라 적용된 교과서를 자료로 삼았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는 시간 표현에 관하여 '시제와 동작상'을 제시하는 6종의 교과서를 보겠다. 각 교과서별로 학교 문법에서 설정한 시간 표현의 개념, 체계, 실현 방법 등의 형식적 특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10]

1. 학교 문법의 시제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는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국어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며, '시간 표현'과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을 한 단원 안에서 '문법 요소'로 다루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각 문법 요소의 개념과 형식적인 문법 특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중 '시간 표현'

8) 송현정(2004:164)은 교과서의 문법을 교육 내용상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국어지식 영역의 심화 내용을 담은 구체물로써의 문법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9) 2015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 문법 요소와 관련한 내용은 "[10국09-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간 표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0) 여기서는 교과서를 검토하는 장이므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시간 표현에 대한 용어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간의 위치에 따라 문장에서 '시제와 동작상'으로 설명한다.

1.1. 시제의 체계

일반적으로 언어학계에서 제시하는 국어의 시제 체계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어에서 시제 체계는 미래시제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견해에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시제의 체계는 '-겠-'을 미래시제의 표지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과거와 비과거'나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국어의 시간 표현 체계를 '과거와 비과거'로 나눈다면 '-았/었-'은 과거, '-ㄴ/는-'과 '-겠-' 모두 비과거에 놓이고, 미래시제는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겠-'을 미래시제의 표지로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3분법 체계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며, '-았/었-'은 과거, '-ㄴ/는-'은 현재, '-겠-'은 미래가 된다.

학교 문법에서 설정하는 시제의 개념을 교과서별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ㄱ **시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교학사:292)

ㄴ **시제**는 말하는 이가 말을 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금성:146)

ㄷ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미래엔:219)

ㄹ **시제**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문법적으로 구별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어진다. (창비:279)

ㅁ **시제**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한 것(=시점)으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앞뒤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이다. (천재교육:32)

ㅂ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사건시)이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발화시)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아니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며, 시제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비상:260)

(1)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내용을 종합하면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간적 위치를 표현한다. 시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점에 따른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발화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을 말한다. 시제의 체계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한다. 우선,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기 때문에 과거를 표현하고,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므로 현재를 표현한다. 그리고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기 때문에 미래가 된다. 학교 문법에서 이와 같이 시제를 삼분 체계로 인식하여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로 파악한다.

1.2. 시제의 실현 방법

시제를 실현하는 주된 방법은 문법 형태소에 의한 형태론적 방법이다. 시제의 체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에 관여하는 문법적 형태소를 교과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ㄱ · **과거 시제**는 선어말어미 '-았/었-'이나 '-더-' 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 **현재 시제**는 품사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동사에는 선어말어미 '-ㄴ/는-'을 쓰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는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상태를 표시한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어미 '-겠-'을 써서 표현한다. (교학사:292)

ㄴ · **과거 시제**는 주로 '-았/었-'이나 '-더-'를 붙여 표현한다.
· **현재 시제**는 동사일 때 '-는/ㄴ-'을 붙여 표현하고, 서술어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별다른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 **미래 시제**는 주로 '-겠-'이나 '-(으)리-'를 붙여 표현한다. (금성:146)

ㄷ · **과거 시제**는 주로 선어말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와 단절되었음을 표현할 때는 '-았었/었었-'을 사용하기도 한다.
· **현재 시제**는 동사에 주로 선어말어미 '-는/ㄴ-'을 붙여서 나타낸다. 형용사나 서술격조사는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 **미래 시제**는 대표적으로 선어말어미 '-겠-'을 붙여서 나타낸다. (미래엔:219)

ㄹ · **과거 시제**는 용언의 어간에 '-았/었-'을 넣는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할 때는 '-더-'를 사용하고, 먼 과거의 일이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인 때는 '-았었/었었-'을 쓴다.
· **현재 시제**는 선어말어미 '-ㄴ/는-'을 넣는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어미 '-겠-'을 넣는다. (창비:280)

ㅁ · **과거 시제**는 '-았/었-'('-았었/었었-')과 과거 회상 선어말어미 '-더-'를 통해 실현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현재 시제**는 '-는-'에 의해 실현되거나 또는 별다른 시제 선어말어미 없이 실현되기도 한다.
· **미래 시제**는 '-겠-'에 의해 실현된다. (천재교육:32)

ㅂ · **과거 시제**는 선어말어미 '-았/었-'을 쓰며,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에는 선어말어미 '-더-'를 쓴다.
·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선어말어미 '-ㄴ/는-'을 쓰는데,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없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어미 '-겠-'을 쓰며, 예스럽게 표현할 때에는 선어말어미 '-(으)리-'를 쓴다. (비상:260)

(2)는 교과서별로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의 실현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시제는 주로 선어말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우선, 과거시제는 선어말어미 '-았/었-'을 사용하며, 과거의 시간을 표현한다. 그리고 발화시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았었/었었-'이 있는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와 다른 단절의 상황을 표현한다. '-더-'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더하여, 시제로는 과거이지만, 의미 기능은 '-았/었-'과는 다르다. 현재시제는 품사에 따라 관여하는 표지가 다른데, 동사에는 선어말어미 '-ㄴ/는-'이 결합하고,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는 특정한 표지 없이 현재의 상태를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시제는 선어말어미 '-겠-'이 관여하는데, 미래시제 외에도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1) 과거시제

과거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선행한 문장 구성에서 실현하는데, 선어말어미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3) ㄱ 어제 비가 <u>왔다.</u> ⇒ 오-+-았-+다
ㄴ 그 인형은 <u>예뻤다.</u> ⇒ 예쁘-+-었-+-다
ㄷ 나는 공부<u>하였다</u>. ⇒ 공부하-+-였-+-다
ㄹ 올해는 개나리가 안 피었지만, 작년에는 <u>피었었다.</u> ⇒ 피-+-었었-+-다
ㅁ 철수가 서점에 <u>있더라</u>. ⇒ 있-+-더-+-다(>라)

학교 문법에서 선어말어미 '-았/었/였-', '-았었/었었-', '-더-'를 인정하였다. 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 (3ㄱ)은 동사 '오-'에 '-았-'이 결합하였고, (3ㄴ)은 형용사 '예쁘-'에 '-었-'이 결합하였다. (3ㄱ)과 (3ㄴ)을 보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선행하는 어간의 품사에 관계없이 결합하였다. 그리고 '-았-'과 '-었-'은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3ㄷ)은 동사 '공부하-'에 '-였-'이 결합한 경우다. '-였-'은 선행하는 어간이 '하다' 동사나 '-하다'를 접사로 한 경우에 관여하므로 '-았/었-'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3ㄹ)은 동사 '피-'에 '-었었-'이 결합한 경우로 발화시보다 사건이 먼저 나타나고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다. (5ㅁ)은 어간 '있-'에 '-더-'가 결합하여 과거 어느 때를 기준시로 하여 그때 화자가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표현하는데, '-더-'는 문장을 구성할 때 화용론적 제약[11]을 갖는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문장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단순 과거', '완료'나 '완료 지속', '실현 인식'을 의미한다.

(4) ㄱ 영희는 어제 빵을 먹었다. ⇒먹-+-었-+다
ㄴ 수박이 잘 익었다. ⇒익-+-었-+다
ㄷ 오늘 집에 들어오면 혼났다. ⇒혼나-+-았-+다

(4ㄱ)은 과거의 시간을 표현한 경우로 과거시제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할 때 시간 관계를 표현한다. 주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실현되거나 부사 '옛날, 어제' 등이 결합하여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4ㄴ)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완료' 또는 '완료 지속'[12]을 의미하는 경우로, 완료는 과거 행위의 결과가 현재도 유지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4ㄴ)은 수박이 여물은 상태가 완료된 의미를 표현한다. (4ㄷ)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실현 인식'을 의미하는 경우로, 실현 인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거나 청자가 앞으로 일어날 행위에 대해 인식한 내용

11) 한동완(1996)은 언어화가 불가능한 화용론적 제약을 설명한다. 첫째, 문장 서술어가 '심리 형용사'일 때, 화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내면 심리 등은 대상화하기 어려워 동일 주어의 문장에서만 나타난다고 본다. 둘째, 동사의 경우 자기 통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행과 동시에 지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비동일 주어의 제약'을 설명한다. 셋째, 발화 장면과 관한 제약이다. 말하고자 하는 사태가 화자는 직접 경험하였지만 청자는 모르고 있다고 믿는 '미지의 정보'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리하면 국어에서 '-더-'는 회상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대상화'가 되어야 하고, 청자는 모르는 '신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12) 바인비(Bybee *et al,* 1994)에서는 '완결상'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거나 결합하는 경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반면, 단순과거는 문법화의 정도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동사 부류와 결합이 가능하고, 형용사와 결합할 때도 과거 상태를 나타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말한다. 과거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학교 문법에서 과거시제 실현 방법과 의미

어간	선어말어미	의미
• 동사 • 형용사 • 서술격조사	-았/었/였-	• 과거시제 • 완료, 완료 지속 • 실현 인식
	-더-	• 회상
	-았었/었었-	• 강한 단절

2) 현재시제

현재시제는 일반적으로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한 문장 구성에서 실현되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5) ㄱ 오늘 비가 온다. ⇒ 오-+-ㄴ-+다
ㄴ 아기가 지금 밥을 먹는다. ⇒먹+-는-+다
ㄷ 동생이 예쁘다. ⇒ 예쁘-+-Ø-+다
ㄹ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Ø-+다

학교 문법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ㄴ/는-'과 '-Ø-(영형태)'를 인정하였다. 우선 (5ㄱ)은 동사 '오-'에 '-ㄴ-'이 결합하고, (5ㄴ)은 동사 '먹-'에 '-는-'이 결합하였다. '-ㄴ-'과 '-는-'은 선행하는 어간 말음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5ㄷ)은 형용사 '예쁘-'에 '-Ø-(영형태)'가 관여한 경우이며, (5ㄹ)은 '초등학생+-이다'에 '-Ø-(영형태)'가 관여했다. (5ㄷ)과 (5ㄹ)처럼 어간이 동사 외인 경우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어간에 어미가 그대로 실현되어 현재의 의미를 표현한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문장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시제', '반복적 습관', '보편적 진리(일반적 진리)'[13], '가까운 미래'[14]의 의미를 표현한다.

13) 문숙영(2005:146~147)은 현재시제가 결합된 형식이 '일반적 진리'나 '현재의 습관' 등으로 해석되는 현상을 '상황의 종료나 상황의 시작에 대한 특별한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는 현재시제가 가지는 의미적 함축을 설명한다.
14) 문숙영(2005:143~144)은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지만, '가까운 미래(임박한 미래)나 계획된 미래'에 결합됨을 설명한다. 이러한 미래 해석에는 미래 문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나 동사의 상적 속성이나 상황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ㄱ 영희는 지금 밥을 먹는다. ⇒ 먹-+-는-+다
ㄴ 나는 학교에 간다. ⇒ 가-+-ㄴ-+다
ㄷ 태양은 지구를 돈다. ⇒ 돌(>도)-+-ㄴ-+다
ㄹ 영희는 내일 서울에 간다. ⇒ 가-+-ㄴ-+다

(6ㄱ)은 현재의 시간을 표현한 경우로, 현재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시간 관계를 표현한다. 주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는-'이 실현되거나 부사 '오늘, 지금'과 같이 결합하여 기능을 한다. (6ㄴ)은 '반복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경우로, 동작의 주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인다. (6ㄴ)은 동사 '가-'에 '-ㄴ-'이 결합하여 주어(나)가 매일 학교에 가는 행위를 표현한다. (6ㄷ)은 '보편적 진리'를 표현하는 경우로, '보편적 진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치를 말하는데, 일반적 진리라고도 한다. (6ㄷ)은 동사 '돌(>도)-'에 '-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태양이 돌고 있는 이치를 표현한다. (6ㄹ)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로,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다. (6ㄹ)도 동사 '가-'에 '-ㄴ-'이 결합하지만, 부사 '내일'과 공기 관계에 놓이므로 주어(명희)가 내일 서울에 갈 것임을 표현한다.

학교 문법에서 현재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학교 문법에서 현재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

어간	선어말어미	의미
• 동사	-ㄴ/는-	• 반복적 습관 • 보편적 진리 • 가까운 미래
• 형용사/서술격조사	-Ø-	

3)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일반적으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한 문장 구성에서 실현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ㄱ 내일 비가 오겠다. ⇒ 오-+-겠-+다
ㄴ 꽃이 예쁘겠다. ⇒ 예쁘-+-겠-+다
ㄷ 그는 열심히 일하니 성공하리라. ⇒ 성공하-+-리-+다

학교 문법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리-'를 인정하였다. 우선 (7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동사 '오-'에 '-겠-'이 결합하였고, (7ㄴ)은 형용사 '예쁘-'에 '-겠-'이 관여한 경우이다. (7ㄷ)은 동사 '성공하-'에 '-리-'가 결합한 경우이다. 국어에서는 주로 '-겠-'에 의해 미래시제가 표현되는데, '-리-'는 어미 '-다, 라, 니'에 한정하여 예스러운 표현으로 쓰고 있다.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문장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단순미래', '추측', '의지'[15]를 의미한다.

(8) ㄱ 나는 내일 숙제를 끝내겠다. ⇒ 끝내-+-겠-+-다
ㄴ 옷이 아이에게 크겠다. ⇒ 크-+-겠-+-다
ㄷ 나는 낚시하러 가겠다. ⇒ 가-+-겠-+-다
ㄹ 너는 밥을 먹겠니? ⇒ 먹-+-겠-+니

(8ㄱ)은 '단순미래'를 표현한 경우로 미래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되는 시간 관계를 표현한다. 주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실현되거나, 부사 '내일, 모레, 곧'과 결합하여 의미를 표현한다. (8ㄴ)은 미래 선어말어미가 '추측'을 의미하는 경우로 '추측'은 미루어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 쓰인다. 문장이 평서문에서 주어가 1인칭이 아닐 때 실현되는데, (8ㄴ)은 형용사 '크-'에 '-겠-'이 결합하여 옷(주어)이 아이에게 클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표현한다. (8ㄷ)과 (8ㄹ)은 '의지'를 의미하는 경우로, 문장의 주어가 능동적인 행위를 말할 때 나타난다. '-겠-'이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나)인 경우이거나, 의문문에 2인칭 주어(너)인 경우로 인칭에 따른 통사적 제약을 갖는다.

학교 문법에서 미래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교 문법에서 미래시제의 실현 방법과 의미

어간	선어말어미	의미
• 동사/형용사 • 서술격조사	-겠-	• 미래시제 • 추측/의지

15) 임동훈(2001)은 '-겠-'이 형태상 '-게 ᄒᆞ엿-'의 발달 과정을 가지며, 의미에서도 예정에서 출발하여 추측과 의도를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겠-'이 나타내는 '추측'은 현재의 상황이나 화자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불확실한 상황에 바탕을 두고 추측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반면 '의지'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의 자발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주어와 동일한 화자가 자신의 미래 상황을 능동적인 것으로 언급했을 때 의지로 쉽게 해석이 됨을 설명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학교 문법의 동작상

2.1. 동작상의 체계

국어의 상 체계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어에서 상은 사건이나 상태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견해 차이를 보인다. 국어의 상 체계는 주로 '완료상, 비완료상' 혹은 '완료상, 진행상, 예정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완료'는 동작이 끝난 모습를 외부의 시간적 조망으로부터 전체 상황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비완료'는 상황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와 관련된 경우로 설명한다. 반면 3분법으로 나눈 '완료상'은 동작이 끝났거나 그 결과가 남은 모습을 파악한 동작의 양상이다. '진행상'은 아직 안 끝난 행위를 말한다. '예정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표현하지만, 국어에서는 예정상의 표지를 '-게 하다'를 취하여 사동사와 동일하다.

학교 문법에서 설정하는 동작상의 체계를 교과서별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9) ㄱ **동작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다. (교학사:293)

ㄴ **동작상**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 동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상'**, 동작이 완결되었으면 이를 **'완료상'**이라 한다. (금성:149)

ㄷ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을 표현한다. (미래엔:219)

ㄹ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거나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도 있다. 이는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뉜다. (창비:280)

ㅁ **동작상**이란 시간의 내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이다. 동작상에는 동작의 진행을 표시하는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표시하는 **'완료상'**이 있다. (천재교육:32)

ㅂ **동작상**은 사건 또는 동작 자체의 시간적 속성을 표현하는데, 동작 내부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를 말한다. 동작상에는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인 **진행상**과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인 **완료상**이 있다. (비상:26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내용을 종합하면 동작상[16]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나 상태의 변화 모습을 나타낸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 있다.

2.2. 동작상의 실현 방법

동작상의 주된 방법은 둘 이상의 형태적 구성이 통합한 통사적 구성에 의해 실현된다. 여기서 통사적 구성은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을 말한다. 동작상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를 교과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0) ㄱ · **진행상**은 주로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 **완료상**은 주로 '-아/어 버리다', '-아/어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교학사:292)

ㄴ · **진행상**은 '-고 있다'
· **완료상**은 '-아/어 버리다' (금성:149)

ㄷ · **진행상**은 '-고 있다'
· **완료상**은 '-아/어 버리다' (미래:220)

ㄹ · **진행상**은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으로 표현한다.
· **완료상**은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으로 표현한다. (창비:280)

ㅁ · **진행상**은 '-고 있다', '-아/어 가다', '-는 중이다' 등으로 실현된다.
· **완료상**은 '-아/어 있다', '-아/어 두다', '-아/어 버리다', '-아/어 놓다' 등과 연결된다. (천재교육:32)

ㅂ · **진행상**은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를 쓴다.
· **완료상**은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를 쓴다. (비상:260)

동작상은 주로 통사적 구성을 통해 실현되는데, 통사적 구성은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을 말한다. (10)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행상은 '-고 있다', '-아/어 가다', 완료상은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로 표현한다. 다만 여기서 '있다, 가다, 버리다'의 경우 어휘적 의미 기능이 아닌 문법적 기능으로 행위의 '진행'과 '완료'를 표현한다.

16) 여기서는 학교 문법의 체계를 살펴보기 때문에 동작의 양상을 '동작상'이란 용어로 다루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진행상

진행상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 ㄱ 동생이 가방을 매고 있다. ⇒ 매-+-고 있-+-다
ㄴ 땅이 다 말라 가다.⇒ 마르-+-아 있-+-다

학교 문법에서 진행상의 통사적인 구성인 '-고 있-'과 '-아/어 가-'를 인정하였다. (11ㄱ)은 동사 '매-'에 '-고 있다'가 관여한 경우이며, (11ㄴ)은 동사 '마르-'에 '-아 가다'가 관여한 경우다. 진행상은 주로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에 의해 실현되며,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므로 어간은 동사만을 갖는다.

(11ㄱ)과 같이 진행상이 실현된 문장은 '동작 진행'과 '상태 지속'의 중의성을 갖는다. (11ㄱ)에서는 '동작 진행'은 동생이 가방을 지금 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태 지속'은 동생이 이미 가방을 맨 상태를 발화시까지 지속됨을 표현한다. 중의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작의 양상이 다르데, '-고 있-'이 붙어 동작류에 따라 '매다'와 같이 부착적 용언에는 중의성을 갖는다. 반면 (11ㄴ)은 동사 '마르-'에 '-아 가다'는 땅이 말라가는 상태가 진행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학교 문법에서 진행상의 실현 방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학교 문법에서 진행상의 실현 방법과 의미

어간	선어말어미	의미
• 동사	-고 있- -아/어 가-	• 진행상 • 동작의 진행 • 상태의 지속

2) 완료상

완료상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동작이 끝남을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 ㄱ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 앉-+-아 있-+-다
ㄴ 동생이 밥을 다 먹어 버리다. ⇒ 먹-+-어 버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는 학교 문법에서 '-아/어 있-'과 '-아/어 버리-'를 인정하였다. (12ㄱ)은 동사 '앉-'에 '-아 있다'가 관여하였고, (12ㄴ)은 동사 '먹-'에 '-어 버리다'가 관여한 경우다. 완료상은 (12)와 같이 실현되는데, '완료'와 '결과'의 의미를 갖는다. (12ㄱ)은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가 '완료'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12ㄴ)은 동생이 이미 밥을 다 먹은 상태로 '결과'를 표현하였다.

학교 문법에서 완료상의 실현 방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학교 문법에서 완료상의 실현 방법과 의미

어간	선어말어미	의미
• 동사	-아/어 있- -아/어 버리다-	• 완료 • 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와 실현 양상

Ⅲ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체계와 종결형에 나타난 실현 양상을 살펴보겠다. 시간 표현의 체계는 시제를 3분법으로 나누어 '과거, 현재, 미래'가 기준이 되고, 상은 2분법인 '진행상, 완료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제주 방언의 체계가 이루어지면 시제와 상의 표지를 중심으로 실현 양상을 보겠다. 실현 양상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시간 표현의 표지가 교체하는 환경을 파악하고, 제주 방언의 문법적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는 선행 요소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아니다'에 따른 시간 표현의 음운론적·형태론적 조건의 이형태를 볼 것이다. 다음으로 후행 요소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감탄형 어미'[17]에 따른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어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유는 국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종결형 어미의 영향을 받아 시간 표현의 표지가 교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결형 어미 목록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종결형 어미 목록

구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홉서'체	-다(>라) -게	-과/가	-ㅂ서	
'ᄒᆞ여'체	-어/라 -주 -ㄴ게	-어/라 -ㄴ가(고)		
'ᄒᆞ라'체	-다/저/라 -네	-니/냐 -디/디야	-라	-게

17) 정승철(2013:179)은 제주 방언의 종결어미를 '홉서체, ᄒᆞ여체, ᄒᆞ라체' 3분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정승철(2013)의 종결 어미를 근거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주어구술자료집(1~28)』에서 추출 가능한 것으로 예문을 활용하였고, 종결형 어미 목록은 <표 7>과 같다. 다만 이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감탄형'과 의문형 어미 '-카', 높임의 '-우-'의 경우도 살펴보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

제주 방언에서 시간 표현의 체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현평효(1974), 홍종림(1991), 이기갑(1999), 우창현(1998, 2003, 2011)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중 현평효(1974)는 '-아시-'와 '-아 시-'를 '완료상, 완료 존속상, 미완료상, 미완료 존속상'으로 세분화하여 상 체계를 다루었다. 홍종림(1991)은 '-암시-'와 '-아시-'를 '실현상, 결과상'으로 상 체계를 구분하였고, 이기갑(1999)은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과거시제, 회상시제, 추정과 의도'로 시상 체계로 분류하였다. 우창현(1998, 2003)은 제주 방언의 상 체계를 '종결상, 과정상, 반복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우창현(2011)에서는 시제 체계를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로 나누었다. 이처럼 기존 논의들은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에 대하여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 표현의 체계에 적용할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 시간 표현은 시제와 상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시간 표현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시제 체계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3분법으로 세웠고, 상 체계는 '진행상, 완료상'으로 제시하였다. 시간 표현은 본래 '시제, 상, 양태'가 어느 한 관념으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표지가 여러 범주로 놓였다는 관점보다는 '시제'라는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상 혹은 양태'의 의미 기능을 확대하여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 미래시제 선어말어미는 미래의 시간을 기본 의미로 설정하고 '추측과 의지' 등의 양태적 의미를 부차적으로 살피겠다. 그리고 '상'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시제 혹은 양태'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보겠다. 예를 들어 선어말어미 '-암시-'는 '진행'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지만 문법 요소에 따라 '현재시제'의 양태적 의미를 부차적으로 보겠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범주에 나타나는 형태를 주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시제와 상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준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간 표현의 체계를 형태적 방법에 따라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1.1. 시제의 체계

시제는 사건이나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데,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간적 위치 관계에 따라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결정된다. ‘과거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 ‘현재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 ‘미래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후행할 때의 시간을 표현한다. 제주 방언에서도 ‘미래시제’를 설정함으로써 시제의 체계가 삼분법의 대립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에서 시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ㄱ (소) 나릅, 다습 나는 해엔 풀아서마씨.((소) 나릅, 다습 되는 해엔 팔았어요.) [고내리]
ㄴ 남선이라고 허는 사람이 각시를 얻어서.(‘남선비’라고 하는 사람이 각시를 얻었어.) [신도리]
ㄷ 이젠 약이 시난에 엿날엔 그것만 먹더라.(이젠 약이 있으니깐 옛날엔 그것만 먹더라.) [신촌리]
ㄹ 지금도 (감태) 건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폰다(지금도 (감태) 건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다.) [한동리]
ㅁ 누게가 거 손으로 헤당 포느니?(누가 그거 손으로 하다가 파니?) [선흘리]
ㅂ 자리, 원 나 그거 다 못 세기크라.(자리돔 원 나 그거 다 못 떠올리겠어.) [남원리]

(13)은 제주 방언에서 시제를 실현한 예로 (13ㄱ), (13ㄴ), (13ㄷ)은 과거시제, (13ㄹ)과 (13ㅁ)은 현재시제, (13ㅂ)은 미래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시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어말어미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에 의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데, (13ㄱ)은 소를 판 행위가 발화하는 현재보다 먼저 실현되었고 ‘소를 판 행위’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13ㄴ)은 새색시를 얻은 것도 현재보다 앞선 의미로 볼 수 있다. 예문 (13ㄱ)은 동사 ‘풀(팔)-’에 ‘-아시-’가 결합하여 ‘풀아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실현되었고, 현재의 ‘푼다’와 미래의 ‘풀크라’와 같이 계열관계를 이룬다. (13ㄴ)은 동사 ‘얻-’에 ‘-어시-’가 결합한 경우로 ‘얻어서’로 실현하는데, ‘얻은다’, ‘얻으크라’와 같이 계열관계를 이루므로 과거의 시간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아시/어시-’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단순히 과거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완료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선행 연구로는 현평효(1985), 고영진(2008), 문숙영(1998) 등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그중 현평효(1985)는 ‘-아시/어시-’를 ‘완료존속상’으로 보았으며, 고영진(2008)은 ‘완료상(Perfect)’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문숙영(1998)은 ‘결과상, 완료상, 완결상, 과거시제’로 확대하여 살폈다. 이러한 견해는 ‘-아시/어시-’가 본래 하나의 기능을 하지만 문맥과 결합 요소에 따라 다른 의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예문 (13ㄱ)과 (13ㄴ)도 발화시보다 앞선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된 의미는 ‘과거시제’가 되며, 문맥에 따라 ‘경험’이나 ‘완료’, ‘결과’가 부차적으로 의미 기능을 한다.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다른 형태로 ‘-더-’의 쓰임을 보면, 과거 어느 때에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다. (13ㄷ)은 화자가 이미 ‘그거’를 먹은 것을 인식한 시간을 회상하고 있다. 예문 (13ㄷ)은 동사 ‘먹-’에 ‘-더-’가 결합하여 ‘먹더라’로 실현되고, 현재의 ‘먹은다(먹는다)’와 과거의 ‘먹엇다(먹었다)’와 비교하면 ‘그거’를 먹은 사건은 화자가 이미 경험한 일이며, 회상하는 사건이나 상태는 인식한 시간(현재) 보다 앞섰다.[18] 다만, 화자가 인식한 시간이 발화시보다 앞선 의미를 내포하므로 시간상의 위치는 과거로 볼 수 있지만, ‘회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회상’은 화자는 직접 경험한 일이지만 청자는 새로 알게 된 사실이어야 한다.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ㄴ/느-’에 의해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예문 (13ㄹ)은 동사 ‘풀(팔)-’에 ‘-ㄴ-’이 결합했다. ‘푼다’는 과거 ‘풀아서’ 미래 ‘풀크라’와와 계열관계를 갖는다. (13ㅁ)은 동사 ‘풀(팔)-’에 ‘-느-’가 결합하여 ‘픈느니’로 실현되었다. ‘픈느니’는 과거 ‘풀아시니?(팔았니?)’와 미래 ‘풀크니?(팔겠니?)’와 계열관계를 이루므로 현재시제로 볼 수 있다. 다만 (13ㄹ)은 개인적으로 파는 행위는

18) 권재일(2013:335)은 시간과 관련을 맺는 관념에 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양태라고 설명하였으며, 양태에는 [회상], [추정], [의지]로 보았다. [회상]은 현실과 단절된 그때-그곳의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추측]이나 [의지]는 일에 대해 추측하거나 의지를 실현함을 설명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발화시 이후의 행위이지만 화자의 '확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시제가 실현되었다. 이처럼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ㄴ/느-'가 실현되는데 이는 맥락에 따라 양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크-'에 의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데, (13ㅂ)은 동사 '세기(떠올리)-'에 '-크-'가 결합하여 '세기크라'로 실현된다. '세기크라'는 현재 '세긴다(떠올린다)'와 과거 '세겨서(떠올렸어)'와 계열관계를 갖는 것으로 미래의 시간을 표현한다. 선어말어미 '-크-'가 단순히 미래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과 의지'의 양태 의미도 실현하는데, 예문 (13ㅂ)의 '-크-'는 1인칭 주어(화자)가 평서문에서 실현되어 '의지'의 의미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와 추측'의 의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으므로 미래의 시간을 내포하는 미래시제로 볼 수 있다.

1.2. 상의 체계

상은 시간적 흐름에 상태나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며 발화시를 기준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결정된다.[19] '진행상'은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며,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말한다. '완료상'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의 행위가 이미 끝나거나 행위의 결과가 남은 모습을 파악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에서 상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4) ㄱ 늙은 할망덜은 삼십 분벳기 못 살주만은 이제덜은 바당에 세 시간, 네 시간 살암서.(늙은 할머니들은 삼십 분밖에 못 살지만 이제들은 바다에 세 시간, 네 시간 살고 있어.) [삼달리]

ㄴ 이젠 뒈지 숢아난 국물을 먹엄서?(이젠 돼지 삶았던 국물을 먹고 있어?) [함덕리]

ㄷ 경헌디 우리 밧거리도 오란에 집 빌리렌 헨 그 방에 살아나서.(그런데 우리 바깥채도 와서 집 빌리라고 해서 그 방에 살았었어.) [고내리]

ㄹ 옛날 할망 어른덜은 (탁배기) 잘 먹어나서양.(옛날 할머니 어른들은 (탁배기) 잘 먹었었어요.) [구엄리]

19) 권재일(2013:334)은 시간과 관련을 맺는 관념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양상이라고 설명한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이 일어나는 모습, 이어지는 모습, 막 끝난 모습, 되풀이되는 모습 등을 진행, 완료, 결과, 반복으로 설명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는 제주 방언에서 상이 실현되는 양상으로 (14ㄱ), (14ㄴ)은 진행상을, (14ㄷ), (14ㄹ)은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상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어말어미에 의한 것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암시/엄시-'에 의해 '진행상'을 의미하는데, (14ㄱ)은 동사 '살-'에 '-암시-'가 결합하여, 늙은 할머니들이 바다에서 네 시간 정도 물질하고 있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14ㄴ)은 동사 '먹-'에 '-엄시-'가 결합하여 이제 돼지 국물을 먹는 모습을 묻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동작이 진행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나 '-암시/엄시-'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단순히 진행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문숙영(1998)은 '-암시/엄시-'를 현재시제로까지 확대하여 살피고 있다. '-암시/엄시-'는 본래 통사적 구성이었지만 이후 상 선어말어미로 형태적 문법화가 이루어졌다. 형태적 문법화를 거친 다음 의미 문법화를 통해 '단순현재'의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암시/엄시-'가 행위에 대해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부차적으로 현재의 시간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아나시/어나시-'에 의해 '완료상'이 실현된다. 예문 (14ㄷ)은 동사 '살-'에 '-아나시-'가 결합하여, 옛날에 그 방에 살았던 일을 표현하고 있다. (14ㄹ)은 동사 '먹-'에 '-어나시-'가 결합하여, 옛날 할머니들이 막걸리를 잘 먹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 방언의 시제와 상의 체계에 따른 실현 방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체계에 따른 실현 방법과 의미

구분		실현방법	의미
시제	과거시제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	과거, 완료
		-더/아/어/여/라-	회상
	현재시제	-ㄴ/느-	현재, 화자의 확신
	미래시제	-크-	미래, 추측, 의지
상	진행상	-암시/엄시/염시/람시/암(ㅅ)/엄(ㅅ)/염(ㅅ)/람(ㅅ)-	진행, 현재
	완료상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	완료(결과지속), 현재와 단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

2.1. 시제의 실현 양상

시제는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제주 방언에서도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를 통해 시제를 구성하며, 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

1) 과거시제

과거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 표현으로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에 기대어 표현된다.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대표형인 '-아시/어시-'는 본래 통사적 구성인 '-아 시-'에서 문법화가 된 것이다. '-아 시-'에서 '-아'는 보조적 연결어미이고, '시-'는 보조용언이 결합한 구성으로 '시다'는 국어의 '있다'에 대응한다. 따라서 본래 통사적 구성인 '-아 시-'는 제주 방언에서 '-아시/어시-'[20]로 문법화가 되고, 이후 '-앗/엇-'[21]의 형태까지만 문법화가 되었다.

(1) 선행 요소와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겠다.

---

20) 권재일(2014)은 국어에서 '-았/었-'으로 실현되는 어미는 15세기 국어에서 통사적 구성인 '-어 잇/이시-'에서 문법화된 형태로 설명하였다. 15세기 국어에서 '-어 잇/이시-' 구성은 본래 '상태지속상'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결되어 그 모습이 지속됨을 실현하였다. 이후 통사적 구성인 '-어 잇/이시-'가 모음이 축약하여 중모음 형태가 된 '-엣/에시-'[제2형]가 나타났고, 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 '-엇/어시-'[제3형]가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제주 방언은 제3형의 모습까지만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동일한 형태가 실현된 것이다.
(예) 비록 짜홀 어더시나[얻-어시-나](두시언해-초간 18:12)

21) 문숙영(2012:47)에서는 통사적 구성인 '-아 시-'는 이후 제주 방언에서 '이시-'와 '잇-'이 '있-'으로 변화지 않은 것처럼 '-아시/어시-'도 '-았/었-'으로까지 변하지 않고 '-앗/엇-'에 머무른 문법화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먼저,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과 어간과의 결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 ㄱ 밥ᄒᆞ곡 궤기도 궝 가서.(밥하고 고기도 구워서 갔어.) [대평리]
ㄴ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헹 놧다가 고대로 꺼꺼다가 그거 먹어서.(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해서 놨다가 그대로 꺾어다가 그거 먹었어.) [도련동]
ㄷ 그런 밥 먹으멍 살앗주.(그런 밥 먹으면서 살았지.) [구엄리]
ㄹ 저 초가집 이제 그 저 그거 짓으멍 고쳣주게.(저 초가집 이제 그 저 그거 지으면서 고쳤지.) [신창리]

(16) ㄱ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 [고산리]
ㄴ 옛날 빙떡 하나믄 요새 세 개야, 엄청 커서.(옛날 빙떡 하나면 요새 세 개야, 엄청 컸어.) [표선리]
ㄷ 보리 하영 간 집의가 ᄀᆞ스락도 하고 그 저 보리찍도 핫주.(보리 많이 간 집이 까끄라기도 많고 그 저 보릿짚도 많았지.) [표선리]
ㄹ 옛날엔 소고기 엇엇주.(옛날엔 소고기 없었지.) [신도리]

(17) ㄱ 혼 말 담는디 옛날 할망덜은 뒈싱 혼 뒈 놓는덴 헤서.(한 말 담는데 할머니들은 큰되 한 되 넣는다고 했어.) [한동리]
ㄴ 웃드리 사름덜이 건(사냥) 헷주.('웃드리' 사람들이 건(사냥) 했지.) [고내리]

(18) ㄱ 우리 아버지가 어디 저 대국 갓단에 술안 재로 오라서.(우리 아버지가 어디 저 대국 갔다가 살라서 재로 왔어.) [삼달리]
ㄴ 무신 경 허단 쪼끔 잇어 가사 돈이 좀 나오랏주.(무슨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어 가야 돈이 좀 나왔지.) [남원리]
ㄷ 이젠 또 그때는 요집도 큰 집이라서.(이젠 또 그때는 요집도 큰 집이었어.) [함덕리]
ㄹ 감전 주로 간식이랏주.(고구만 주로 간식이었지.) [도련동]

(15)의 밑줄 친 부분은 '가다, 먹다, 살다, 고치다'에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앗/엇-'이 결합하여 '가서, 먹어서, 살앗주, 고쳣주'로 실현된 양상이다. (15ㄱ)은 자동사 '가-'에 '-아시-'가 결합하였고, (15ㄴ)은 타동사 '먹-'에 '-어시-'가 결합하였다. (15ㄷ)은 자동사 '살-'에 '-앗-'이 결합하였고, (15ㄹ)은 타동사 '고치-'에 '-엇-'이 결합하였다. (16)의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에 결합한 경우로, '짧다, 크다, 하다(많다), 엇다(없다)'에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앗/엇-'이 결합하여 '짧아서, 커서, 핫주, 엇엇주'로 실현되었다. (16ㄱ)은 형용사 '짧-'에 '-아시-'가 결합하였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6ㄴ)은 형용사 '크-'에 '-어시-'가 결합하였다. (16ㄷ)은 형용사 '하-'에 '-앗-'이 결합하고, (16ㄹ)은 형용사 '엇-'에 '-엇-'이 결합하였다. 예문 (15)와 (16)을 볼 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선행 요소의 품사에 제약 없이 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앗-'과 '-어시/엇-'은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우창현(2002)에서는 '-아시-'는 결과지속을 '-앗-'은 시제의 의미로 본다. 그러나 예문 (15ㄷ) '살앗주'를 '살아서(살-+-아시-+-어)'[22]와 같이 교체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7)의 밑줄 친 부분은 '허다'에 선어말어미 '-여시/엿-'이 연결되어 '허여서, 허엿주'를 만들고 다시 줄여서 '헤서, 헷주'로 실현되었다. '-여시/엿-'은 선행하는 어간이 '허다' 동사나 '-허다'를 접사로 한 경우에 결합하므로 '-아시/앗-'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18)의 밑줄 친 부분은 '오다'와 '명사-이다'에 '-라시/랏-'이 결합하여, '오라서, 나오랏주, 집이라서, 간식이랏주'로 실현되었다. (18ㄱ)은 동사 '오-'에 '-라시-'가 결합하였고, (18ㄴ)은 동사 '나오-'에 '-랏-'이 결합한 구성이다. (18ㄷ)은 '집+-이다'에 '-라시-'가 결합하였고, (18ㄹ)은 '간식+-이다'에 '-랏-'이 결합하였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라시/랏-'은 동사 '오다'나 '-오다' 합성어, '명사+-이다', '아니다'가 어간일 때 결합하는 '-아시/앗-'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선행 요소에 따라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가 관여한다. 이들은 선행 요소의 품사에 관계없이 모두 결합하였지만 음운론·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이형태를 갖는다.

(2) 후행 요소와의 관계

다음으로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후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겠다. 제주 방언은 종결형 어미에 따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먼저, '-아시/어시/여시/라시-'와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ㄱ 그 홍수 터져난 후에 막아서.(그 홍수 터진 후에 막았어.) [선흘리]

22) '살아서'는 '우리 공출 때 그추룩 고생허멍 살아서.(우리 공출 때 그처럼 고생하면서 살았어.) [웅포리]'에서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 그땐 리사무소 웨에는 뭐 딴 관공 같은 건 엇어서.(그땐 리사무소 외에는 뭐 다른 관공 같은 건 없었어.) [고산리]

ㄷ 그거 족제비덧이엔 헤서.(그거 족제비덫이라고 했어.) [송당리]

ㄹ 음력 시월, 시월 나민 흔 스무날 뒈 가민 잇당 제기 오민 눈도 오라서.(음력 시월, 시월 나면 한 스무날 되어 가면 있다가 재기 오면 눈도 왔어.) [남원리]

ㅁ 우리 시어멍은 막 물질이 아주 상군이라서.(우리 시어머니는 매우 물질이 아주 '상군'이었어.) [남원리]

(20) ㄱ 이거, 이거 잘 만들어 놔신게.(이거, 이거 잘 만들어 놓았네.) [태흥리]

ㄴ 이거 깍 내어신게.(이거 '깍' 내었네.) [선흘리]

ㄷ 견데 소에 흐는 가린석은 아니 헤신게.(근데 소에 하는 고삐는 아니 했네.) [송당리]

ㄹ 문 하간 듸 강 들어오라신게.(모두 온갖 곳 가서 들어왔네.) [수망리]

(21) ㄱ 엿날엔 콩 하영 안 갈아시녜.(옛날엔 콩 많이 안 갈았어.) [세화리]

ㄴ 엿도 많이 만들앙 먹어시녜.(엿도 많이 만들어서 먹었어.) [한동리]

ㄷ 그전인 찌짐이 헹 먹젠 기엉 수월허게 살지 못헤시녜.(그전엔 지짐이 해서 먹으려고 그렇게 수월하게 살지 못했어.) [태흥리]

ㄹ 저 (신랑) 둘앙 오라시녜.(저 (신랑) 데려서 왔어.) [온평리, 수정]

(22) ㄱ 이젠 다 굴아시냐?(이젠 다 말했냐?) [남원리]

ㄴ 옛날에는 모자가 어떵 허연 잇어시냐?(옛날에는 모자가 어떻게 해서 있었냐?) [표선리]

ㄷ 요디 거세기 노인훼관 짓지 안헤시냐?(여기 거시기 노인회관 짓지 않았냐?) [신창리]

ㄹ 영철이 오라시냐?(영철이 왔냐?) [세화리]

(23) ㄱ (뚤이) 스월덜에 오란에 구월덜에 가신가?((딸이) 사월에 와서 구월에 갔나?) [고내리]

ㄴ 몰라 얼마 들어난 건 나 생각에 몰르고, 흔 마흔 뭇쯤 들어신가?(몰라 얼마 들었던 건 내 생각에 모르고, 한 마흔 뭇쯤 들었는가?) [신창리]

ㄷ 옛날 어른덜은 더 막 헤신가?(옛날 어른들은 더 마구 했는가?)

ㄹ 스백 원이라신가?(사백 원이었는가?) [태흥리]

(24) ㄱ 이제 생각허면 멜 물를 때 푸리 조그만이 앚아시카?(이제 생각하면 멜 마를 때 파리 조그맣게 앉았을까?) [표선리]

ㄴ 옛날 집 이 삼 리 헷자 흔 스무 가호 잇어시카?(옛날 집 이, 삼 리 해도 한 스무 가호 있었을까?) [태흥리]

ㄷ 엿날 경 떡을 헤시카?(옛날 그렇게 떡을 했을까?) [함덕리]

(19)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반말체 어미 '-어'가 결합한 경우로, '막다, 엇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없다), 허다(하다), 오다, 상군이다'에 '-아시/어시/여시/라시-'가 결합하여 '막아서, 엇어서, 헤서, 오라서, 상군이라서'로 실현되었다. (19ㄱ)은 동사 '막-'에 '-아시-'가 결합하고, (19ㄴ)은 형용사 '엇-'에 '-어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어'가 결합하였다. (19ㄷ)은 동사 '오-'에 '-라시-'가 결합하였고, (19ㄹ)은 '상군+-이다'에 '-라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어'가 결합하였다.[23] (20)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ㄴ게'가 결합한 경우로, '놓다, 내다, 허다(하다), 들어오다, 집이다'에 '-아시/어시/여시/라시-'가 결합하여 '놔신게, 내어신게, 헤신게, 들어오라신게, 집이라신게'로 실현되었다. (20ㄱ)은 동사 '놓-'에 '-아시-'가 결합하고 (20ㄴ)은 동사 '내-'에 '-어시-'가 결합하고 어미 '-ㄴ게'가 결합한 구성이다. (20ㄷ)은 '허-'에 '-여시-'가 결합하였고 (20ㄹ)은 '들어오-'에 '-라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게'가 결합한 구성이다. (21)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네'가 결합한 경우로, '갈다, 먹다, 못허다(못하다), 오다'에 '-아시/어시/여시/라시-'가 결합하여 '갈아시네, 먹어시네, 못헤시네, 오라시네'로 실현되었다. (21ㄱ)은 동사 '갈-'에 '-아시-'가 결합하고 (21ㄴ)은 동사 '먹-'에 어미 '-어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네'가 결합한 구성이다. (21ㄷ)은 '못허-'에 '-여시-'가 결합하고 (21ㄹ)은 동사 '오-'에 '-라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네'가 결합하였다. (22)의 밑줄 친 부분은 의문형 어미 '-냐'가 결합한 경우로, 'ᄀᆞᆯ다(말하다), 잇다(있다), 안허다(않다), 오다'에 '-아시/어시/여시/라시-'가 결합하여 'ᄀᆞᆯ아시냐, 잇어시냐, 안헤시냐, 오라시냐'로 실현되었다. (22ㄱ)은 타동사 'ᄀᆞᆯ-'에 '-아시-'가 결합하였고 (22ㄴ)은 자동사 '잇-'에 '-어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냐'가 연결되었다. (22ㄷ)은 '안허-'에 '-여시-'가 결합하고 (22ㄹ)은 동사 '오-'에 '-라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냐'가 결합하였다. (23)의 밑줄 친 부분은 의문형 어미 '-ㄴ가'가 결합한 경우로, '가다, 들다, 허다(하다), 원이다'에 '-아시/어시/여시/라시-'가 결합하여 '가신가, 들어신가, 헤신가, 원이라신가'로 실현되었다. (23ㄱ)은 자동사 '가-'에 어미 '-아시-'가 연결되고 (23ㄴ)은 동사 '들-'에 '-어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가'가 결합한 구성이다. (23ㄷ)은 '허-'에 '-여시-'가 결합하고 (23ㄹ)은 '원+-이다'에 '-라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가'가 결합한 구성이다. (24)의 밑줄 친 부분은 의문형 어미 '-카'가 결

23) '막아서, 엇어서, 헤서, 오라서'의 경우 '막앗어, 엇엇어, 헷어, 오랏어'와 같이 표기할 수 있으나, 본래 '-아시-'가 결합한 형태를 보이기 위하여 전자의 표기법을 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합한 경우로, ‘앚다(앉다), 잇다(있다), 허다(하다)’가 결합하여 ‘앚아시카, 잇어시카, 헤시카’로 실현되었다. (24ㄱ)은 자동사 ‘앚-’에 ‘-아시-’가 결합하고 (24ㄴ)은 자동사 ‘잇-’에 ‘-어시-’가 결합하였고 (24ㄷ)은 ‘허-’에 ‘-여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카’가 결합한 경우다.

한편, 국어와 다르게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아시/어시-’가 다음과 같이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가 와도 결합한다.

(25) ㄱ 느 몬저 영 어디 강 멘들아시라.(너 먼저 이렇게 어디 가서 *만들었어라./*만들어 있어라/만들어라..)
ㄴ 우리 몬저 영 어디 강 멘들아시게.(우리 먼저 이렇게 어디 가서 *만들었자/*만들어 있자/만들고 있자.)

(25)의 밑줄 친 부분은 명령형 어미 ‘-라’와 청유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경우로, ‘멘들아시라, 멘들아시게’ 실현되었다. (25ㄱ)은 타동사 ‘멘들-’에 ‘-아시-’가 결합하고 어미 ‘-라’가 결합한 경우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25ㄴ)은 동일한 환경에서 어미 ‘-게’가 결합한 구성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지금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앗/엇/엿/랏-’과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ㄱ 이제 가이 시집갓저.(이제 그 아이 시집갔어.) [선흘리]
ㄴ 아무 집인 솟 싯언 어펏저.(아무 집엔 솥 씻어서 엎었어.) [태흥리]
ㄷ 무신 콩죽 쒕 먹을, 저녁 먹은 후제 콩죽 쑬 만은 헷저.(무슨 콩죽 쒀서 먹을, 저녁 먹은 후에 콩죽 쑬 만은 했어.) [도련동]
ㄹ 게난 또 그 장옷 입곡, 장옷 쓰곡, 저 가마 타고 오랏저.(그러니깐 또 그 장옷 입고, 장옷 쓰고, 저 가마 타고 왔어.) [남원리]
ㅁ 농고가 그때는 제주대학이 없어부난 젤 큰 것이랏저.(농고가 그때는 제주대학이 없어 버리니깐 제일 큰 것이었어.) [한동리]

(27) ㄱ 이녁 보리만썩덜 이녁 불랏주.(자기 보리만큼씩 자기(가) 밟았지.) [성읍리]
ㄴ 그 ᄂᆞ물을 지름 빠다 먹엇주.(그 나물을 기름 빼다가 먹었지.) [대평리]
ㄷ 소금물에 둥갓당 김치 헷주.(소금물에 담갔다가 김치 했지.) [삼달리]
ㄹ 누에 저 뽕 톹으레 가오랏주.(누에 저 뽕 뜯으러 갔다왔지.) [신도리]
ㅁ 보리밥에 대강 옛날은 마농지허고 자리젓이 반찬이랏주.(보리밥에 대강 옛날은 마늘장아찌하고 자리돔젓이 반찬이었지.) [신창리]

(28) ㄱ 아, 이거 넉 낫구나.(아, 이거 넋 났구나.) [고산리]
ㄴ 생이궤ᄁᆞ지 네 개 잇엇구나.(‘생이궤’까지 네 개 있었구나.) [성읍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ㄷ 먹통은게 이제 먹물 놔근에 실 헤영 영 영 감앙 굳작허게 허는 것ᄀᆞ라 먹통, 먹통이엔 헷구나.(먹통은 이제 먹물 놔서 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곧게 하는 것보고 먹통, 먹통이라고 했구나.) [신창리]

ㄹ 아이고, 폿죽 나오랏구나.(아이고, 팥죽 나왔구나.) [태흥리]

(26)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저'에 결합한 경우로, '시집가다, 어프다(엎다), 허다(하다), 오다, 것이다'에 '-앗/엇/엿/랏-'이 결합하여 '시집갓저, 어펏저, 헷저, 오랏저, 것이랏저'로 실현되고 있다. (26ㄱ)은 자동사 '시집가-'에 어미 '-앗-'이 결합했고 (26ㄴ)은 타동사 '어프-'에 어미 '-엇-'이 연결하고 (26ㄷ)은 '허-'에 어미 '-엿-'이 연결된 '허엿-'이 다시 줄어서 '헷-'에 결합한 다음 '-저'가 결합하였다. (26ㄹ)은 자동사 '오-'에, (26ㅁ)은 '것+-이다'에 어미 '-랏-'이 결합한 다음 어미 '-저'가 결합하였다. (27)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주'에 결합한 경우로, '볼르다(밟다), 먹다, 허다(하다), 가오다(왔다갔다), 반찬이다'에 '-앗/엇/엿/랏-'이 결합하여 '볼랏주, 먹엇주, 헷주, 가오랏주, 반찬이랏주'로 실현되고 있다. (27ㄱ)은 타동사 '볼르-'에 '-앗'이 결합한 '볼랏-'이 연결되고 (27ㄴ)은 타동사 '먹-'에 '-엇-'이 결합하고, (27ㄷ)은 '허-'에 '-엿-'이 결합하여 '허엿-'이 되고 축약하여 '헷-'에 어미 '-주'가 결합한 구성이다. (27ㄹ)은 '가오-'에, (27ㅁ)은 '반찬+-이다'에 어미 '-랏-'이 결합한 다음 어미 '-주'가 결합한 구성이다. (28)의 밑줄 친 부분은 감탄형 어미 '-구나'에 결합한 경우로, '나다, 잇다(있다), 허다(하다), 나오다'에 '-앗/엇/엿/랏-'이 결합하여 '낫구나, 잇엇구나, 헷구나, 나오랏구나'로 실현되고 있다. (28ㄱ)은 자동사 '나-'에 선어말어미 '-앗-'이 결합하고 (28ㄴ)은 자동사 '잇-'에 선어말어미 '-엇-'이 결합한 다음 어미 '-구나'가 결합하였다. (28ㄷ)은 '허-'에 '-엿-'이 결합되고 (28ㄹ)은 '나오-'에 '-랏-'이 결합한 다음 어미 '-구나'가 결합하였다.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실현 환경을 다음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

구분	어간	선어말어미	종결 어미
제주 방언	▪ 동사/형용사	-아시/어시-	▪ -아, -ㄴ게, -녜 ▪ -ㄴ가, -냐/니, 카 ▪ -라, -게
	▪ 허다	-여시-	
	▪ 오다/이다/아니다	-라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방언	▪ 동사/형용사	-앗/엇-	▪ -저, -주 ▪ -구나
	▪ 허다	-엿-	
	▪ 오다/이다/아니다	-랏-	

2) 회상

회상은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시로 하여 그때 화자가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표현한다. 지각의 시점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과거시제이나, '-아시/어시-'가 결합한 것과 의미가 다르다.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더/아/어/여/라-'에 기대어 표현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갖는 형태적 제약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연구에는 현평효(1974), 홍종림(1983) 등이 있으며, '-더-'에 대하여 현평효(1974)는 '회상법'으로 보며, 홍종림(1991)은 '화자 수용적 인식의 회상'의 서법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실현되는 선어말어미 '-아/어/여/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행 요소와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는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겠다. 먼저, '-아/어/여/라-'와 어간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ㄱ (우리 아버지네가 그 제국 때에) 공항에 일허레 강 ᄉᆞ십 일썩 살아라게.((우리 아버지가 그 제국 시대에) 공항에 일하러 가서 사십 일씩 살더라.) [선흘리]

ㄴ 감제 비와 놈멍 흑 그레 더프멍 허영 손 들어가게 고망 내왕 ᄂᆞ람쥐 더끄고 주젱이 더꺼라, 옛날은(고구마 비워 놓으면서 흙 거기에 덮으면서 해서 손 들어가게 구멍 내서 이엉 덮고 주저리 덮더라, 옛날은) [신창리]

(30) ㄱ 이 바령밧디 곡석도 좋아라.(이 '바령밭'에 곡식도 좋더라.) [태흥리]

ㄴ 아이고, 어치냑 꿈사리가 궂어라.(아이고, 어제 꿈자리가 궂더라.) [선흘리]

(31) ㄱ 그냥 둑만 숨앙 모욕도 막 심헌 사름은 모욕도 헌덴 헤라.(그냥 닭만 삶아서 목욕도, 매우 심한 사람은 목욕도 한다고 하더라.) [선흘리]

ㄴ 어디 강 팡 묻어 불고 경 헤라.(어디 가서 파서 묻어 버리고 그렇게 하더라.) [신창리]

(32) ㄱ 본토백인 엇곡 몬딱 육지사름이엔 경 방송 나오라라.(본토박인 없고 모두 '육지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람'이라고 그렇게 방송 나오더라.) [삼달리]

ㄴ 저 잘허는 사름덜은 일 년에 혼 번 조왕제엔 허멍 나그넬 둘앙 오면, 조왕으로덜 문 비는 셍이라라.(저 잘하는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 '조왕제'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데려 오면, '조왕'으로들 모두 비는 모양이더라.) [남원리]

(29)의 밑줄 친 부분은 '살다, 더끄다(덮다), 좋다, 궂다, 허다(하다), 나오다, 셍이다(모양이다)'에 선어말어미 '-아/어/여/라-'가 결합하여, '앚아라, 더꺼라, 좋아라, 궂어라, 헤라, 나오라라, 셍이라라'로 실현된 양상이다. (29ㄱ)은 자동사 '살-'에 '-아-'가 결합하였고, (29ㄴ)은 타동사 '더끄-'에 '-어-'가 결합하였다. (30ㄱ)은 형용사 '좋-'에 '-아-'가 결합하였고, (30ㄴ)은 형용사 '궂-'에 '-어-'가 결합하였다. 위 예문들과 같이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용언 어간의 품사에 제약 없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ㄱ, ㄴ)은 '허-'에 '-여-'가 결합한 경우로 '허여-'를 만들고 다시 줄여 '헤라'로 나타낸다. (32ㄱ)은 동사 '나오-'에 '-라-'가 결합하였고, (32ㄴ)은 '셍(의존 명사)+-이다'에 '-라-'가 결합한 경우다. '-라-'는 선행하는 어간이 동사 '오다'나 '오다'와 합성어인 경우이거나 '명사+-이다', '아니다'가 어간일 때결합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주 방언에서 회상 선어말어미는 선행 어간에 따라 '-아/어/여/라-'가 결합하였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시제이지만, 화자가 이미 경험한 일을 떠올리는 '회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선어말어미 '-아/어/여/라-'는 국어와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국어에서는 주로 어간에 관계없이 단일한 형인 '-더-'만 실현되고 있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선행하는 어간에 따라 '-아/어/여/라-'가 결합된다.

(2) 후행 요소와의 관계

다음으로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후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겠다.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어미와 결합된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33) ㄱ 탕건골 어디 꼭 보이는 거 닮아라, 인칙에.('탕건골' 어디 꼭 보이는 거 같더라, 일찍에) [도련동]

ㄴ 응게, 것도 기계 이서라게.(응, 그것도 기계 있더라.) [선흘리]

ㄷ 그 전이 혼 삼 년 앞서부떠 헤라.(그 전에 한 삼 년 앞서부터 하더라.) [선흘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ㄹ 그런 모ᄌᆞ 멘들젠 허민이 막 달루와 가지고 헐렁헐렁허게 멩그는 기술이 신 셍이라라, 옛날도.(그런 모자 만들려고 하면, 마구 다루어 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모양이더라, 옛날도.) [선흘리]

(34) ㄱ 그디서 낭웨엔 ᄀᆞᆮ는 거 닮안게.(거기서 '낭웨'라고 말하는 거 같더라.) [선흘리]

ㄴ 그 새각시 밥 원 안 먹언게.(그 새색시 밥 원 안 먹더라.) [함덕리]

ㄷ 우리 하르방은 빨래 비누로 ᄀᆞᆷ으난 돌아낫젠 헨게.(우리 할아버지는 빨래 비누로 감으니깐 달아났다고 하더라.) [남원리]

ㄹ 종류가 이젠 더 ᄋᆞ라 가지란게.(종류가 이젠 더 여러 가지더라.) [선흘리]

(35) ㄱ ᄀᆞᆺ사 나 아이 ᄀᆞᆯ아냐?(금방 내(가) 아니 말하더냐?) [선흘리]

ㄴ 용수 우의란가?(용수 위던가?) [도련동]

(36) ㄱ ᄂᆞ 먼저 *먹어라.(너 먼저 *먹더라.)

ㄴ 우리 ᄀᆞ치 *먹어게.(우리 같이 *먹더자.)

(33)의 밑줄 친 부분은 회상의 선어말어미 '-아/어/여/라-'가 평서형 어미 '-다(>라)' 앞에 결합한 경우로, '닮아라, 이서라, 헤라, 셍이라라'로 실현되고 있다. 회상의 선어말어미 뒤에서는 평서형 '-다'가 '-라'로 실현된다. (33ㄱ)은 형용사 '닮-'에 '-아-'가 결합하고, (33ㄴ)은 자동사 '이시(있)-'에 어미 '-어-'가 결합한 다음 어미 '-라'가 연결되었다. (33ㄷ)은 '허-'에 '-여-'가 결합해 '허여-'가 축약되어 '헤-'가 결합하고, (33ㄹ)은 '셍(모양)+-이다'에 어미 '-라-'와 결합한 다음 종결어미 '-라'가 결합한 구성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주로 평서형 어미 '-라' 앞에서 실현되는데, (34)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평서형 어미 '-ㄴ게' 앞에 결합하여, '닮안게, 먹언게, 헨게, 가지란게'로 실현되고 있다. (34ㄱ)은 형용사 '닮-'에 '-아-'가 결합하고, (34ㄴ)은 타동사 '먹-'에 어미 '어-'가 결합한 다음 '-ㄴ게'가 결합하였다. (34ㄷ)은 '허(하)-'에 어미 '-여-'가 결합하고, (34ㄹ)은 '가지-이다(>Ø)'에 어미 '-라-'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게'가 결합한 구성이다. 예문 (35)는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의문형 어미 '-냐'나 '-ㄴ가' 앞에서 결합하여, 'ᄀᆞᆯ아냐, 우의란가'로 실현되고 있다. (35ㄱ)은 어간 'ᄀᆞᆮ-'에 선어말어미 '-아-'가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냐'가 결합한 구성이다. (35ㄴ)은 어간 '우의(위)+-이다(>Ø)'에 선어말어미 '-라-'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가'가 결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 방언에서도 회상 선어말어미는 (36ㄱ, ㄴ)처럼 명령형 어미 '-라'와 청유형 어미 '-게'에 결합할 수 없다. 국어와 동일하게 종결형 어미의 특성상 시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제약이 있으므로 회상의 선어말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선어말어미의 겹침

제주 방언에서는 하나의 어간에 여러 선어말어미가 연속하여 결합할 수 있으며, 선어말어미가 겹칠 때에는 일정한 순서를 고려하여 결합한다.[24]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순서와 같이 결합하는데, 주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와 미래시제 '-크-', 진행상의 '-암시/엄시-', 완료상의 '-아나시/어나시-'가 선행하여 결합한다. 이는 국어에서 '-았더-'와 '-겠더-', '-고 있더-', '-었었더-'에 대응할 수 있고 각각 '과거 회상'과 '추측 회상', '진행의 회상', '완료의 회상'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37) ㄱ 김 사뭇 보리 위에 올라서라.(김 사뭇 보리 위에 올랐더라.) [신창리]
ㄴ 엿날은 아이고, 구젱기 하영 잡아서라.(옛날은 아이고, 소라 많이 잡았더라.) [태흥리]
ㄷ 출 그딘 막 좋아서라.(꼴 거기 매우 좋았더라.)

(38) ㄱ 탯줄은 싸근에 ᄀᆞ만이 그 애기 클 때도록 놔두민, 저 하도 오래난에 말쩬 좀 일어서라.(탯줄은 싸서 가만이 그 애기 클 때도록 놔두면, 저 하도 오래니깐 말쩬 좀 일었더라.) [선흘리]
ㄴ 경 허곡 또 못벵뒤 가 불어서라.(그렇게 하고 또 '못벵뒤' 가 버렸더라.) [선흘리]
ㄷ 야, 저 앞바르 멜 들어서라.(야, 저 앞바다 '멜' 들었더라.) [온평리]

(39) ㄱ 이 용ᄉᆞ 짓는 디만 이 함덕으로 이젠 조천멘으로 경헤선게.(이 농사 짓는 데만 이 함덕으로 이젠 조천면으로 그렇게 했더라.) [선흘리]
ㄴ 경허난에 육지도 높은 사름덜은 묘덜 잘헤선게.(그렇게 하니깐 '육지'도 높은 사람들은 묘들 잘했더라.) [선흘리]
ㄷ 아무 디 간 보난 짓뻘경허게 문 베옷으로만 상복 헤서라.(아무 데 가서 보니깐 새빨갛게 모두 베옷으로만 상복 했더라.) [태흥리]

(37), (38), (39)의 예문은 회상의 선어말어미 '-어-'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여시/라시-' 뒤에 결합한 경우로, '올라서라, 잡아서라, 좋아서라', '일어

24) 국어에서 어미가 연속적으로 결합할 경우 일정한 순서를 가지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 '선생님은 벌써 그 일을 하시었겠더라..
- 하(어간)-+-시(존경)-+-었(과거)-+-겠(추측)-+-더(회상)-+-문장 유형/상대 높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라, 불어서라, 들어서라', '경혜선게, 잘혜선게, 혜서라'로 실현되고 있다. (37)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 다음 회상의 선어말어미 '-어-'가 결합된 경우로, (37ㄱ)은 동사 '오르-'에 '-아서-'가 결합하였다. (37ㄴ)은 타동사 '잡-'에 '-아서-'가 결합하였고, (37ㄷ)은 형용사 '좋-'에 '-아서-'가 결합하였다. (38)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어시-' 다음 회상의 선어말어미 '-어-'가 결합된 경우로, (38ㄱ)은 자동사 '일-'에 '-어서-'가 결합하였다. (38ㄴ)은 보조 용언 '불-'에 '-어서-'가 결합하였고, (38ㄷ)은 자동사 '들-'에 '-어서-'가 결합한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39)는 '허다' 동사나 '-허다'를 접사로 한 동사 뒤에 '-여시-'가 결합한 다음 선어말어미 '-어-'가 실현되었다. (39ㄱ)과 (37ㄷ)은 '허(하)-'에 '-여서-'가 결합하였고, (39ㄴ)은 '잘허(잘하)-'에 '-여서-'가 결합하였다.

위 예문과 같이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선행할 때, 단일한 형태인 '-어-'만 선택되어 '-아서/어서/여서-'[25]로 실현된다.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나 상태가 이미 완료된 후인 '결과'의 의미를 갖는다.

(40) ㄱ 우리 아버지가 그 각반 모냥으로 ᄒᆞᆫ 바질 입읍데다.(우리 아버지가 그 각반 모양으로 한 바지를 입습디다.) [대평리]
ㄴ 요건 이 양지, 귀에 다 걸쳐지게끔 이만이 이만씩 큽데다.(이건 이 양지, 귀에 다 걸쳐지게끔 이만큼 이만큼씩 큽디다.) [동광리]
ㄷ ᄒᆞᆫ 이틀 살민 할망이 곤쏠 ᄒᆞᆫ 뒈 싸 주멍 가라, 가라 ᄒᆞ영 보내불곡 경 홉데다.(한 이틀 살면 할머니가 흰쌀 한 되 싸 주면서 가거라, 가거라 해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합디다.) [대평리]
ㄹ 삼춘, 궤기 나끄레도 가볍데가?(삼촌, 고기 낚으러도 가봅디까?) [표선리, 조사자]

(41) ㄱ ᄇᆞ름 쎄영 온장벡이가 존둥이에 탁 무끄난 한 오 메다를 끗읍디다.(바람 세서 '온장벡이'가 잔등이에 탁 묶으니깐 한 오 미터를 끕디다.) [송당리]
ㄴ 그 일본 사름덜 보민 셍이도 잘 쏘읍디다.(그 일본 사람들 보면 새도 잘 쏩디다.) [표선리]
ㄷ 놈의 집 보다는 잘도 좋읍디다.(남의 집 보다는 아주 좋습디다.) [동광리]

(42) ㄱ 그 큰오름 뒤트레 가난 누게 사름 안 뎅기난 하십데다.(그 큰오름 뒤에 가니깐 누구 사람 안 다니니까 많습디다.) [구엄리]
ㄴ 우리 여자삼춘은 (혼수품) 뭐 헹 오라십데까?(우리 여자삼촌은 (혼수품) 뭐 해서 *

25) 문숙영(1998)은 /ㅣ/ 탈락을 중세국어의 'ᄒᆞ시아'가 'ᄒᆞ샤>ᄒᆞ사'로 나타남에 근거로 하여 '화합현상'을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아셔'를 거쳐 '아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왔습디까?) [성읍리, 조사자]

(40), (41)의 예문은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흡서체'에 실현된 경우로, '입읍데다, 큽데다, 흡데다, 가봅데가', '끗읍디다, 쏘읍디다, 좋읍디다'로 실현되고 있다. 우선 (40)은 평서형 어미 '-다'와 의문형 어미 '-가' 앞에 실현된 경우로, (40ㄱ)은 동사 '입-'에, (40ㄴ)은 형용사 '크-'에, (40ㄷ)은 '허(하)-'에 '-ㅂ데다'가 결합하였다. 그리고 (40ㄹ)은 동사 '가-'에 '-ㅂ데가'가 결합하였다. (40)의 예문을 보았을 때, 제주 방언에서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흡서체'에서 '-데다'와 '-데가(까)'로 실현되었다. 반면 국어의 '하십시오체'에서는 '입습디다, 큽디다, 합디다, 가봅디까?'로 실현되고 있어 제주 방언에서는 국어와 형태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41)의 예문과 같이 제주 방언에서도 '-ㅂ디다'로 실현되기도 한다. (41ㄱ)은 동사 '끗(끌)-'에 (41ㄴ)은 동사 '쏘-'에, (41ㄷ)은 형용사 '좋-'에 '-ㅂ디다'가 실현되며, 실제로는 '-ㅂ데다'와 '-ㅂ데까'의 '-데-'보다 '-디-'가 더 많이 나타난다.[26]

예문 (42)는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경우로 '하십데다, 오라십데까'로 실현되고 있다. (42ㄱ)은 형용사 '하(많)-'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가 결합하였고, 어미 '-ㅂ데다'가 실현되었다. (42ㄴ)은 동사 어간 '오-'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라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ㅂ데까'가 실현되었다. (42)의 밑줄 친 '하십데다, 오라십데까'도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데, 상대 높임이 결합되었다.

제주 방언에서 종결형에 나타난 회상 선어말어미의 실현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회상의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

구분	어간	선어말어미	종결 어미
제주 방언	▪ 동사 ▪ 형용사	-아/어/여-	▪ -라, -ㄴ게, ▪ -네, -냐, -니
	▪ 오다 ▪ 이다/아니다	-라-	

26) 이기갑(1999)에서는 제주 방언은 '-읍데다', '-읍데가'의 '-데-'가 많이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실제로 국어와 동일한 형태인 '-읍디다', '-읍디가'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현재시제

현재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시간 표현으로 현재시제는 어미 '-ㄴ/느-'[27]에 기대어 표현된다.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와 미래시제 '-크-'와 계열 관계를 이루며 현재의 시간을 표현한다.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시제, 서법, 양태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되어 왔다. 그중 현평효(1987)는 서법 범주로 '화자가 동작주의 동작이나 어떤 사태를 지시 인정하여 직접 말하는 서법'으로 보았으며, 홍종림(1991)은 양태 범주로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연 판단'의 의미로 설명한다. 문숙영(1998)은 기존 논의의 의미를 확대하여 '현재시제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때 양태적 의미는 지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으로 청자가 지닌 명제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우창현(1998)은 양상 선어말어미로 인식하여,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확신'의 의미로 설명한다.

(1) 선행 요소와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겠다. 먼저 선어말어미 '-ㄴ/느-'가 어간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ㄱ 우리 지달이 굼 파레 간다.(우리 오소리 구멍 파러 간다.) [송당리]
ㄴ 육지는 (단오날엔) 머리도 곱은다.(육지는 (단오날엔) 머리도 감는다.) 선흘리]
ㄷ 애기동지에는 전렴병이 많은다.(아기동지에는 전염병이 많다.) [송당리, 수정]
ㄹ 하도 경헤 가면은 그 천연두 헐 적에는이 꼭 구신 ᄀᆞ튼다.(하도 그렇게 해 가면 그 천연두 할 적에는 꼭 귀신 같다.) [한동리]

(44) ㄱ 농서영 하간 거 짓곡게 허젠 허난 그만이 고생 안 허영 살아지느냐?(농사랑 온갖 거 짓고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고생 안 해서 살 수 있냐?/살 수 있느냐?) [신창리]
ㄴ 그 적삼을 누가 마트느냐?(그 적삼을 누가 맡느냐?) [남원리]
ㄷ 이 선흘사 술 디 족느냐?(이 선흘이야 사를 데 적냐/*적느냐?) [선흘리]
ㄹ 돌레떡, 대접만이 헌 거 ᄒᆞ나 헤단 그걸 부찌난 좋느냐?(도래떡, 대접만큼 한 거 하나 해다가 그걸 붙이니깐 좋냐/*좋느냐?) [삼달리]

27) 선행 연구에서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를 '-느-'로 분석하는 견해는 현평효(1985), 홍종림(1993), 문숙영(1998)이 있다. 반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를 '-ㄴ-'으로 인정하는 우창현(1998)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행 요소와 결합 환경을 고려했을 때, '-ㄴ-'이 갖는 문법 과정의 간결성과 시제성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소를 대표형으로 설정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3)의 밑줄 친 부분은 ‘가다, ᄀᆞᆷ다(감다), 많다, ᄀᆞ트다(같다)’에 선어말어미 ‘-ㄴ-’이 결합하여, ‘간다, ᄀᆞᆷ은다, 무끈다, 많은다, ᄀᆞ튼다’로 실현되었다. (43ㄱ)은 자동사 ‘가-’에 ‘-ㄴ-이 결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다. (43ㄴ)은 타동사 ‘ᄀᆞᆷ-’에 ‘-ㄴ-’이 결합하여 일반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43ㄷ)은 형용사 ‘많-’에 ‘-ㄴ-’이 결합하며, (43ㄹ)은 형용사 ‘ᄀᆞ트-’에 ‘-ㄴ-’이 결합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형용사에 결합하여 ‘화자의 확신’이 담긴 일반적 진리를 표현한다. (44)의 밑줄 친 부분은 ‘살아지다(살 수 있다), 마트다(맡다), 족다(작다), 좋다’에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하여, ‘살아지느냐, 마트느냐, 족느냐, 좋느냐’로 실현되고 있다. (44ㄱ)은 자동사 ‘살아지-’에 ‘-느-’가 결합하였고, (44ㄴ)은 타동사 ‘마트-’에 ‘-느-’가 결합하였다. (44ㄷ)은 형용사 ‘족-’에 어미 ‘-느-’가 결합하였고, (44ㄹ)은 형용사 ‘좋-’에 ‘-느-’가 결합하였다. 국어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는 선행 요소가 형용사나 ‘명사-이다’ 구성은 어간에 직접 종결 어미가 결합하여 현재의 의미를 표현한다. 국어에서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어간에 따라 특정 어미가 결합하는 제약이 있다. 주로 국어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동사와 결합하지만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있다. 그중 고영근(2014:107)은 형용사의 의미 특성이 현재 선어말어미와 대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형용사는 주로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명확히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 (43ㄷ) ‘많은다’, (43ㄹ) ‘ᄀᆞ튼다’, (44ㄷ) ‘족느냐’, (44ㄹ) ‘좋느냐’와 같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와 형용사가 결합이 가능하다. 제주 방언에서 형용사와의 결합이 넓은 이유를 고영진(2007)은 ‘-ㄴ-’이 지닌 의미자질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ㄴ-’이 형용사 어간에 쓰일 때, [+항상성]을 의미하는데,[28] 여기서 [+항상성]은 ‘일시성’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상태가 항상적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고영진(2007:96)은 ‘이 구둘은 ᄃᆞᆺ은다.(이 방은 따뜻하다.)’와 ‘이 구둘은 ᄃᆞᆺ느냐?(이 방은 따뜻하냐?)’의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ᄃᆞᆺ은다’와

28) 고영진(2007)은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경우에는 ‘-느-’가 쓰이지 않으며,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느-’이 쓰인다고 말한다. 여기서 ‘-느-’는 선행 연구에서 다룬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하여 설명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둣느냐’는 방이 따뜻한 상태가 항상적임을 의미하는 [+항상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4)의 예문 ‘좋은다, ᄀᆞ튼다, 족느냐, 뚜나느냐’는 상태가 항상적이라는 의미자질을 갖기 보다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쓰여 ‘일반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ㄴ/느-’는 국어와 달리 선행하는 어간에 따른 분포적 제약을 갖지 않았으며, ‘-ㄴ-’이 여러 의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는 ‘-ㄴ/느-’이다. 여기서는 선어말어미 ‘-ㄴ/느-’가 어간이 동사일 때,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에 결합하였고, 국어와 달리 선행하는 어간의 음운론적 조건 없이 ‘-ㄴ-’만 관여했다는 점과 형용사 어간에도 결합이 가능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2) 후행 요소와의 관계

다음으로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에 후행 요소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제주 방언은 종결어미에 따라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ㄴ-’과 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ㄱ 그거 글씨를 잘 못 쓰민 거디서 비웃은다.(그거 글씨를 잘 못 쓰면 거기서 비웃는다.) [한동리]
ㄴ 가인 막 고운다.(그 아인 매우 곱다.)
ㄷ 여기선 그런 거 안 헌다.(여기선 그런 거 안 한다.) [고산리]

(46) ㄱ 게난 담제엔 떨어진 음식 엇이 다 허영 올리라.(그러니깐 담제에는 떨어지는 음식 없이 다 해서 올려라.) [신창리]
ㄴ 톨 무쳥 먹게.(톳 무쳐서 먹자.) [표선리]
ㄷ 요사이 양력 멩질ᄒᆞ는 디가 싯구나.(요사이 양력 명절하는 데가 있구나.) [동광리]

(45)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다’와 결합한 경우로, ‘비웃다, 곱다, 허다(하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결합하여 ‘비웃은다, 고운다, 헌다’로 실현되었다. (45ㄱ)은 동사 ‘비웃-’에 ‘-ㄴ-’이 결합하고 (45ㄴ)은 형용사 ‘곱-’에 ‘-ㄴ-’이 결합하고 (45ㄷ)은 ‘허-’에 ‘-ㄴ-’이 결합한 다음 어미 ‘-다’가 결합하였다. 예문 (46)의 ‘올리라, 먹게, 싯구나’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46ㄱ)은 반말체 어미 '-어', (46ㄴ)은 명령형 어미 '-라', (46ㄷ)은 청유형 어미 '-게', (46ㄹ)은 감탄형 '-구나'는 어간에 종결 어미가 직접 결합하여 현재를 표현한다. 따라서 (45)와 (46)을 비교했을 때,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은 평서형 종결어미 '-다' 앞에서만 실현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느-'와 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ㄱ 어, 경허민 다 서껑 누느네.(어, 그러면 다 섞어서 가려.) [신창리]
ㄴ 나 죽어 불어시민 즈손덜 안 날 걸 헹 어떤 땐 막 웃느네.(나 죽어 버렸으면 자손들 안 낳을 걸 해서 어떤 땐 매우 웃어.) [선흘리]
ㄷ 지진 묵, 쑨 묵 경 허느네.(지진 묵, 쑨 묵 그렇게 해.) [태흥리]
ㄹ 건 벌경허느네.(건 벌개.) [세화리]

(48) ㄱ 그때사 궤기 어디 셍 숢느니?(그때야 고기 어디 있어 삶니/*삶느니?) [한동리]
ㄴ 마주목으로이 궤 짠 거 얼마나 좋느니?(멀구슬나무로 궤 짠 거 얼마나 좋니/*좋느니?) [태흥리]
ㄷ 우리 할머니가 무신거옌 ᄀᆞᆫ는 중 아느냐?(우리 할머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아냐?) [삼달리]
ㄹ 몬딱 아프주게, 아니 아프느냐?(모두 아프지, 안 *아프느냐?/아프냐?) [월령리]

(47)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네'에 결합한 경우로, '눌다(가리다), 웃다, 경허다(하다), 벌경허다(벌갛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된 양상이다. (47ㄱ)은 타동사 '눌-'에 '-느-'가 결합하고 (47ㄴ)은 자동사 '웃-'에 '-느-'가 결합하였고, (47ㄷ)은 '허-'에 '-느-'가 결합한 경우고, (47ㄹ)은 형용사 '벌경허-'에 '-느-'가 결합한 다음 어미 '-네'가 결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느-'는 후행 요소로 의문형 어미 '-냐'나 '-니' 앞에서만 실현된다고 보았으나, 실제 발화에서 평서형 어미 '-네' 앞에서도 결합이 가능도 확인하였다. '-느-'가 '-네'와 결합할 때, 화자가 이미 경험한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 확신의 의미를 갖는다. (48)의 밑줄 친 부분은 의문형 어미 '-니'와 '-냐'에 결합한 경우로, '숢다(삶다), 좋다, 알다, 아프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된 양상이다. (48ㄱ)은 타동사 '숢-'에 '-느-'가 결합하고 (48ㄴ)은 형용사 '좋-'에 '-느-'가 결합하고 어미 '-니'가 결합한 구성이다. (48ㄷ)은 타동사 '알-'에 어미 '-느-'가 결합하였고, (48ㄹ)은 형용사 '아프-'에 '-느-'가 결합한 다음 어미 '-냐'가 결합한 구성이다. (48ㄴ)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8ㄹ)은 국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 형용사 어간에 '-느-'가 실현되었다. 국어에서 동사인 경우로는 '빠느냐, 매느냐'가 자연스럽고, 수의적으로 '빠냐, 매냐'도 허용한다.[29] 형용사인 경우로는 '-느-'가 결합하지 않고 '작냐, 다르냐'로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 제주 방언은 '-느-'가 결합하여 '빠느냐, 매느냐, 작느냐, 다르느냐'로 실현하여 현재의 시간을 강조하거나 화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종결형에 나타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의 실현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와 같다.

<표 11> 제주 방언에서 종결형에 나타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의 실현 환경

구분	어간	선어말어미	종결 어미
제주 방언	▪ 동사 ▪ 형용사 ▪ 명사+-이다	-(으)ㄴ-	▪ -다
		-느-	▪ -네 ▪ -냐, -니

4)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으로 제주 방언에서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에 기대어 표현된다.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선행 연구로는 김지홍(1992)[30], 홍종림(1993), 이기갑(2003)[31], 정승철(2013), 우창현(2000)[32] 등이 있다. 우선 '-크-'가 형성된 과정은 국어의 '-을 거-'와 의미적 유사성에 기대어 발달하였으며, 정승철(2013)에서는 통사적 구성인 형태가 문법화를 겪으면서 격음화와 '어>으'의 변화 그리고 관형형어미 'ㄹ'의 탈락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9) 서정목(1987)은 국어의 '-느냐'가 문어체적인 문장에 주로 쓰이고 구어체 문장에는 거의 쓰이지 않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구어체는 동사와 형용사에 상관없이 '-냐'가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어의 경우는 위 예문 (31ㄱ)에서 '빠느냐'와 '빠냐'의 의미 차이가 별반 없는 것에 근거하여 '느'가 결합된 '냐'와 '느'가 결합되지 않는 '냐'를 상정하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30) 김지홍(1992)에서 '-크-'의 형성 과정에 대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 논의에 따르면 '-크-'는 '-을 것-'이 축약하는 과정에서 먼저 /ㄹ/이 탈락하고 다음 /ㅎ/이 첨가되어 형성되었다고 본다.

31) 이기갑(2003)은 제주 방언의 '-크-'가 국어 '-을 것'이 제주 방언에서 '-을 거'의 형태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크-'가 발달했음을 설명한다.

32) 우창현(2000)은 통시론적 관점에서 '-크-'가 국어의 '거'에서 왔을 가능성에 두었다. 제주 방언에서 어미 중 '-큰가'가 '-컨가'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크-'의 형성 과정의 근거로 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방언에서 '-크-'대신 '-커-'의 형도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9) ㄱ 콩 종류가 상당이 많은데, 그건 나도 몰르커라.(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도련동]
ㄴ 도께도 봥 찍엉 가켄 허민 베와주커라.(도리깨도 봐서 찍어서 가겠다고 하면 보여주겠어.) [성읍리]
ㄷ 혼 바리 그거 질메 영 헤근에 질메엔 헌 거 알아지커라?(한 바리 그거 길마 이렇게 해서 길마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어?) [표선리]
ㄹ 쉐 거 안 풀커라?(소 그거 안 팔겠어?) [고내리]
ㅁ ᄀᆞ치 완 그 처음에 헌 땐 나 바빤 못 허커라.(같이 와서 그 처음에 할 땐 내가 바빠서 못 하겠어.) [도련동]
ㅂ 말을 못 허컵디다.(말을 못 하겠습디다.) [선흘리]
(50) ㄱ 그 식당에 가근에 허젠 헷자 못 허크라라.(그 식당에 가서 하려고 해봤자 못 하겠더라.) [함덕리]
ㄴ 돈 월급 하영 주는 딘 그런 디 강 허민 월급 하크라라.(돈 월급 많이 주는 덴 그런 데 가서 하면 월급 많겠더라.) [함덕리]

(49)의 밑줄 친 부분은 '몰르다(모르다), 베와주다(보여주다), 알아지다(알 수 있다), 풀다(팔다), 허다(하다)'에 '-커-'가 결합하여, '몰르커라, 베와주커라, 알아지커라, 풀커라, 허커라, 허컵디다'로 실현된 경우다. (49ㄱ)은 타동사 '몰르-'에 어미 '-커-'가 결합하였고, (49ㄴ)은 타동사 '베와주-'에 어미 '-커-'가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라'가 결합한 구성이다. (49ㄷ)은 동사 '알아지-'에 어미 '-커-'가 결합하였고 (49ㄹ)은 동사 '풀-'에 어미 '-커-'가 결합하고 (49ㅁ)은 동사 '허-'에 선어말어미 '-커-'가 결합한 다음 어미 '-라'가 결합하였다. (49ㅂ)은 '허-'에 선어말어미 '-커-'가 결합한 다음 '-ㅂ디다'가 결합하였다. 예문 (49)는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커-'가 실현되었다. 만약 이 형태소를 '-크-+-어-'와 같이 분석하여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와 회상의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문 (49)에서는 '회상'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커-'가 하나의 형태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50)은 '허크라라, 하크라라'로 실현된 경우다. (50ㄱ)은 동사 '허-'에 어미 '-크-'가 결합한 다음 회상의 '-라-'가 결합하였다. (50ㄴ)은 형용사 '하(많)-'에 어미 '-크-'가 결합한 다음 회상의 '-라-'가 결합한 경우다. 예문 (50)을 통해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다음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49ㅁ) '허커라'와 (50ㄱ) '허크라라'를 비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했을 때, 형태적 차이로 '-라-'가 결합함에 따라 '회상' 의미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크-'의 형성 과정을 정승철(2013:177)에서 '-을 거->-을커-(격음화)>-을크-('어>으'의 변화)>-으크-('ㄹ' 탈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문(49)와 같이 '-커-'도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로 기능하고 있다. '-커-'가 실현되기 위해 /ㄹ/탈락이 /ㅎ/축약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읋#것이(>거)->-을#커(/ㅎ/ 축약)->-(으)커(/ㄹ/ 탈락)->-(으)크-'로 융합된 어미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33] 다만 방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모음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저모음 /ㅓ/를 고모음 /ㅡ/로 발음하는 경향에 따라 점차 미래시제 어미로 '-크-'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제주 방언의 '-크-'는 국어와 다른 형태로 기능을 할 뿐,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서술하거나 추측과 의지를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크-'에 대하여 현평효(1985)는 다의어적 입장에서 '추측과 의도'의 서법 견해로 설명한다. 그리고 홍종림(1991)은 '모순적 대립 관계에 있는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그 판단을 실연화하는 화자의 확신'으로 보고 서술어의 진술에 따라 '의도'와 '추측'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설명한다. 우창현(2000)에서는 '가능성'의 의미 자질을 두어 주어가 1인칭일 때 '의도'를 주어가 1인칭 외인 경우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1) 선행 요소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의 선어말어미가 선행 요소와 결합된 양상을 보겠다. 먼저 '-크-'가 어간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ㄱ 나 따시 뒌장 아이 강 바꽈 오크라.(나 다시 된장 안 가서 바꿔 오겠어.) [신창리]
ㄴ 그 약방이 어디사 가신디 지금 못 촞이크라.(그 약방이 어디 갔는지 (나) 지금 못 찾겠어.) [선흘리]
ㄷ 그 바람 이름도 다 트나크라.(그 바람 이름도 다 다르겠어.) [성읍리, 수정]
ㄹ 맛도 좋으크라.(맛도 좋겠어.) [함덕리, 수정]
ㅁ 지금 (굴을) 촞아가도 못허크라.(지금 (굴을) 찾아가지도 못 하겠어.) [한동리]

33) 안주호(1997:228)에서 '-읋'과 의존명사인 '것'이 결합된 형태가 결과적으로 용언 활용형이 융합되어 어미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1)의 밑줄 친 부분은 ‘오다, 춪다(찾다), ᄐᆞ나다(다르다), 좋다, 못허다(못하다)’에 선어말어미 ‘-크-’가 결합하여, ‘오크라, 춪이크라, ᄐᆞ나크라, 좋으크라, 허크라’로 실현되고 있다. 어간이 동사인 예로, (51ㄱ)은 자동사 ‘오-’에 ‘-크-’가 하고, (51ㄴ)은 타동사 ‘춪-’에 ‘-크-’가 결합하였다. 어간이 형용사인 예로, (51ㄷ)은 ‘ᄐᆞ나-’에 ‘-크-’가 결합하였고, (ㄹ)은 형용사 ‘좋-’에 ‘-크-’가 결합하였다. 형용사 어간에 ‘-크-’가 붙어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51ㄴ)과 (51ㄹ)을 고려했을 때, ‘-크-’는 선행하는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 어간과 어미 사이 매개모음 ‘이’나 ‘으’가 삽입되어, ‘춪이크라, 좋으크라’로 실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51ㅁ)은 동사 ‘못허-’에 ‘-크-’가 결합한 구성이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는 ‘-크-’가 관여하며, 선행 요소의 품사에 관계없이 모두 결합하였다. 다만, 제주 방언에서 ‘-크-’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달리, 선행 요소에 따른 이형태 없이 단일한 형태인 ‘-크-’만을 선택하였다.

(2) 후행 요소와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의 선어말어미가 후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크-’가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ㄱ 노뉘에기 나 잊어불엉 못 멘들크라.(‘노뉘에기’ 내가 잊어버려서 못 만들겠어.) [선흘리]

ㄴ 우리 셋메누리 멧 설에 봐신디 모르크라.((내가) 우리 둘째며느리(를) 몇 살에 봤는지 모르겠어.) [함덕리]

ㄷ 페밥은 ᄒᆞ끔 부뜨는 게 하크라.(넓패밥은 조금 붙는 것이 많겠어.) [우도]

(53) ㄱ 나 이디 볼일 봥 가켜.(나 여기 볼일 보고서 가겠어.) [고내리]

ㄴ 시리 옥상에 놔두난에 이시카 모르켜.(시루 옥상에 놔두니까 있을까 모르겠어.) [표선리]

ㄷ 궤발시리허곡 저 이멩시리 그것가 이제 쓰민 좋켜.(‘궤발시리’하고 저 ‘이멩시리’ 그것이 이제 쓰면 좋겠어.) [선흘리]

(54) ㄱ 이때도록 고사리 꺼껏주만은 이젠 안 가키여.(이때까지 고사리 꺽었지만 이젠 안 가겠어.) [선흘리]

ㄴ 뭐 중머리가 이젠 너미 늦언 이젠 거시기 저 ᄇᆞ따사키여.(뭐 머리가 이젠 너무 느슨해서 이젠 거시기 저 밭아야겠어.) [대평리]

ㄷ 금년은 쉐출은 풍부허키여.(금년은 소꼴은 풍부하겠어.) [고내리, 수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ㄹ 탯줄은 오래 잇당 털어지는 애긴 좋으키여.(탯줄은 오래 있다가 떨어지는 아기는 좋겠어.) [남원리, 수정]

(55) ㄱ 나 다 못 <u>굴으큰게</u>.(나 다 못 말하겠네.) [신도리]

ㄴ 누게 길롸난 걸 <u>몰르큰게</u>.(누가 길렀던 걸 모르겠네.) [고내리]

ㄷ 멧 년 후에는 여기 본토백이 <u>엇이큰게</u>.(몇 년 후에는 여기 본토박이 없겠네.) [대평리, 조사자]

(56) ㄱ 이디 손가락마다 거심 안 <u>일크냐?</u>(여기 손가락마다 거스러미 안 일겠니?) [송당리]

ㄴ 멧 년도 <u>알아지크냐?</u>(몇 년도 알 수 있겠냐?) [신도리]

(57) ㄱ 느 몬저 *먹크라(너 먼저 *먹겠어라.)

ㄴ 우리 몬저 *<u>먹크게</u>.(우리 먼저 *먹겠자.)

ㄷ 족대가 그 구멍에 담으민 *뒈크구나/뒈겟구나.(이대가 그 구멍에 담으면 되겠구나.) [대평리]

(52)의 밑줄 친 부분은 선어말어미 '-크-' 다음 평서형 어미 '-다(>라)'가 결합한 경우로 '멘들크라, 모르크라, 하크라'로 실현되고 있다. (52ㄱ)은 타동사 '멘들-'에 '-크-'가 결합하고, (52ㄴ)은 타동사 '모르-'에 '-크-'가 결합하였고 (52ㄷ) 형용사 '하(많)-'에 '-크-'가 결합한 다음 어미 '-라'가 결합한 구성이다. 예문 (53)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다음 반말체 어미 '-어'가 결합한 경우로, '가켜, 모르켜, 좋켜'로 실현되고 있다. 예문 (53)은 '의지와 추측'의 의미가 확인되는데, '가켜, 모르켜, 좋켜'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53ㄱ)은 자동사 '가-'에 '-켜', (54ㄴ)은 타동사 '모르-'에 '-켜', (53ㄷ)은 형용사 '좋-'에 '-켜'가 결합한 구성이다. 어간과 어미 '-어'를 제외하면 '-키-'가 '의지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크-+-어'가 결합형이라면, 최종형이 '-커'나 '-크어'와 같이 실현되어야 하나, 실제 제주 방언의 언어 환경에서는 '-켜'나 '-키여'가 실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반말체 어미 앞에선 '-크-'로 설명하기 어렵다. 예문 (54)와 같이 '키여'가 실현되고 있다. '키여'에 대하여 학자마다 어미 '-(이)여'를 설정함으로써 '-크-' 다음 어미 '-(이)여'가 결합하여 '키여, 켜'로 실현됨을 설명한다. 그러나 어미에 매개모음 '이'가 실현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키-'를 설정하여 반말체 어미 '어'에 결합한 '-키여, -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키-'는 '-크-'에서 온 형태로, 고모음화로 인하여 생긴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문장에서 '-크-'와 '-키-'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때 이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5)는 평서형 어미 '-ㄴ게'가 결합한 경우로, '굴으큰게, 몰르큰게, 엇이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로 실현되고 있다. (55ㄱ)은 동사 ‘ᄀᆞᆮ(말하)-’에 ‘-크-’가 결합하고, (55ㄴ)은 동사 ‘몰르(모르)-’에 ‘-크-’가 결합한 경우며, (55ㄷ)은 형용사 ‘엇(없)-’에 ‘-크-’가 결합한 다음 ‘-ㄴ게’가 결합한 구성이다. 예문 (56)은 의문형 어미 ‘-냐’가 결합한 경우로, ‘일크냐, 알아지크냐’로 실현되고 있다. (56ㄱ)은 동사 ‘일-’에 ‘-크-’가 결합하고 (56ㄴ)은 동사 ‘알아지(알 수 있)-’에 ‘-크-’가 결합한 다음 어미 ‘-냐’가 결합한 구성이다. 예문 (57)은 제주 방언에서 ‘크-’가 결합되지 않는 어미의 환경으로, (57ㄱ)은 명령형 어미 ‘-라’ 앞, (57ㄴ)은 청유형 어미 ‘-게’ 앞 (57ㄷ)은 감탄형 어미 ‘-구나’ 앞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3) 선어말어미 겹침

제주 방언에서는 하나의 어간에 여러 선어말어미가 겹칠 수 있으며,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에서도 실현된다. 주로 과거시제 ‘-아시/어시-’와 진행상의 ‘-암시/엄시-’, 완료상 ‘-아나시/어나시-’가 선행하여 결합된다. 그리고 회상의 선어말어미 ‘-라-’는 ‘-크-’에 후행하여 결합한다. 또한 높임의 어미 ‘-우-’는 ‘-크-’ 다음에 결합하여 ‘-쿠-’로 실현된다. 이는 국어에서 ‘-았겠-’, ‘-고 있겠-’와 ‘-겠더-’, ‘-었었겠-’에 대응할 수 있고 각각 ‘과거 추측’과 ‘진행 추측’, ‘추측 회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58) ㄱ 아 이건 존 베설로 원 못 쓰쿠다.(아 이건 잔 창자로 원 못 쓰겠습니다.) [남원리]
ㄴ 우린 몰란, 거 들엉 놔두쿠다.(우린 몰라서, 그거 들어서 놔두겠습니다.) [대평리]
ㄷ 두부 사당 허쿠다.(두부 사다가 하겠습니다.) [선흘리]
ㄹ 어떵 허영 촐 비쿠과?(어떻게 해서 꼴 베겠습니까?) [선흘리, 수정]
ㅁ 몾아지쿠과?(맺어지겠습니까?) [도련동]

(59) ㄱ 뜬땅이라부난 보리밧 볼라시크라.(‘뜬땅’이니깐 보리밭 밟았겠다.) [한동리, 조사자]
ㄴ 배가 엇어시크라.(배가 없었겠어.) [우도, 조사자]
ㄷ 자치기도 많이 허곡 헤시크라예.(자치기도 많이 하고 했겠어요.) [고성리, 조사자]

(60) ㄱ 원 혼 시간만 더 오민 ᄌᆞ물크라라.(원 한 시간만 더 오면 잠기겠더라.) [선흘리, 수정]
ㄴ 가렝이를 잘 씻어사 허크라라.(가랑이를 잘 씻어야 하겠더라.) [남원리]
ㄷ 거 섭지근헹 몬직지도 못허크란게.(그거 흉칙해서 만지지도 못하겠더라.) [함덕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ㄹ 월급 하크라라.(월급 많겠더라.) [신창리]

(58)의 밑줄 친 부분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와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크-+-우->-쿠-'와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다'와 의문형 어미 '-과(가)'가 결합한 구성으로 '쓰쿠다, 놔두쿠다, 허쿠다, 비쿠과, 몾아지쿠과'로 실현된 양상이다. (58ㄱ)은 동사 '쓰-'에 '-쿠-'가 결합하고 (58ㄴ)은 동사 '놔두-'에 '-쿠-'가 결합한 경우며, (58ㄷ)은 '허-'에 '-쿠-'가 평서형 어미 '-다' 앞에 결합하였다. (58ㄱ)은 주어가 3인칭 '이거'이므로 '추측'의 의미를 갖고, (58ㄴ)과 (58ㄷ)은 1인칭 주어 평서문에 실현되기 때문에 '의지'의 의미를 갖는다. (58ㄷ)은 동사 '비(베)-'에 '-쿠-'가 결합하였고 (58ㄹ)은 동사 '알아지-'에 '-쿠-'가 결합한 경우이고 (58ㅁ)은 동사 '몾아지-'에 '-쿠-'가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과'가 결합한 구성이다. 예문 (57ㄹ, ㅁ, ㅂ)은 2인칭 주어(청자)가 의문문에 실현되기 때문에 청자의 '의도'를 의미한다. 예문 (59)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 결합한 경우로, '-아시/어시-'가 '-크-'에 결합되어 '-아시크/어시크-'가 결합한 구성으로, '볼라시크라, 엇어시크라 헤시크라'가 실현된 양상이다. (59ㄱ)은 동사 '볼르(밝)-'에 '-아시크-'가 결합한 '볼라시크-'가 실현되고 (59ㄴ)은 동사 '엇(없)-'에 '-어시크-'가 결합하여 '엇어시크-'로 나타났다. (59ㄷ)은 동사 '허-'에 '-여시크-'가 연결되어 '-헤시크-'가 실현된 경우다.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어시/아시/여시/라시-'에 결합할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예문 (60)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회상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경우로, '-크-'와 '-라-'가 결합한 '-크라-'의 구성으로, 'ᄌᆞ물크라라, 허크라라, 못허크란게, 하크라라'와 같이 실현된다. (60ㄱ)은 동사 'ᄌᆞ물(잠기)-'에 '-크라-'가 결합한 구성으로 'ᄌᆞ물크라라-'로 실현되었다. (60ㄴ)은 동사 '허(하)-'에 '-크라-'가 결합 '허크라-'가 되고 (60ㄷ)은 동사 '못허(못하)-'에 '-크라-'가 결합하여 '못허크라-'가 나타났다. (60ㄹ)은 형용사 '하(많)-'에 '-크라-'가 결합하여 '하크라-'가 나타났다. 예문 (60)과 같이 제주 방언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가 회상의 선어말어미 '-라-'와 결합할 때, 회상의 선어말어미는 단일한 형인 '-라-'만 선택되어 '-크라-'로 실현되고, 과거 어느 시점의 일을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일을 추측하는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의 실현 환경을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실현 환경

구분	어간	선어말어미	어미
제주 방언	▪ 동사 ▪ 형용사 ▪ 이다/아니다	-크-	▪ -라, -ㄴ게 ▪ -냐
		-키-	▪ -어

2.2. 상의 실현 양상

상은 동사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진행이나 완료와 같이 시제에 종속되어 있는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를 통해 진행상을 구성하고, 완료상은 보조 용언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구성으로 나타낸다.

1) 진행상

진행상은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암시/엄시/염시/람시/암(ㅅ)/엄(ㅅ)/염(ㅅ)/람(ㅅ)-'에 기대어 표현된다. 제주 방언에서 대표형인 '-암시/엄시-'는 본래 통사적 구성인 '-암/엄 시-'에서 문법화가 되었다. 통사적 구성의 '-암 시-'에서 '아-'는 보조적 연결어미이고, 'ㅁ'은 보조사이며 '시-'는 보조 용언이 결합한 구성으로 '시다'는 국어의 '있다'에 대응한다.[34] 제주 방언에서 본래 통사적 구성인 '-암 시-'가 '-암시/엄시-'로 문법화가 되어 선어말어미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진행상에 관여하는 선어말어미의 의미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암시-'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로는 현평효(1974), 홍종림(1994), 문숙영(1998) 등이 있다. 우선 현평효(1974)는 서법으로 보는 입장으로 '-암시-'와 '-암-'을 구분하였는데, '-암시-'는 동작상 형태소로 '미완료존속상'의 의미로 보고, '-암-'은 '미완료상'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홍종림(1994)

34) '-암시/엄시-'를 분석하는 입장은 3가지로, 성낙수(1992)는 '-암시-'를 '-아'와 '-ㅁ-', '시-'로 분석하고 있고. 문숙영(1998)은 하나의 문법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창현(1998)은 통시적으로는 '-암시-'를 '-암'과 '시-'로 분석하지만 공시적으로는 '-암시-'를 분석하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실연상’의 의미로 설명하고, 문숙영(1998)은 ‘진행상, 상태 지속, 상태의 점진적 변화, 현재시제’로 기존의 논의에서 확대된 의미로 설명하였다.

(1) 선행 요소와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실현된 양상을 선행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살피겠다. 먼저, ‘-암시/엄시/염시/람시/암(ㅅ)/엄(ㅅ)/염(ㅅ)/람(ㅅ)-’과 어간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ㄱ 어느 때 가느냐면 이 새해 낭 혼 삼월둘에 갈암신가?(어느 때 가냐면 이 새해 나서 한 삼월에 갈고 있는가?) [태흥리]
ㄴ 건 이제 또 그사이 어떵 뒘신가?(그건 이제 또 그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구엄리]
ㄷ 무조건 소라엔 굴암주.(무조건 소라라고 말하고 있지.) [온평리]
ㄹ 그 요즘은 혼엇이 태풍이 아이 불엄주.(그 요즘은 한없이 태풍이 아니 불고 있지.) [송당리]

(62) ㄱ 어떵 경 고왐신고?(어떻게 그렇게 *곱고 있는고?/고운가?)
ㄴ 이제는 완전히 돈이 하난 귀 잡는 거 뜨남주게.(이제는 완전히 돈이 많으니깐 성게 잡는 거 *다르고 있지/다르지.) [대평리]

(63) ㄱ 요즘 어디서 건강식 그거 헴신고?(요즘 어디서 건강식 그거 하고 있는가?) [온평리]
ㄴ 지금도 문전 허는 사름들은 헴주게.(지금도 ‘문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지.) [송당리]

(64) ㄱ 어디 솔입 긁엉 오람신고?(어디서 솔잎 긁어서 오고 있는가?) [구엄리, 수정]
ㄴ 줄 올리젠 허민 막 빌어 오람주.(줄 올리려고 하면 마구 빌려 오고 있지.) [남원리]

(61)의 밑줄 친 부분은 ‘갈다, 뒈다(되다), 굴다(말하다), 불다’에 ‘-암시/엄시/암(ㅅ)/엄(ㅅ)-’가 결합하여, ‘갈암신가, 뒘신가, 굴암주, 불엄주’로 실현되고 있다. 먼저 어간이 동사인 경우로, (61ㄱ)은 타동사 ‘갈-’에 ‘-암시-’가 결합하였고, (61ㄴ)은 자동사 ‘뒈-’에 ‘-엄시-’가 결합한 구성이다. (61ㄷ)은 타동사 ‘굴-’에 ‘-암(ㅅ)-’가 연결되어, ‘굴암-’으로 실현되었다. (61ㄹ)은 자동사 ‘불-’에 ‘-엄(ㅅ)-’이 결합하였다. 다음은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로, (62ㄱ)은 형용사 ‘곱-’에 ‘-암시-’가 결합하였고, (62ㄴ)은 형용사 ‘뜨나-’에 ‘-암(ㅅ)-’이 결합하였다. 예문 (62)는 제주 방언에서 어간이 형용사에도 ‘-암시/엄시/암(ㅅ)/엄(ㅅ)-’이 결합이 가능함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성처럼 제주 방언에서 어간의 형태가 다양한 이유는 선어말어미 '-암시/엄시/암(ㅅ)/엄(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형용사에 결합됨으로써 '진행'의 의미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데, '과정', '상태 지속', '상태의 점진적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62ㄱ)은 얼굴이 고운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며, (62ㄴ)은 '이제'라는 부사어와 공기 관계에 놓이면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성게를 잡는 환경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 동사에 결합된 경우는 콤리(Comrie, 1976)가 본래 '진행'의 의미보다 훨씬 넓은 쓰임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태 동사들이 지시하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나 '상태의 점진적 변화'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구성은 진행이 확장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한다.[35]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진행의 선어말어미는 선행 요소의 품사에 관계없이 모두 결합하였다. 다만 '-암시/암(ㅅ)-'과 '-엄시/엄(ㅅ)-'은 선행하는 어간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63)의 밑줄 친 부분은 '허다(하다)'에 '-염시/염(ㅅ)-'이 결합해 '허염시-, 허염-'이 '헴신고, 헴주'로 축약하여 실현되었다. '-염시/염(ㅅ)-'은 '허다' 동사나 '-허다'를 접사로 하는 동사 어간 다음에 결합하는 것으로 '-암시/암(ㅅ)-'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64)의 밑줄 친 부분은 '오다'에 '-람시/람(ㅅ)-'이 결합해 '오람신고, 오람주'로 실현된다. '-람시/람(ㅅ)-'은 동사 '오다'나 '-오다'가 합성된 동사 어간 다음에 결합하는 것으로 '-암시/암(ㅅ)-'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논의를 종합하면, 제주 방언에서 진행의 선어말어미는 선행하는 어간에 따라 '-암시/암(ㅅ), 엄시/엄(ㅅ), 염시/염(ㅅ), 람시/람(ㅅ)-'가 결합하였다. 제주 방언에서는 진행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가 국어와 달리 선어말어미로 결합하고 있으며, 선행 요소에 따라 음운·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이형태가 결정된다.

(2) 후행 요소와의 관계

다음으로 제주 방언에서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실현된 양상을 후행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살피겠다. 제주 방언에서 진행의 선어말어미는 종결형 어미에 따라

35) 기존 논의에서 '-암시/엄시-'를 국어의 '-고 있-'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형용사의 어간에도 결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어의 '-고 있-'에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형태가 결정되는데, 먼저 '-암시/엄시/염시/람시-'와 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65) ㄱ 지금 놀암서.(지금 놀고 있어.) [도련동]
ㄴ 게난 이제 물 받아근엥 나록들 헤 먹엄서.(그러니까 이제 물 받아서 벼들 해 먹고 있어.) [신도리]
ㄷ 우리 매날 아침 강 올고 더끄곡 헴서.(우리 맨날 아침 가서 열고 덮고 하고 있어.) [선흘리]
ㄹ 게난 이제 말곧단 보난 다 추억이 나오람서.(그러니까 이제 말하다 보니깐 다 추억이 나오고 있어.) [구엄리, 수정]

(66) ㄱ 양짓머리 잘 알암신게.(양지머리 잘 알고 있네.) [고내리]
ㄴ 다 알앙 들엄신게.(다 알아서 듣고 있네.) [도련동]
ㄷ 경헌디 전인 이때 일요일덜 막 허는디, 올린 더원 안 헴신게.(그런데 전엔 이때 일요일들 마구 하는데, 올핸 더워서 안 하고 있네.) [신창리]
ㄹ 게난 얘기허니까 막 나오람신게.(그러니깐 이야기 하니깐 마구 나오고 있네.) [신도리, 수정]

(67) ㄱ 남밧도 일 년에 허민 이삼백은 삼시네.(나무밭도 일 년에 하면 이삼백은 사고 있어.) [삼달리]
ㄴ 안 먹엄시네.(안 먹고 있어.) [온평리]
ㄷ 오월 단오 허단 이젠 안 헴시네.(오월 단오 하다가 이젠 안 하고 있어.) [선흘리]

(68) ㄱ 이제 (과질) 안 풀암신가?(이제 (과질) 안 팔고 있는가?) [선흘리]
ㄴ 생선들도 너무 빨리 컴신가?(생선들도 너무 빨리 *크고 있는가?/큰가?) [성읍리, 수정]
ㄷ 한 삼천 명 가까이 살지 안헴신가?(한 삼천 명 가까이 살고 있지 않는가?) [옹포리]
ㄹ 게민 어디 물 탕 오람신가?(그러면 어디 말 타고 오고 있는가?) [태흥리, 수정]

(69) ㄱ 저 올레 나강 보라, 싸왐시냐?(저 '올레' 나가서 봐라, 싸우고 있냐?) [함덕리]
ㄴ 이젠 어디 식당에 강 떡허난 떡덜 먹엄시냐?(이젠 어디 식당에 가서 떡하니까 떡들 먹고 있냐?) [삼달리]
ㄷ 북심이 허는 사름, 안 허는 사름 천지만지주, 거 헴시냐?(짚동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천지만지지, 그거 하고 있냐?) [한동리]
ㄹ 막 번들번들번들 이제 저 무시거 헹 허민덜 검붉은 거 영화에덜 안 나오람시냐?(막 번들번들번들 이제 저 무시거 해서 하면들 검붉은 거 영화에들 안 나오고 있냐?) [삼달리, 수정]

(70) ㄱ 게믄 그 마당질도 가면은 가운디 세와 놓는 건 여서 어지럼시라.(그러면 그 마당질도 가면 가운데 세워 놓는 건 여기서 어지르고 있어라.) [송당리]
ㄴ 야이 저레 불이나 숩암시라.(야 저기에 불이나 때고 있어라.) [구엄리]
ㄷ 집 불케울 동안만 살암십서.(집 불태울 동안만 살고 계십시오.) [동광리]
ㄹ 먼저 감십서.(먼저 가고 있으세요.) [구엄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5)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어미 '-어' 앞에 결합한 경우로, '놀암서, 먹엄서, 헴서, 나오람서'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65ㄱ)은 자동사 '놀-'에 '-암시-'가 결합하고, (65ㄴ)은 타동사 '먹-'에 어미 '-엄시-'에 어미 '-어'가 실현되었다. (65ㄷ)은 동사 '허-'에 '-염시-'가 결합했고, (65ㄹ)은 동사 '나오-'에 '-람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어'가 결합한 구성이다. (66)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어미 '-ㄴ게' 앞에 결합한 경우로 '알암신게, 들엄신게, 헴신게, 나오람신게'로 실현되고 있다. (66ㄱ)은 동사 '알-'에 '-암시-'가 결합하고, (66ㄴ)은 동사 '듣-'에 '-엄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게'가 실현되었다. (66ㄷ)은 '허(하)-'에 '-염시-'가 결합하고, (66ㄹ)은 동사 '나오-'에 '-람시-'가 결연결된 다음 '-ㄴ게'가 결합하였다. (67)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어미 '-네'와 결합하여 '삼시네, 먹엄시네, 헴시네'로 실현되고 있다. (67ㄱ)은 타동사 '사-'에 '-암시-'가 결합되었고, (67ㄴ)은 타동사 '먹-'에 '-엄시-'에 결합하고 (67ㄷ)은 '허-'에 '-염시-'가 연결되고 어미 '-네'가 결합하였다. (68)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의문형 어미 '-ㄴ가(고)'에 결합한 경우로 '풀암신가, 컴신가, 헴신가, 오람신가'로 실현되고 있다. (68ㄱ)은 타동사 '풀(팔)-'에 '-암시-'가 결합하고 (68ㄴ)은 형용사 '크-'에 '-엄시-'가 연결되었고 (68ㄷ)은 '허(하)-'에 어미 '-염시-'가 결합된 다음 의문형 어미 '-ㄴ가'가 (68ㄹ)은 동사 '오-'에 '-람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가'가 결합한 구성이다. (69)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의문형 어미 '-냐' 앞에 결합된 경우로 '싸왐시냐, 먹엄시냐, 헴시냐, 나오람시냐'로 실현되고 있다. (69ㄱ)은 자동사 '싸오(싸우)-'에 '-암시-'가 결합하였고, (69ㄴ)은 타동사 '먹-'에 '-엄시-'가 결합하였다. (69ㄷ)은 '허(하)-'에 '-염시-'가 결합하고, (69ㄹ)은 동사 '나오-'에 '-람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냐'가 결합한 경우다. (70)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명령형 어미 '-라'와 청유형 어미 '-게'와 '-ㅂ서' 앞에 실현된 경우로 '어지럼시라, 숨암시라, 살암십서, 감십서'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70ㄱ)은 동사 '어지르-'에 '-엄시-'가 결합한 다음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경우로, '물건을 뒤섞이게 해라'라는 의미로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 (70ㄴ)은 동사 '숨(때)-'에 '-암시-'가 결합한 다음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경우로,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 (70ㄷ)은 자동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살-’에 ‘-암시-’가 결합한 다음 명령 ‘-ㅂ서’가 실현되어,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 (70ㄹ)은 자동사 ‘가-’에 ‘-암시-’가 결합한 다음 명령 ‘-ㅂ서’가 실현되어 현재의 행동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암(ㅅ)/엄(ㅅ)/염(ㅅ)/람(ㅅ)-’이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71) ㄱ 그거 다 몰람저.(그거 다 모르고 있어.) [구엄리]
ㄴ 나도 작년꺼지 심엉 이제 아이 심엄저.(나도 작년까지 심고 이제 안 심고 있어.) [신창리]
ㄷ 올레에 강 헤도 깨끗헌 듸 강 놧당 치와불곡 경헴저게.(‘올레’에 가서 해도 깨끗한데 가서 놨다가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 [선흘리]
ㄹ 저 물장시 오람저.(저 물장수 오고 있어.) [태흥리, 수정]

(72) ㄱ 경 어무니네 허난 나가 잘 알암주.(그렇게 어머니네 하니깐 내가 잘 알고 있지.) [신창리]
ㄴ 절간엔 뎅기단 나이가 드난 요샌 안 뎅겸주.(절간엔 다니다가 나이가 드니까 요샌 안 다니고 있지.) [남원리]
ㄷ 건 이제사 시작헴주.(건 이제야 시작하고 있지.) [옹포리]
ㄹ 전복은 빗창으로 떼곡, 구젱긴 손으로 잡앙 망시리에 담앙 올려오람주.(전복은 ‘빗창’으로 떼고, 소라는 손으로 잡아서 망사리에 담아서 올려오고 있지.) [대평리]

(73) ㄱ 지들커들은 다 알암구나.(땔감들은 다 알고 있구나.) [송당리]
ㄴ 궤기 반찬 출레ᄒᆞ연 먹엄구나.(고기 반찬 ‘출레’해서 먹고 있구나.) [동광리]
ㄷ 아이고, 이젠 가젠 헴구나.(아이고, 이젠 가려고 하고 있구나.) [옹포리]
ㄹ 게도 가끔 오람구나예.(그래도 가끔 오고 있군요.) [고내리, 조사자]

(74) ㄱ 경허니까 나가 부에 나 가지고 아까 밥 먹으멍 뭐엔 헌 중 알암다?(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까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고 있어?) [선흘리]
ㄴ 느 나말 많이 베왐다?(너 내말 많이 배우고 있어?) [신촌리]
ㄷ 느 연애헴다?(너 연애하고 있어?) [온평리]
ㄹ 요새 사름덜은 천리허는 거 어룹게 허는 중은 알암댜?(요새 사람들은 면례하는 거 어렵게 하는 줄은 알고 있어?) [삼달리]

(71)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어미 ‘-저’ 앞에 결합한 경우로, ‘몰람저[몰람쩌], 심엄저[시멈쩌], 헴저[헴쩌], 오람저[오람쩌]’로 실현되고 있다.[36] (71ㄱ)은 타동사 ‘모르-’에 ‘-암ㅅ-’이 결합하고, (71ㄴ)은 타동사 ‘심-’에 ‘-

36) 이러한 이유로 학자마다 ‘-암시/엄시/염시/람시-’의 표기를 ‘-앐/없/엾/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ㅄ/이 통용되는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앐-’으로 표기하지 않고 ‘-암(ㅅ)/엄(ㅅ)/염(ㅅ)/람(ㅅ)-’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는 대표형인 ‘-암시/엄시/염시/람시-’와 의미가 다르지 않지만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경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함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엄ㅅ-' 다음 어미 '-저'가 결합하였다. (71ㄷ)은 '허-'에 '-염ㅅ-'이 결합하였으며, (71ㄹ)은 동사 '오-'에 '-람ㅅ-'이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저'가 결합한 구성이다. (72)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어미 '-주' 앞에 결합한 경우로, '알암주[아람쭈], 먹엄주[머검쭈], 시작헴주[시자켐쭈], 올려오람주[올려오람쭈]'와 같이 실현있다. (72ㄱ)은 타동사 '알-'에 '-암(ㅅ)-'이 결합하고 (72ㄴ)은 타동사 '먹-'에 '-엄(ㅅ)-'이 결합한 다음 어미 '-주'가 결합한 구성이다. (72ㄷ)은 '허-'에 '-염(ㅅ)-'이 결합하였고, (72ㄹ)은 동사 '올려오-'에 '-람(ㅅ)-'이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주'가 결합한 구성이다. (73)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감탄형 어미 '-구나' 앞에 결합한 경우로, '알암구나[아람꾸나], 먹엄구나[머검꾸나], 헴구나[헴꾸나], 오람구나[오람꾸나]'로 실현된다. (73ㄱ)은 타동사 '알-'에 '-암ㅅ-'이 결합하고 (73ㄴ)은 '먹-'에 '-엄-'이 결합한 다음 어미 '-구나'가 결합된 구성이다. (73ㄷ)은 '허-'에 '-염-'이, (73ㄹ)은 '오-'에 '-람-'이 결합한 다음 어미 '-구나'가 실현된 구성이다. (74)의 밑줄 친 부분은 진행상의 선어말어미 다음에 의문형 어미 '-다'와 '-디야'가 결합한 경우로, '알암다[아람다], 연애헴다[연애헴다], 베왐다[베왐다], 알암댜[알암댜]'와 같이 실현하고 있다. (74ㄱ)은 타동사 '알-'에 '-암-'이 결합하였고, (74ㄴ)은 타동사 '베오(배우)-'에 '-암-'이 결합하고, (74ㄷ)은 자동사 '연애허(연애하)-'에 '-염-'이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다'가 결합한 경우다. (74ㄹ)은 타동사 '알-'에 '-암-'이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디아(>댜)'가 결합한 경우다. 평서형 어미가 결합한 예문 (71)과 (72), (73)은 후행하는 어미에 경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의문형 어미가 결합한 예문 (74)는 후행하는 어미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3) 선어말어미의 겹침

제주 방언에서는 진행상의 선어말어미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순서와 같이 결합하는데, 주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회상의 '-아/어-', 미래시제 '-크-'가 선행하여 결합하고, 높임의 '-우-' 앞에서도 실현이 된다. 이는 국어의 '-고 있-', '-고 있더-', '-고 있겠-', '-고 있습니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주 방언에서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5) ㄱ 배 들어왐나?(배 들어오고 있어?) [함덕리]
ㄴ 수도에서 빨래허고 수도 먹고 허난 무신 바당물 먹엄나?(수도에서 빨래하고 수도 먹고 하니간 무슨 바당물 먹고 있어?) [신촌리]
ㄷ 암창개 가젠 헴나?('암창개' 가려고 하고 있어?) [남원리]

(76) ㄱ 독다림 쳥 저디 돌암서라.(중대님 매서 저기 달리고 있더라.) [함덕리]
ㄴ 이제 그레덜 집덜 다 짓엄서라.(이제 그리들 집들 다 짓고 있더라.) [월령리]
ㄷ 우리 일본에서 온 후에 보난 공출헴선게.(우리 일본에서 온 후에 보니까 공출하고 있더라.) [고내리]
ㄹ 바당에 멜이 들어오람서라.(바다에 멜이 들어오고 있더라.) [보목리]

(77) ㄱ 여기도 뜬땅이라부난 보리밧 불람시크라.(여기도 '뜬땅'이라버리니깐 보리밭 밟고 있겠어.)
ㄴ 아기 아방은 조코고리 놘 쉐 둥그렴시크라.(아기 아버지는 조이삭 놔서 소 굴리고 있겠어.) [구엄리]
ㄷ 자치기도 많이 헴시크라.(자치기도 많이 하고 있겠어.)

(75), (76), (77)의 예문은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경우로, '들어왐나, 먹엄나, 헴나, 돌암서라, 짓엄서라, 공출헴선게, 들어오람서라, 불람시크라, 둥그렴시크라, 헴시크라'로 실현되고 있다. (75)는 진행의 선어말어미 '-암-' 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다음 반말체 어미 '-어'가 결합되었다. (75ㄱ)은 동사 '들어오-'에 '-암나'가 결합하였고, (75ㄴ)은 동사 '먹-'에 '-엄나'가 결합하였고, (75ㄷ)은 '허(하)-'에 '-염나'가 결합하였다. 예문 (75)와 같이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나' 앞에 선행할 때, '-암/엄/염-'이 선택되어 '-암나, 엄나, 염나'로 실현되어,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 (76)는 선어말어미 '-암시-' 뒤에 회상 선어말어미 '-어-'가 결합한 경우로, (76ㄱ)은 동사 '돌(달리)-'에 '-암서-'가 결합하고 (76ㄴ)은 동사 '짓-'에 '-엄서-'가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라'가 결합하였다. (76ㄷ)은 동사 '공출허-'에 '-염서-'가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ㄴ게'가 결합하였다. (76ㄹ)은 동사 '오-'에 '-람서-'가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라'가 결합하였다. 예문 (76)과 같이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회상의 선어말어미 '-어-' 앞에 선행할 때, '-암시/엄시/염시/람시-'가 선택되어 '-암서, 엄서, 염서, 람서-'로 실현된다.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회상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면 '과거 진행'의 의미를 갖는데, 과거 시점을 회상하고 있다. (77)은 선어말어미 '-암시-' 뒤에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가 결합한 경우로, (77ㄱ)은 동사 '불르(밟)-'에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암시크-’가 결합하였고, (77ㄴ)은 동사 ‘둥그리-’에 ‘-엄시크-’가 결합하고, (77ㄷ)은 동사 ‘허(하)-’에 ‘-염시크-’가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라’가 연결되었다. 예문 (77)과 같이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미래시제의 선어말어미 ‘-크-’ 앞에 선행할 때, ‘-암시크/엄시크/염시크-’로 실현된다. 이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78) ㄱ 낼 시험 보는 날이난 감수다.(내일 시험 보는 날이니까 가고 있습니다.) [태흥리]
ㄴ 시방 여기 젊은 세대들은양, 더덕만 갈아도 돈 엄청 많이 벌엄수다.(시방 여기 젊은 세대들은요, 더덕만 갈아도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선흘리]
ㄷ 족아도 그추룩 헴수다양.(작아도 그처럼 하고 있습니다.) [구엄리]
ㄹ 무수 이제 갈 때 돌아오람수다.(무 이제 갈 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평리, 수정]

(79) ㄱ 이제 사름덜은 신구가 촞암수과?(이제 사람들은 신구간 찾고 있습니까?) [대평리]
ㄴ 메누리덜 고랑착덜 썸수과게?(며느리들 채롱짝들 쓰고 있습니까?) [대평리]
ㄷ 그거 뭐로 헴수과?(그거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3 송당리]

(78)과 (79)의 예문은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높임의 선어말어미 ‘-우-’와 결합한 경우로, ‘감수다, 벌엄수다, 헴수다, 돌아오람수다, 촞암수과, 썸수과, 헴수과’로 실현되고 있다. 먼저 평서형 어미 ‘-다’ 앞에 실현된 경우로, (78ㄱ)은 동사 ‘가-’에 ‘-암시-’가 결합한 다음 ‘-우-’가 결합하고 (78ㄴ)은 동사 ‘벌-’에 ‘-엄시-’가 결합하였고, (78ㄷ)은 동사 ‘허(하)-’에 ‘-염시-’가 결합한 다음 ‘-우-’가 결합하였고 (78ㄹ)은 동사 ‘돌아오-’에 ‘-람시-’가 결합한 다음 ‘-우-’가 연결된 다음 어미 ‘-다’가 결합한 구성이다. 다음은 의문형 어미 ‘-과’ 앞에 실현된 경우로, (79ㄱ)은 동사 ‘촞(찾)-’에 ‘-암시-’가 결합한 다음 ‘-우-’가 결합하고 (79ㄴ)은 동사 ‘쓰-’에 ‘-엄시-’가 연결되고 ‘-우-’가 결합하였고 (79ㄷ)은 동사 ‘허(하)-’에 ‘-염시-’가 연결되고 ‘-우-’가 결합한 다음 어미 ‘-과’가 실현되었다. 예문 (78)과 (79)를 보았을 때,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우-’ 앞에서 ‘-암시/엄시/염시/람시-’를 선택하여 ‘-암수/엄수/염수/람수-’로 실현된다.

제주 방언에서 진행상의 선어말어미의 실현 환경을 보면 국어와 달리 ‘-암시/엄시/염시/람시/암(ㅅ)/엄(ㅅ)/염(ㅅ)/람(ㅅ)-’와 같이 여러 변이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선어말어미의 형태적 차이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에 따라 다르다.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진행상의 실현 환경은 다음 <표 13>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3>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진행상의 실현 환경

구분	어간	선어말어미	종결 어미
제주 방언	▪ 동사/형용사	-암시/엄시-	▪ -어, -ㄴ게, -네 ▪ -ㄴ가(고), -냐, -니 ▪ -라, -게
	▪ 허다	-염시-	
	▪ 오다/이다/아니다	-람시-	
	▪ 동사/형용사	-암(ㅅ)/엄(ㅅ)-	▪ -저, 주, -구나 ▪ -다(의문), -디야(의문)
	▪ 허다	-염(ㅅ)-	
	▪ 오다/이다/아니다	-람(ㅅ)-	

2) 완료상

완료상은 동작이나 상태가 끝났거나 끝나서 그 결과가 남아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에 기대어 표현된다. '-아나시/어나시-'는 국어의 '-았었/었었-'에 대응한다. 제주 방언에서 대표형인 '-아나시/어나시-'는 본래 통사적인 구성인 보조용언 '-아나-'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가 결합한 구성으로 점차 상 선어말어미로의 문법화가 되었다. 통사적 구성의 '-아나/어나-'는 '완료, 종결, 과거 경험'의 의미 기능을 가지며, '-아시/어시-'는 '과거'의 의미가 결합되어 '-아나시/어나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완전히 끝난 '완료'나 '결과'를 의미한다. 이 결합한 '-아나-'와 '-아시-'가 의 의미는 기존 연구 문숙영(1998)에서는 '-어 나시-'와 '-어 나 시-'를 구분하여 의미를 살폈는데, '-어 나시-'는 '대과거'를 의미하며, '-어 나 시-'는 '종결 결과'나 '종결 완료'로 설명한다.

(1) 선행 요소와의 관계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이 실현된 양상을 선행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살펴보겠다. 먼저, 완료상 선어말어미와 어간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0) ㄱ 횃바리, 그거 헤근에 헤영 그 ᄀᆞ메기 밤의 강 ᄀᆞ메기 하영 잡아나서.('횃바리', 그거 해서 해서 그 개울타리고둥 밤에 가서 개울타리고둥 많이 잡았었어.) [표선리]
ㄴ 패밥 그거 패밥은 벨미로 우린 산 먹어나서.(패밥 그거 패밥은 별미로 우린 사서 먹었었어.) [함덕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ㄷ 아, 여기 밤 ᄀᆞ메기 잡아낫주.(아, 여기 밤(에) 개울타리고둥 잡았었지.) [남원리]

ㄹ 그거 줄게 헹 넣어가지고 죽이영 ᄀᆞ치 먹는다고 그거 옛날에 하영 먹어낫주게.(그거 잘게 해서 넣어가지고 죽이랑 같이 먹는다고 그거 옛날에 많이 먹었었지.) [고산리]

(81) ㄱ 엿날부텀 그건 좀 어려와나서.(옛날부터 그건 좀 어려웠었어.) [고내리]

ㄴ 고팡이라고 이런 디 이런 쏠 항아리 놓는 고팡 셔나서게. (고방이라고 이런 데 이런 쌀 항아리 놓는 고방 있었었어.) [고내리]

ㄷ 옛날엔 단추도 어려와낫주.(옛날에는 단추도 어려웠었지.) [표선리]

ㄹ 여기도 굴겡이 허는 디가 셔낫주.(여기도 호미 하는 데가 있었었지.) [한동리]

(82) ㄱ 우리도 막 큰 집 허연 영 안팟거리허고 밧도 잇곡 헤나서.(우리도 아주 큰 집 해서 이렇게 안팎채하고 밭도 있고 했었어.) [태흥리]

ㄴ 감저 저 생채 풀민 전분ᄀᆞ루 나가멍 밋밋 나왕 통에 받앙 도새기 사당 멕이곡 헤낫주게.(고구마 저 생짜 팔면 전분가루 나가면서 '밋밋' 나와서 통에 받아서 돼지 사다가 먹이고 했었지.) [신창리]

(83) ㄱ 막 육지 가근에 처 풀앙 오라나서.(막 육지 가서 쳐 팔아서 왔었어.) [한동리]

ㄴ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하르바지가 아니라나서.(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대평리, 수정]

ㄷ 통물 오란 감산이서 통물 질레 오라낫주.('통물' 와서 감산리에서 '통물' 기르러 왔었지.) [대평리]

ㄹ 물방에 져당 놔둠서 (일이) 보통이 아니라낫주게.(연자매 지어다가 놔두면서 (일이) 보통이 아니었었지.) [고내리]

(80), (81), (82), (83)의 밑줄 친 부분은 '잡다, 먹다, 어렵다, 시다(있다), 허다, 오다, 명사+-이다, 아니다' 뒤에 완료상의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여 '잡아나서/잡아낫주, 먹어나서/먹어낫주, 어려워나서/어려와낫주, 셔나서/셔낫주, 헤나서/헷주, 오라나서/오라낫주, 아니라나수다/아니라낫주'로 실현되고 있다. (80)은 어간이 동사인 예로, (80ㄱ)은 타동사 '잡-'에 '-아나시-'가 결합하였고, (80ㄴ)은 타동사 '먹-'에 '-어나시-'가 결합하였다. (80ㄷ)은 타동사 '잡-'에 '-아낫-'이 결합하였고, (80ㄹ)은 타동사 '먹-'에 '-어낫-'이 결합하였다. (81)의 밑줄 친 부분은 어간이 형용사인 예로, (81ㄱ)은 형용사 '어렵-'에 '-어나시-'가 결합하였고, (81ㄴ)은 형용사 '시-'에 '-어낫-'이 결합하였다. (81ㄷ)은 어간 '어렵-'에 '-어낫-'이 결합하고, (9ㄹ)은 '시-' 뒤에 '-어낫-'이 결합하였다. 제주 방언에서는 국어와 달리 완료상이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도 결합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국어에서 완료상을 나타내는 통사적 구성 '-어 있다'나 '-어 버리다'가 어간이 형용사일 때, '*어려워 있다, *있어 버리다'처럼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와 반대로 제주 방언에서는 완료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선어말어미가 용언의 품사에 제약이 없이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아나시/아낫-'과 '-어나시/어낫-'은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82)는 어간이 '허다'나 '-허다' 접사로 한 경우로 '-여나시/여낫-'은 '-아나시/어낫-'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82ㄱ)는 '허-'에 '-여나시-'가 결합한 '-허여나시-'가 '헤나시-'로 축약되어 실현한다. (82ㄴ)은 '허-'에 '-어낫-'이 결합한 '허여낫-'이 축약되어 '헤낫주'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83)의 밑줄 친 부분은 선어말어미 '-라나시/라낫-'이 실현된 경우로, '-라나시/라낫-'은 '-아나시/아낫-'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83ㄱ)과 (83ㄷ)은 어간이 '오다'가 어간일 때 결합하였고, (83ㄴ)과 (83ㄹ)은 '아니다'가 어간인 경우로 '-라나시/라낫-'이 결합한 구성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의 선어말어미는 선행 요소인 (80) 동사, 형용사, 허다, 오다, '명사+-이다', '아니다'를 어간으로 하여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이 결합하여 '완료, 종결'의 의미를 표현한다. 제주 방언에서는 상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가 국어와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고 이들은 음운론적·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이형태를 갖는다.

(2) 후행 요소와의 관계

다음으로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이 실현된 양상을 후행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살펴보겠다.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은 종결형 어미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데, 먼저 선어말어미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가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4) ㄱ 아이고, 맛 좋아나서.(아이고, 맛 좋았었어.) [웅포리]
ㄴ 아, 그거 역시 그냥 이 초신으로 그냥 신어나서.(아, 그거 역시 그냥 이 짚신으로 그냥 신었었어.) [도련동]
ㄷ 감태 헹은에 감태도 ᄌᆞ물앙덜 풀곡 막 헤나서.(감태 해서 감태도 캐서들 팔고 마구 했었어.) [표선리]
ㄹ 응원대 허멍 군인덜이 이디 민짝 오라나서.(응원대 하면서 군인들이 여기 모두 왔었어.) [태흥리]
ㅁ 공동으로 이 앞드레 문딱 톨밧이라나서.(공동으로 이 앞엔 모두 톳밭이었었어.) [태흥리]

(85) ㄱ 요거 저 요거 톡 나나신게.(요거 저 요거 '톡' 났었네.) [남원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 응, 엿날 상뒤, 상뒤 들어나신게.(응, 옛날 '상뒤', '상뒤' 들었었네.) [태흥리]
ㄷ 건데 소에 ᄒᆞ는 가린석 아니 헤신게.(그런데 소에 하는 고삐 안 했었네.) [송당리]
ㄹ 영 큰 수박 사오라나신게.(이렇게 큰 수박 사왔었네.) [동광리]

(86) ㄱ 여기는 한식을 제사로 그때 멩질을 지내나시네.(여기는 한식을 제사로 그때 명절을 지냈었어.) [한동리]
ㄴ 우리집이 아방 웨가인디 중매헷단 막 새각시 어멍신디 궨당이난 욕을, 욕들어나시네.(우리집의 아버지 외가인데 중매했다가 마구 새색시 어머니한테 권당이니까 욕을, 욕들었었어.) [삼달리]
ㄷ 경헨 겨울엔 경헤 가지고서 단지에 담앙 놧당 떡도 허민 그것에 부병 먹고 경헤나시네.(그렇게 겨울엔 그래 가지고서 단지에 담아서 놨다가 떡도 하면 그것에 비벼서 먹고 그랬었어.) [한동리]
ㄹ 가인 집이 오라나시네.(그 아이는 집에 왔었어.)

(87) ㄱ 대구덕들 봐나신가?('대구덕'들 봤었는가?) [송당리]
ㄴ 피는 어린 때나 먹어나신가?(피는 어릴 때나 먹었었는가?) [구엄리]
ㄷ 낚시 강 어떤 것덜 나까오라나신고?(낚시 가서 어떤 것들 낚아왔었는가?)

(88) ㄱ 옛날 보리낭 망텡이에 담앙 아기 해산허민, 어디 무신 산부인과 가나시냐?(옛날 보릿짚 망태기에 담아서 아기 해산하면, 어디 무슨 산부인과 갔었냐?) [신창리]
ㄴ 하르방덜이나 모ᄌᆞ 씨주, 여ᄌᆞ덜은 무신 경 모자 경 써나시냐?(할아버지들이나 모자 쓰지, 여자들은 무슨 그렇게 모자 그렇게 썼었니?) [선흘리]
ㄷ 옛날에 화북 오죽 헐헤나시냐?(옛날에 화북 오죽 헐했었니?) [삼달리]

(89) ㄱ 느 몬녀 밥 먹어나시라.(너 먼저 *먹었었라/*먹어 있었라.)
ㄴ 느 나광 밥 먹어나시게.(너 나랑 밥 *먹었었게/*먹어 있었게.)

(84)의 밑줄 친 부분은 완료상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반말체 어미 '-어' 앞에 결합한 경우로, '좋아나서, 신어나서, 헤나서, 오라나서, 톨밧이라나서'로 실현되고 있다. (84ㄱ)은 형용사 '좋-'에 '-아나시-'가 결합하였고, (84ㄴ)은 동사 '신-'에 '-어나시-'가 결합하였다. (84ㄷ)은 '허-'에 '-여나시-'가 결합하고, '헤나시-'로 실현되었다. (84ㄹ)은 동사 '오-'에 '-라나시-'가 결합하였고, (84ㅁ)은 '톨(톳)-이다'형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어'가 결합된 구성이다. (85)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ㄴ게' 앞에서도 실현된 경우로, '나나신게, 들어나신게, 헤신게, 들어오라나신게'로 실현되고 있다. (85ㄱ)은 자동사 '나-'에 '-아나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게'가 결합하였다. (85ㄴ)은 타동사 '듣-'에 어미 '-어나시-'가 결합하였다. (85ㄷ)은 '허-'에 '-여나시-'가 결합한 '헤나시-'가 축약되어 실현하였다. (85ㄹ)은 동사 '사오-'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게'가 결합한 구성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86)의 밑줄 친 부분은 평서형 어미 '-네' 앞에서도 실현된 경우로, '지내나시네, 욕들어나시네, 경헤나시네'로 실현된다. (86ㄱ)은 동사 '지내-'에 '-아나시-'가 결합하였고, (86ㄴ)은 동사 '욕듣-'에 '-어나시-'가 결합한 구성이다. (86ㄷ)은 형용사 '경허-'에 '-여나시-'가 결합하였고, (86ㄹ)은 동사 '오-'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네'가 결합한 구성이다. (87)의 밑줄 친 부분은 의문형 어미 '-ㄴ가(고)' 앞에서 실현된 경우로, '봐나신가, 먹어나신가, 나까오라나신가, 노래라나신가'로 실현된다. (87ㄱ)은 타동사 '보-'에 '-아나시-'가 결합하였고, (87ㄴ)은 타동사 '먹-'에 '-어나시-'가 결합하였다. (87ㄷ)은 타동사 '나까오-'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ㄴ가'가 결합한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88)의 밑줄 친 부분은 의문형 어미 '-냐' 앞에서도 실현된 경우로, '가나시냐, 써나시냐, 헐헤나시냐'로 실현되고 있다. (88ㄱ)은 동사 '가-'에 '-아나시-'가 결합하였고, (88ㄴ)은 동사 '쓰-'에 '-어나시-'가 결합하였으며, (88ㄷ)은 형용사 '헐허-'에 '-여나시-'가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냐'가 실현된 구성이다. (89)는 명령형 어미 '-라'와 청유형 어미 '-게' 앞에 실현된 경우로, '먹어나시라, 먹어나시게'도 실현되고 있다.

다음으로 완료상 선어말어미 '-아낫/어낫/여낫/라낫-'이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0) ㄱ 장에 가민 또 숫 많이 폴아낫저.(장에 가면 또 숯 많이 팔았었어.) [한동리]
ㄴ 옛날엔 이디 마고자가 무신거가 엇어낫저.(옛날엔 여기 마고자가 무슨 것이 없었었어.) [태흥리]
ㄷ 메역 폴아근에 그 신도 상 신고 경헤낫저.(미역 팔아서 그 신발도 사서 신고 그렇게 했었어.) [태흥리]
ㄹ 게난 술 먹어져도 나신디만 오라낫저.(그러니깐 술 먹어도 나에게만 왔었어.) [송당리]
ㅁ 응, 농ᄉᆞ 지고 우리 하르바님은 한문 선생이라낫저.(응, 농사 짓고 우리 할아버님은 한문 선생님이었었어.) [선흘리]

(91) ㄱ 응, 옛날엔 좋아낫주게.(응 옛날엔 좋았었지.) [선흘리]
ㄴ 함덕 살 때들 멘들어낫주.(함덕 살 때들 만들었었지.) [함덕리]
ㄷ 거난 옛날은 둑 굶는 칠팔월 경헤낫주게.(그러니깐 옛날은 닭 굶는 칠팔월 그렇게했었지, 옛날은.) [송당리]
ㄹ 옛날은 콩 갈민 다 지름콩이라낫주게.(옛날은 콩 갈면 다 기름콩이었었지.) [삼달리]

(90)의 밑줄 친 부분은 완료상 선어말어미가 평서형 어미 '-저' 앞에 결합한 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로, ‘풀아낫저, 엇어낫저, 경헤낫저, 오라낫저, 선생이라낫저’로 실현되고 있다. 먼저 평서형 어미 ‘-저’ 앞에 실현된 경우로, (90ㄱ)은 동사 ‘풀(팔)-’에 어미 ‘-아낫-’이 결합하였고, (90ㄴ)은 동사 ‘엇(없)-’에 ‘-어낫-’이 연결하였다. (90ㄷ)은 ‘경허(그렇게 하)-’에 ‘-여낫-’이 결합되었고, (90ㄹ)은 동사 ‘오-’에 ‘-라낫-’이 결합되었다. (90ㅁ)은 ‘선생+-이다’형에 ‘-라낫-’이 결합한 다음 어미 ‘-저’가 결합한 구성이다. 다음은 평서형 어미 ‘-주’ 앞에 실현된 경우로, (91ㄱ)은 형용사 ‘좋-’에 ‘-아낫-’이 결합하였고, (91ㄴ)은 동사 ‘멘들(만들)-’에 ‘-어낫-’이 결합하였다. (91ㄷ)은 ‘허(하)-’에 ‘-여낫-’이 결합되었고, (91ㄹ) 동사 ‘나오-’와 (91ㅁ) ‘지름콩(기름콩)-이다’형에 ‘-라낫-’이 결합한 다음 어미 ‘-주’가 결합한 경우다.

(3) 선어말어미의 겹침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은 하나의 어간에 여러 선어말어미가 연속하여 결합할 수 있다. 완료상은 다음의 순서와 같이 결합하는데, 주로 높임의 ‘-우-’, 회상의 ‘-어-’, 미래의 ‘-크-’가 완료상 선어말어미 다음에 결합한다. 이는 국어에서 ‘-었었습니다, -었었더라, -었었겠다’에 대응할 수 있고, 각각 ‘완료 높임’, ‘완료 회상’, ‘완료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92) ㄱ 우리 시어멍은 순다리 해도 둘곡, 누룩도 잘 멘들아나수다.(우리 시어머니는 ‘순다리’ 해도 달고, 누룩도 잘 만들었었습니다.) [대평리]
ㄴ 우리 친정집의가 나무가 많이 잇어나수다.(우리 친정집에 나무가 많이 있었었습니다.) [표선리]
ㄷ 나도 (자치기) 헤나수다.(나도 자치기 했었습니다.) [대평리]
ㄹ 그거 끼창 오젠 그거 박박박 정 오라수다.(그거 끊어서 오려고 그거 박박박 져서 왔었습니다.) [대평리]

(93) ㄱ 족대도 그 독진 족대 족아나수과?(이대도 그 굵은 이대 작았었습니까?) [대평리]
ㄴ 둑 헤단 먹언, 어떵 헨 좋아나수과?(닭 해다가 먹어서, 어떻게 좋았었습니까?) [세화리]
ㄷ (돈)벌 걸로 헤나수과?((돈)벌 걸로 했었습니까?) [함덕리]

(94) ㄱ 우린 청대콩, 노랑헌콩 숣아나서라.(우린 청대콩, 노란콩 삶았었더라.) [구엄리, 수정]
ㄴ 막 그때덜은 돈 벌어나서라.(막 그때들은 돈 벌었었더라.) [신창리]
ㄷ 경헌디 소뭇 옛날은 또 더 심헤나서라.(그런데 사뭇 옛날은 또 더 심했었더라.) [선흘리]

(95) ㄱ 할머니 젊었을 때 잘도 고와나시크라마씨.(할머니 젊었을 때 아주 고왔었겠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흘리, 조사자]

완료상의 선어말어미가 높임의 선어말어미 '-우-' 앞에 실현된 경우로, 예문 (92)는 '멘들아나수다, 잇어나수다, 헤나수다, 오라수다'로 실현되었고, 예문 (93)은 '족아나수과, 좋아나수과, 헤나수과'로 나타났다. (92)와 (93)의 완료상 선어말어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우-' 앞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가 결합하였다. 예문 (94)는 완료상의 선어말어미가 회상의 선어말어미 '-어-' 앞에 실현된 경우로, '숣아나서라, 벌어나서라, 심혜나서라'로 실현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의 선어말어미가 '-아/어-'가 결합할 때,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나 상태가 현재에 완전히 끝나 일어나지 않는 '단절'의 의미를 갖는다. 예문 (94)의 완료상 선어말어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가 결합하였다. (95)는 완료상의 선어말어미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 앞에 실현된 경우로, '고와나시크라'로 나타나고 있다. 예문 (95)는 형용사 '곱-'에 '-아나시-'가 결합한 다음 '-크-'가 결합한 구성으로, 화자가 지각한 사실이나 사건의 결과를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완료상의 실현 환경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완료상의 실현 환경

구분	어간	선어말어미	종결 어미
제주 방언	▪ 동사/형용사	-아나시/어나시-	▪ -어, -ㄴ게, -네 ▪ -ㄴ가(고), -냐, -니 ▪ -라, -게
	▪ 허다	-여나시-	
	▪ 오다/이다/아니다	-라나시-	
	▪ 동사/형용사	-아낫/어낫-	▪ -저, 주
	▪ 허다	-여낫-	
	▪ 오다/이다/아니다	-라낫-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Ⅳ에서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을 살펴보겠다.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특성은 시제와 상을 중심으로 국어와 비교하여 제주 방언의 문법적 특징을 보겠다.

우선 제주 방언은 국어와 달리 시제와 상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의 형태적 차이로, 문법적 특징도 갖는다.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결합에 따라 표지가 교체하여 생기는 문법적 특징을 볼 것이다.

다음은 제주 방언 교육의 활용 방안을 볼 것이다. 제주 방언은 국어를 이루는 언어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국어와 제주 방언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겠다.

1.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특성

1.1. 시제의 특성

1) 과거시제

국어에서 과거시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았/었/였-', '-았었/었었-', 그리고 '-더-'에 의해 표현된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는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과 회상의 '-더/아/어/여/라-'가 있다. 국어와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비교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국어와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비교

구분	국어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았/었/엿- -았었/었었-	-아시/어시/여시/라시- -앗/엇/엿/랏-
	-더-	-더/아/어/여/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선, 국어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96) ㄱ 집에 *갔어라. ⇒ 가-+-았-+-어라
ㄴ 밥 *먹었어라. ⇒ 먹-+-었-+-어라
ㄷ 너 *공부했어라. ⇒ 공부하-+-였-+-어라
ㄹ 우리 함께 집에 *살았자. ⇒ 살-+-았-+-자
ㅁ 우리 같이 *걸었자. ⇒ 걷(>걸)-+-었-+-자
ㅂ 우리 같이 *운동했자. ⇒ 운동하-+-였-+-자

예문 (96ㄱ)은 동사 '가-'에 선어말어미 '-았-'이 결합하고 다음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고, (96ㄴ)은 동사 '먹-'에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하고 다음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고, (96ㄷ)은 '공부하-'에 선어말어미 '-였-'이 결합하고 다음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여 '*갔어라, *먹었어라, *공부했어라'와 같이 국어에서 모두 올바른 문장이 아님을 보인 예이다. (96ㄹ)은 동사 '살-'에 '-았-'이 결합한 다음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한 것이고, (96ㅁ)은 동사 '걷-'에 '-었-'이 결합하였고, (96ㅂ)은 동사 '운동하-'에 '-였-'이 결합한 다음 모두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하여 '살았자, 걸었자, 운동했자'처럼 국어에서 비문을 보인 예이다. 예문 (96)과 같이 국어에서 시제 선어말어미가 통사적 제약을 갖는 이유는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가 행동수행성의 특성을 갖는 종결어미이기 때문이다. 권재일(2013)은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결합된 문장은 행동의 수행 과정을 진술하므로 현재시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국어에서 앞서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나타난 '*갔어라, 먹었어라, 공부했어라, 갔자, *먹었자, 공부했자'와 같이 실현되지 않는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에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제주 방언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97) ㄱ 느 몬저 먹어시라.(너 먼저 *먹었어라/먹어라.)
ㄴ 겨난 이번만 먹어십서.(그러니깐 이번만 *드셨습시오./드십시오.) [2 선흘리]
ㄷ 삼춘 칼 ᄀᆞ저당 빌려십서.(삼촌 칼 가져다가 *빌렸습시오./빌리십시오.) [17 대평리]
ㄹ 우리 몬저 먹어시게.(우리 먼저 *먹었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문 (97ㄱ)은 동사 '먹-'에 선어말어미 '-어시-'가 결합하여 '먹어시라'로 실현된 문장이다. (97ㄴ)은 동사 '먹-'에, (97ㄷ)은 동사 '빌리-'에 선어말어미 '-어시-'가 결합한 다음 '-ㅂ서'가 결합한 경우로 '먹어시라, 먹어십서, 빌려십서' 등과 같이 실현된다. (97ㄹ)은 동사 '먹-'에 선어말어미 '-어시-'가 결합한 다음 청유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경우로 '먹어시게'와 같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제주 방언에서 국어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앞에서 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는 본래 통사적 구성인 '-아/어 시-'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선어말어미로, '-아시/어시-'에 '상태'나 '결과 지속'의 의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국어와 달리 시제의 제약이 없다. '상태'나 '결과 지속'의 의미는 '상'의 의미로 상은 상황의 특정시를 지시하지 않아,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에 자연스럽게 결합이 가능하다.[37] 이러한 명령형과 청유형의 결합을 통해, 우창현(2004)에서는 '-아시-'가 '결과지속'의 상 의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시-'가 문법화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론적 근거로 보았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에서 '-아시/어시-'는 국어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앞에서 어미에 따른 분포적 제약을 갖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시/어시-'가 지닌 의미 기능의 다의성도 확인할 수 있다.

2) 현재시제

국어에서 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ㄴ/는/Ø-'에 의해 표현되며, 제주 방언에서는 현재 시제는 선어말어미 '-ㄴ/느-'에 의해 표현된다. 국어와 제주 방언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국어와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비교

구분	국어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ㄴ/는/Ø-(영형태)	-ㄴ/느-

37) 국어에서 시제와 달리 상에서 명령형과 청유형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먹고 있어라, 먹고 있자' 등과 같이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결합은 가능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선 국어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반말체 종결형 어미 '-어' 앞에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98) ㄱ 나는 지금 빵을 먹어. ⇒ 먹-+-Ø-+-어
ㄴ 나는 어제 빵을 먹었어. ⇒ 먹-+-었-+-어
ㄷ 나는 내일 빵을 먹겠어. ⇒ 먹-+-겠-+-어

예문 (98ㄱ)은 동사 '먹-'에 선어말어미 없이 반말체 어미 '-어'가 직접 어간에 결합하였다. 예문 (98ㄴ)은 동사 '먹-'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다음 어미 '-어'가 결합한 구성이다. 그리고 (98ㄷ)은 동사 '먹-'에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하고 어미 '-어'가 결합한 예이다. (98ㄱ)과 (98ㄴ, ㄷ)을 비교하면 반말체 어미 '-어' 앞에서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용언 어간에 직접 연결하여 현재의 의미를 표현한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는 후행하는 어미가 평서문일 때,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관여한다. 주로 평서형 어미 '-다'와 결합하지만, '-ㄴ-'이 반말체 어미 '-아'와도 결합되는 특징[38]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99) ㄱ 손으로 벵벵 돌령 속에 그 무신 쉬, 쉬를 놓나.(손으로 뱅뱅 돌려서 속에 그 무슨 소, 소를 넣어.) [한동리]
ㄴ 이제 그디 가근에 허민 그 간절미가 을아근에 익나.(이제 거기 가서 하면 그 '간절미'가 열어서 익어.) [선흘리]
ㄷ 아들 줘 빈 밧디 푸께도 못 주워 먹나.(아들(에게) 줘 버린 밭의 꽈리도 못 주워서 먹어.) [송당리]
ㄹ 농서가 다 끗나난 동지덜 뒈면 집집마다 메주를 숢나.(농사가 다 끝나니까 동짓달 되면 집집마다 메주를 삶아.) [한동리]
ㅁ 마릿널판자라도이 옛날 오려근엥이 막 다끄곡 허민 막 곱나.(마루 널판자라도 옛날 오려서 막 '다끄곡' 하면 막 고와.) [선흘리]
ㅂ 막걸리 헹 먹으민 참 좋나.(막걸리 해서 먹으면 참 좋아.) [태흥리]

(100) ㄱ 우린 (콩)ᄀᆞ루차 놩 끌려.(우린 가루째 놔서 끓여.) [선흘리]
ㄴ 옛날엔 뭐 보통 비누 ᄀᆞ튼 걸로 헌 거 ᄀᆞ타.(옛날엔 뭐 보통 비누 같은 걸로 한 거 같아.) [보목리]

38) 이와 관련한 형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마다 견해가 달랐다. 현평효(1985)에서는 '-ㄴ+아'로 분석하여 '-나'로 설명하였다. 이때 '-ㄴ-'은 직설법 형태이고, '-아'는 'ᄒᆞ라체'의 평서형 어미라고 말한다. 홍종림(1991)에서는 '-나'가 국어의 '-는다'와 의미상 동일성에 근거하여 '-느-+-다>-ㄴ다>-ㄴ아>나'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느-'는 서법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지만, 문법적 과정에서 /으/ 탈락과 어미 어두 /ㄷ/이 탈락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고영진(2007)은 '-나'를 융합형으로 보아 분석할 수 없는 형태소로 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9)의 밑줄 친 예는 ‘놓다, 익다, 먹다, 숣다(삶다), 곱다, 좋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결합한 다음 반말체 어미 ‘-아’가 결합하여 ‘놓나, 익나, 먹나, 숣나, 곱나, 좋나’로 실현된다. 예문 (99)는 국어와 비교했을 때, 제주 방언에서 다른 양상을 갖는다. 우선 국어에서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반말체 어미 ‘-아’와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놓아, 익어, 먹어, 삶아, 고와, 좋아’로 실현된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는 예문 (99)와 같이 반말체 어미 ‘-아’와 결합이 자연스럽다. 다만, ‘-ㄴ-’이 어미 ‘-어’와 결합함으로써 화자의 확신이 담긴 양태의 의미를 갖는다.[39] 이 결합은 특이하게도 ‘-ㄴ-’이 ‘-아’와 결합할 때는 일부 어간 뒤에서만 가능하다. (100)은 ‘끌리다(끓이다)’와 ‘ᄀᆞ트다(같다)’에 직접 반말체 어미 ‘-아’가 결합한 구성으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았다. (99)과 (100)을 비교했을 때, 반말체 어미 ‘-어’ 앞에서 ‘-ㄴ-’가 결합한 경우는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문 (99)와 같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쓰인 경우 동일한 자료집 안에서 ‘-ㄴ-+-다’가 결합한 형태로도 실현되고 있는데, 그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01) ㄱ 으, 건 마지막에 놓은다.(으, 건 마지막에 놓는다.) [한동리]
ㄴ (숟가락으로) 넓히면은 그게 익은다.((숟가락으로) 넓히면 그게 익는다.) [고산리]
ㄷ 가인 그거 막 잘 먹은다.(그 아이는 그거 매우 잘 먹는다.)
ㄹ 그것을 이제 큰 솟디 놔근에 그것을 막 숣은다.(그것을 이제 큰 솥에 놔서 그것을 막 삶는다.) [한동리]
ㅁ 뽈앙 헌 거난에 지찻광목이 아니고, 아이고 거 바레연에 막 고운다.(빨아서 한 거니까 깃광목이 아니고, 아이고 거 바래서 아주 곱다.) [온평리]
ㅂ 애기 가진 사름은 영 허민 안 좋은다.(애기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함덕리, 조사자]

(102) ㅁ 골이 발효뒈민 그거 끌린다.(골이 발효되면 그거 끓인다.)
ㅂ 하도 경헤 가면은 그 천연두 헐 적에는이 꼭 구신 ᄀᆞ튼다.(하도 그래 가면은 그 천연두 할 적에는 꼭 귀신 같다.)

(101)은 ‘놓다, 익다, 먹다, 숣다(삶다), 곱다, 좋다’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결합한 다음 평서형 어미 ‘-다’가 결합한 구성이다. (99)의 예문과 비교했을

39) 우창현(1998:571)은 ‘-ㄴ-’이 일이 실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상의 선어말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때 그 의미상 큰 차이점이 없다. 이와 같이 (99)의 밑줄 친 부분을 평서형 어미 '-다'가 결합한 (101)로 바꾸어도 문장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미래시제

국어에서 미래시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겠-'에 의해 표현되지만, 제주 방언에서 선어말어미 '-크-'에 의해 표현된다. 국어와 제주 방언의 미래시제 선어말어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국어와 제주 방언의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비교

구분	국어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겠-	-크-

우선 국어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감탄형 어미 '-구나' 앞에서 결합합되는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03) ㄱ 비가 오니, 내일 꽃이 피겠구나. ⇒ 피-+-겠-+-구나
ㄴ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 좋-+-겠-+-구나
ㄷ 내년엔 동생이 초등학생이겠구나. ⇒ 초등학생-+-겠-+-구나

(103)의 밑줄 친 부분은 '피다, 좋다, 초등학생이다'에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감탄형 어미와 결합하면 '-겠구나'로 실현된다. (103ㄱ)은 동사 '피-'에 (103ㄴ)은 형용사 '좋-'에 (103ㄷ)은 '초등학생+-이'에 '-겠구나'가 결합하여 미래시제 선어말어미가 실현되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는 미래, 추측, 의도를 표현할 때 '-크-'가 관여하는데, 후행하는 감탄형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04) ㄱ 아, 주치가 더 들어가겟구나./*들어가크구나.(아, 주추가 더 들어가겠구나.) [도련동]
ㄴ 춤 그 말을 해야겟구나./*해야크구나.(참 그 말을 해야겠구나.) [고산리]
(105) ㄱ 나는 식게 멩질 엇인 집에 시집을 가살로구나.(나는 제사 명절 없는 집에 시집을 가야겠구나.) [송당리]
ㄴ 아이고, 못 갈로구나.(아이고, 못 가겠구나.) [6 남원리]
ㄷ 골은 멩심헤서 홀로구나.(엿기름은 명심해서 하겠구나.) [8 동광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ㄹ 무조건 돌아나야 살로구나.(무조건 달아나야 살겠구나.) [15 수망리]

예문 (104)은 '들어가다, 해야하다'에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하여 '들어가야겠구나, 해야겠구나'로 실현된 것이다. 표준어형인 '-겠-' 대신 선어말어미 '-크-'로 교체하면 '*들어가크구나, *해야크구나'와 같이 비문이 된다. 예문 (104)과 같이 제주 방언에서 '의지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문을 형성할 때에는 '-겠-'을 활용하거나, 예문 (105)와 같이 어미 '-로구나'를 활용한다. 여기서 '-로구나'는 자기 스스로 새삼스런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를 말한다.(개정증보 제주어사전:335)

1.2. 상의 특성

1) 진행상

국어에서 진행상은 일반적으로 통사적 구성인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에 의해 표현된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 진행상은 선어말어미 '-암시/엄시/염시/람시/암(ㅅ)/엄(ㅅ)/염(ㅅ)/람(ㅅ)-'에 의해 표현된다. 국어와 제주 방언의 진행상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40]를 비교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국어와 제주 방언의 진행상의 문법적 표지 비교

구분	국어	제주 방언
문법적 표지	-고 있- -아/어 가-	-암시/엄시/염시/람시/ 암(ㅅ)/엄(ㅅ)/염(ㅅ)/람(ㅅ)-

우선, 국어에서 진행상은 시간적 위치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므로 선행하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만 결합한다. 국어에서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6) ㄱ 이제 일들이 끝나 간다. ⇒끝나-+-아 가+-ㄴ-+-다
ㄴ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ㄴ-+-다

40) 여기서 '문법적 표지'의 용어는 국어에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실현하는 방법은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나,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인 형태론적 구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ㄷ 나는 아빠의 허락을 얻어 냈다. ⇒얻-+-어 내-+-었-+-다

예문 (106ㄱ)은 동사 '끝나-'에 '-아 가다'가 결합하였고, (106ㄴ)은 동사 '앉-'에 '-아 계시다'가 실현되었고, (106ㄷ)은 동사 '얻-'에 '-어내다'가 결합되었다. 이와 같이 국어에서 진행상을 나타낼 때, 선행하는 어간이 동사만 선택되는 제약을 갖는다. 어간을 동사로 하는 이유로는 고영근(2014:181)에서 어미의 결합 제약을 '어간과 어미'의 의미의 충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동작상은 동작의 양상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간이 동작 동사인 경우만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선행하는 어간이 형용사이거나 '명사-이다', '아니다'인 경우에는 진행상의 표지가 결합되지 못하는 제약을 갖는다. 다만, 동작상의 의미를 나누는 기준은 보조 용언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예문 (106)의 '가다, 계시다, 나다' 등은 어휘적 의미보다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06ㄱ)은 진행을 (106ㄴ)과 (106ㄷ)은 상태 지속의 의미로 파악된다.

국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상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어말어미이므로 선행하는 어간의 제약이 없다. 그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07) ㄱ 이젠 불 금지헤연 (불) 안 부쩌 놓난 막 낭허고 가시만 막 성헴주게.(이젠 불 금지해서 (불) 안 붙여서 놓으니깐 마구 나무하고 가시만 매우 *성하고 있지./성해.) [선흘리]

ㄴ 이젠 적이 이만썩 헤놓난 세 고지만 올려도 사라가 듬싹헴주.(이젠 적이 이만큼씩 해놓으니깐 세 꼬치만 올려도 그릇이 *'듬싹'하고 있지./푸짐해.) [남원리]

ㄷ 생선들도 너무 빨리 컴신가?(생선들도 너무 빨리 *크고 있는가?/큰가?) [성읍리]

ㄹ 양 발창 고만헴신가?(양 발바닥 *그만하고 있는가?/그만한가?) [월령리]

(107)의 밑줄 친 부분은 '성허다(성하다), 듬싹허다(푸짐하다), 크다, 고만허다(그만하다)'에 진행상의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여 '성헴주, 듬싹헴주, 컴신가, 고만헴신가'로 실현된다. (107ㄱ)은 형용사 '성허-'에 '-염(ㅅ)-'이 결합한 다음 어미 '-주'가 결합한 경우로, 나무와 가시가 무성한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107ㄴ)은 형용사 '듬싹허-'에 '-염(ㅅ)-'이 결합하고 어미 '-주'가 결합하여 그릇이 푸짐한 상태를 나타낸다. (107ㄷ)은 형용사 '크-'에 '-엄시-'가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가’가 결합하여, 생선 크기의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 (107ㄹ)은 형용사 ‘고만허-’에 ‘-염시-’가 결합한 다음 의문형 어미 ‘-ㄴ가’가 결합하여, 발바닥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내는 형용사에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다. 예문 (107)과 같이 제주 방언에서 선행하는 용언의 어간에 제약이 없는 특징은 ‘-암시/엄시-’가 형태적 문법화를 거쳐, 선어말어미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어와 달리 어간과 선어말어미 사이의 의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미적 문법화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 방언에서 진행상 선어말어미가 국어의 ‘-고 있-’의 의미 기능과 유사하지만, 형용사 어간으로 한 경우에는 주로 ‘상태 변화’ 혹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고 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완료상

국어에서 완료상은 일반적으로 통사적 구성인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에 의해 표현된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 완료상은 선어말어미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에 의해 표현된다. 국어와 제주 방언의 완료상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를 비교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국어와 제주 방언의 완료상 문법적 표지 비교

구분	국어	제주방언
문법적 표지	-아/어 있- -아/어 버리-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

우선, 국어에서 완료상은 시간적 위치에서 동작이 완료된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선행하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만 결합한다. 국어에서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8) ㄱ 나는 빵을 다 먹어 버렸다. ⇒먹-+-어 버리-+-었-+-다
ㄴ 엄마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 ⇒눕-+-어 있-+-다

예문 (9ㄱ)은 타동사 ‘먹-’에 ‘-아 버리다’가 결합하였고, (9ㄴ)은 자동사 ‘눕-’에 ‘-어 있다’가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국어에서 완료상을 나타낼 때, 선행하는 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간이 동사만 선택되는 제약을 갖는다. 동작상은 동작의 양상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간이 동작 동사인 경우만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선행하는 어간이 상태 동사(형용사)이거나 '명사-이다', '아니다'인 경우는 완료상의 표지와 결합이 어렵다.

국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완료상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어말어미가 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완료상의 실현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09) ㄱ 우리 고모부님이 바다에 어부라나서.(우리 고모부님이 바다에 어부였었어.) [도련동]
ㄴ 겨난 젤 저 신하효가 엿날 완전 촌이라나서.(그러니깐 제일 저 신하효가 옛날 완전 촌이었었어.) [태흥리]
ㄷ 그땐 그디도이 밋밋헌 테역밧이라낫저.(그땐 거기도 평평한 잔디밭이었었어.) [선흘리]
ㄹ 다리민 저 불 담아놩 영 미는 거라낫주게.(다리미는 저 불 담아놔서 이렇게 미는 거였었지.) [대평리]
ㅁ 한림면에서 일등 부제라낫주게.(한림면에서 일등 부자이었었지.) [한동리]
ㅂ 성광은 열다섯 술 차이라나수다.(형과는 열다섯 살 차이였었습니다.) [구엄리]
ㅅ 송당에 부락은 상당히 으라 개라나수다.(송당에 부락은 상당히 여러 개였었습니다.) [송당리]

(110) ㄱ 보통이 아니라낫주.(보통이 아니었었지.) [고내리]
ㄴ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하르바지가 아니라나수다.(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대평리]

(111) ㄱ 게난 정월, 정월 보름에 그때는 정월덜에 그 연덜도 띄와낫주.(그러니까 정월, 정월 보름에 그때는 정월에 그 연들도 띄웠었지.) [한동리]
ㄴ 정월덜에 그 연덜도 띄와(서/도/만)낫주.
ㄷ 정월덜에 그 연덜도 띄와 (뿔리) 낫주.

(109)의 밑줄 친 부분은 '어부라나서, 촌이라나서, 테역밧이라낫저, 거라낫주, 부제라낫주, 차이라나수다, 개라나수다, 아나라낫주, 아니라나수다'가 실현되었다. (109ㄱ)은 '어부+-이(>Ø)'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어미 '-어'가 결합한 경우다. (109ㄴ)은 '촌+-이'에 '-라나시-'가 결합하였고, 어미 '-어'가 결합하였다. (109ㄷ)은 '테역(잔디밭)-이'에 '-라낫-'이 결합하였다. (109ㄹ)은 '거+-이다(>Ø)'에 '-라낫-'이 걸합한 다음 어미 '-저'가 실현되었다. (109ㅁ)은 '부제(부자)-이(>Ø)'에 '-라낫-'이 결합한 다음 어미 '-주'가 결합한 구성이다. (109ㅂ)은 '차이+-이다'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높임의 선어말어미 '-우-'가 실현되었다. (109ㅅ)은 '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존 명사)+-이다'에 '-라낫-'이 결합한 다음 높임의 선어말어미 '-우-'가 결합하였다. 예문 (109)는 명사 뒤 서술격조사가 결합한 다음 완료상의 선어말어미 '-라나시/라낫-'이 결합하였다. (109 ㄱ, ㄹ, ㅁ, ㅂ, ㅅ)의 경우는 명사 뒤 서술격조사가 생략이 되어 어미 '-라나시/라낫-'이 명사에 바로 연결된 형이다. (110ㄱ)은 '아니-'에 '-라낫-'이 결합한 다음 어미 '-주'가 결합하였고, (110ㄴ)은 '아니-'에 '-라나시-'가 결합한 다음 높임의 평서형 어미 '-우다'가 결합하였다. 예문 (109)와 (110)의 구성은 국어와 다른 제주 방언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서술격조사나 '아니다'가 어간에 올 때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되고 있다. 예문 (109)은 '명사+-이-+-라나시/라낫-'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명사 뒤 서술격조사가 결합한 다음 '-라나시/라낫-'이 결합하였다. 그리고 (110)은 '아니-+-라나시/라낫-'으로 분석하며, '아니다' 뒤에 결합하였다.[41] 제주 방언에서 서술격조사나 '아니다', 동사 '오다'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는 '라'로 교체하는 특징을 미루어볼 때 '-라나시/라낫-'도 '-아나시/아낫-'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그러므로 '-라나시/라낫-'은 서술격조사 뒤, '아니다' 구성을 고려한다면 이미 문법화하여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기능하고 있다. '-아나시/아낫-'의 형태가 여전이 통사적 구성이라면, 다음 (111)에서 통사적 구성의 앞뒤에 다른 요소가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 보조사 '-는, 도' 넣을 수 없으며, 부사어 'ᄀᆞ만이'가 개입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간과 종결 어미 사이에 나타나고 중간에 문법 요소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은 선어말어미만 존재한다.

2.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교육적 활용

41) 15세기 국어에서 인칭의 선어말어미 '오/우'는 음운 조건에 따라 '-로-'로도 나타나는데, 서술격조사 '이다'와 '아니다' 뒤에서 실현되고 있다.
(예1) 나ᄂᆞᆫ 弟子 大木犍連이로라[大木犍連-이-오(>로)-다(>라)][월인석보 23:82, 권재일 151 재인용]
그리고 15세기 국어에서 연결어미 '오ᄃᆡ'도 음운 조건에 따라 '로ᄃᆡ'로도 나타나는데, 서술격조사 '이다' 뒤에서 실현되고 있다.
(예2) 入聲은 點 더우믄 ᄒᆞᆫ가지로ᄃᆡ[ᄒᆞᆫ가지-이-로ᄃᆡ(>오ᄃᆡ)](훈민정음 언해 14, 권재일 154 재인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연구는 제주 방언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에 따라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시간과 관련한 문법 범주인 '시제와 상'에 대하여 실현 양상을 제시하였고,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 기능을 갖는 시간 표현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대하여 문법적 체계를 세웠으며 실제 방언 발화자의 언어 양상이 반영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 방언의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인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실현 양상을 살폈고, 제주 방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간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와 비교하였다.

우선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 제주 방언의 교육은 언어의 본질인 의사소통 기능 측면에서 시간 표현의 교육이 중요하다.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에 따라 여러 이형태로 나타나 있고, 상황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법적 표지가 문맥에 따라 그 의미 기능이 '시제' 혹은 '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 낼랑 그디 가크라.(나 내일 거기 가겠어.)'의 경우, 문법적 표지는 '-크-'로 실현되어 있으나, 화자는 '의지'의 양태적 의미를 실현하여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 교육은 상황에 알맞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에서 비문인 문법적 관계가 제주 방언에서 실현되므로 언어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느 문저 먹어시라.(너 먼저 먹어라.)'처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명령형 어미와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보이며 언어 현상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시간 표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화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제주 방언 발화자의 언어를 활용하여 시간 표현 교육을 한다면, 제주 방언의 언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물리적 시간을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복잡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 방언을 분석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성을 중시해야 한다.

문법 영역 측면에서 제주 방언의 시간 관련 교육은 언어학적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제주 방언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옛 어휘와 문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국어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제주 방언은 옛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독자적으로 체계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되어 방언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한다면, 국어의 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변이 양상과 특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는 본래 통사적 구성의 '-아'와 '-시다(있다)'에서 온 것으로 형태적 문법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면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제주 방언은 국어의 옛 모습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체계와 실현 양상을 살피고, 국어와의 문법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둔다.

Ⅱ장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시간 표현의 체계와 실현 방법을 검토하였다. 학교 문법은 국어의 일반적인 내용 요소와 체계적인 문법 정보가 제공되어 국어의 시간 표현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다. 학교 문법의 시간 표현 체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실현된 실제 교과서를 활용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어에서 시간 표현의 문법 범주는 시제와 동작상이고,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간적 위치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으로 체계를 세웠다. 국어에서 시제는 주로 선어말어미가 관여하는데, '-았/었/였-, -았었/었었-, -더-'는 과거시제, '-느/는-'은 현재시제, '-겠-'은 미래시제로 실현된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의 양상을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구분하였다. 동작상은 통사적 구성에 의해 표현되는데, '-아/어 가다'와 '-고 있다'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아/어 있다'와 '-아/어 버리다'는 완료상으로 실현된다.

Ⅲ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체계와 실현 양상을 살폈다. 먼저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은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었고, 상은 '진행상, 완료상'을 기준으로 체계를 세웠다. 시간 표현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제주 방언의 전반적인 시간 표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제주어구술자료집(1~18)』을 활용하였다. 이 자료집은 제주 방언의 고령의 방언 화자의 발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으로, 실제 언어의 모습이 담긴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을 살폈다. 실현 양상은 시간 표현에 관여하는 문법적 표지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 시간 표현의 여러 이형태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행 요소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아니다’가 기준이 되었으며, 후행 요소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어미를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아시/어시/여시/라시/앗/엇/엿/랏-’은 선행 요소의 품사에 관계없이 모두 결합하였지만 음운론·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이형태를 갖는다. ‘-아시/어시/여시/라시-’는 후행 요소가 평서형 어미 ‘-아, ㄴ게, -네’, 의문형 어미 ‘-ㄴ가, -냐/니, -카’, 명령형 ‘-라’와 청유형 ‘-게’가 결합되었다. 선어말어미 ‘-앗/엇/엿/랏-’은 후행 요소가 ‘-저, -주, -구나’일 때 결합되었다. 선어말어미 ‘-더/아/어/여/라-’가 과거시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화자가 경험한 일을 떠올리며 표현하는데, 후행 요소로 ‘-라, -ㄴ게, -냐/니, -ㄴ가’가 결합하였다. 현재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ㄴ/느-’가 관여한다. 제주 방언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는 선행 요소가 동사, 형용사일 때 결합이 가능하였다. ‘-ㄴ-’의 후행 요소는 평서형 ‘-다’와 반말체 어미 ‘-어’가 결합하였다. ‘-느-’의 후행 요소는 ‘-네, -냐/니’가 결합하였다. ‘미래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는데, ‘-크-’가 관여한다. ‘-크-’는 형성 과정의 모습을 가진 ‘-커-’로도 실현이 되고, 반말체 어미 앞에서는 ‘-키-’의 형태가 실현되었다. 주로 통사적 조건에 따라 선어말어미 ‘-크-’는 문장에서 ‘추측’이나 ‘의도’를 표현한다.

제주 방언에서 ‘진행상’은 국어와 달리 선어말어미가 관여하는데, 어간의 품사에 관계없이 ‘-암시/엄시/염시/람시/암(ㅅ)/엄(ㅅ)/염(ㅅ)/람(ㅅ)-’이 결합되었다. ‘-암시/엄시/염시/람시-’는 후행 요소로 ‘-어, -ㄴ게, -녜, -ㄴ가(고), -냐/니, -라, -게’가 결합하였다. ‘-암(ㅅ)/엄(ㅅ)/염(ㅅ)/람(ㅅ)-’은 후행 요소로 ‘-저, -주, -구나, -디야’가 결합하였다. 주로 진행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상태 변화’와 ‘현재의 시간’까지 의미가 확대되어 실현된다. 완료상은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아낫/어낫/여낫/라낫-’이 관여하는데, 선행 요소가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아니다’ 모두 결합하였다. ‘-아나시/어나시/여나시/라나시-’는 ‘행 요소가 평서형 어미 ‘-아, ㄴ게, -네’, 의문형 어미 ‘-ㄴ가, -냐/니, -카’, 명령형 ‘-라’와 청유형 ‘-게’가 결합되었다. 선어말어미 ‘-아낫/어낫/여낫/라낫-’은 후행 요소가 ‘-저, -주, -구나’일 때 결합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의 문법적 특징과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 방언의 시간 표현은 독자적인 통사적 특징을 갖고 있어, 국어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살폈다. 먼저 제주 방언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국어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에 결합이 가능하였다. 제주 방언의 과거시제는 본래 통사적 구성 '-아 시-'에서 문법화를 거친 '-아시/어시-'가 되었기 때문에 종결형에서 '-아시라'와 '-아시게'가 실현되었다. 이는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화자가 인식한 사건이나 상태의 '완료'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현재시제는 국어와 달리 반말체 어미 '-어' 앞에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였다. 종결형에서는 '-나'의 형태로도 실현되는데 현재의 시간보다는 '화자의 확신'의 의미를 갖는다. 다만, '-나'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어간 말음이 자음으로 끝날 때만 결합이 가능하다.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크-'는 감탄형 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하여, '-크구나'의 종결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감탄형은 주로 평서형 어미를 결합하여 억양으로 구분하거나,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로구나'의 형태가 쓰여, 단순 사실을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진행상 선어말어미 '-암시/엄시-'는 어간의 품사에 관계없이 모두 결합이 가능하였다. 국어에서는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동작상이므로 형용사나 '명사-이다', '아니다'에 결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여 '고왐서, 뚜남저' 등과 같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상태의 점진적 변화'나 '현재'의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료상 선어말어미 '-아나시/어나시-'는 '명사-이다', '아니다'에 결합함으로써 선어말어미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이미 일어난 일이 현재와는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표현하고, 제주 방언의 완료상은 형태적 문법화 과정에 놓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주 방언의 독자적인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과 특징을 이해하면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측면과 국어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종결형에 나타난 시간 표현의 실현 양상을 살폈다. 주로 문법적 표지의 결합 양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법적 표지가 갖는 의미 기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문법적 표지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자료>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부(2015),『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김동환 외(2019),『고등학교 국어』, 교학사.
류수열 외(2018),『고등학교 국어』, 금성출판사.
박안수 외(2019),『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박영목 외(2019),『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신유식 외(2019),『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최원식 외(2019),『고등학교 국어』, 창비.

2. 단행본

고영근(2007),『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고영근·구본관(2014),『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밖에(2018),『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권재일(2001),『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권재일(2013),『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안주호(1997),『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기갑(2003),『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이성하(2016),『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우창현(2003),『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정승철(2013),『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7·2018·2019),『제주어구술자료집(1～2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한동완(1996),『국어의 시제 연구』, 국어학회.

3.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강정희(1978),「제주방언의 시상연구」,『이화어문논집』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_____(2008),「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어문연구』57, 어문연구학회.
고영근(1976),「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어학연구』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_____(1986),「국어의 시제와 동작상」,『국어생활』6, 국어연구소.
고영진(2007),「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한글』275, 한글학회.
_____(2004),「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형태론』, 형태론.
_____(2008),「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한글』280, 한글학회.
김경훈(1998),「시제, 상, 서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고찰」,『개신어문연구』15, 개신어문학회.
김종태(1991),「국어 안맺음씨끝의 문법범주와 체계」,『한민족어문학』19, 한민족어문학회.
김지홍(2016),「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체계」,『한글』313, 한글학회.
문숙영(1998),「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_____(2004),「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형태론』6, 형태론.
_____(2005),「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_____(2006),「제주방언의 '-엄시-'의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형태론』8, 형태론.
송현정(2004),「문법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이기갑(1999),「국어 방언의 시상 체계-그 분화의 역사」,『언어학』제25호, 한국언어학회.
이재성(2018),「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우창현(1997),「제주 방언의 시상범주에 대하여」,『서강어문』13, 서강어문학회.
_____(2000),「제주방언의 한 논제: 선어말어미 '-크-'에 대하여」,『順天鄕語文論集』, 順天鄕語文學硏究會.
_____(2001),「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엇-'에 대하여」,『順天鄕語文論集』7, 順天鄕語文學硏究會, 2001.
_____(2002),「제주 방언 '-암시-', 중앙어 '-고 있-'과의 상관성」,『시학과 언어학』3, 언어학회.
_____(2003),「제주 방언의 반복상」,『어문연구』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_____(2004),「제주 방언 '-아시-'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한국어학』24, 한국어학회.
_____(2005),「제주 방언의 '-느-'에 대하여」,『형태론』7, 형태론.
_____(2008),「방언 문법 형태 연구 방법: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크-'를 중심으로」,『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언학』 7, 한국방언학회.

_____(2008),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의미 해석 문제」, 『민족문화논총』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홍종림(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 어미 '-암/엄-', '-암시/엄시-', '-아시/어시-'에 대하여」,『선청어문』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_____(1981),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크-'에 대하여」, 『선청어문』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_____,(1983) 「제주도방언의 소위 회상법형태에 대하여」, 『국어교육』44, 한국어교육학회.

_____(1991),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제주어구술자료집(1~28)』발간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현장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담당하였다. 번호에 따른 조사 지점과 조사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the Time Expression in the Ending of Jeju dialect

Hyun Hye Rim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cademic advisor Choi Dae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ime expression shown in the ending of the Jeju dialect. Although the existing studies have researched the meaning of morphemes and their meaning that involve in the time expression, each scholar developed the individual system of time expression. To handle such incoherence that has hindered Jeju dialect edu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alization aspect of time expression of Jeju dialect in detail based on the school grammar system to clarify the system of time expression of Jeju dialect.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system of time expression established in school grammar. Because school grammar ha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it will help in understanding the time expression of the Jeju dialect. The system of time expression suggested in school grammar consists of tense and phase, and the tense is divided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depending on the temporal position at the time of event based on the time of speech. The phase classifies the movement into the 'progress phase,' 'completion phase' based on the time of speech. The grammatical markers involved in expressing time in line with each system in the Korean language are checked and the semantic function is examined.

The third chapter reviews the system of time expression and its use in the Jeju dialect. [Jeju Language Oral Data Collection(1-28)] were used to examine specific aspects of realization. As this collection is a copy of the old dialect speaker's speech, it can check the natural speech where the time expression is realized. The pattern of usage is examined by div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eding and the following elements, focusing on the grammatical markers in the tense and the phase. Multiple types of temporal terminology realized in Jeju dialect were studied through this combination.

The fourth chapter suggests the educational utilization plan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time expression in Jeju dialect. Because the grammatical marker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unlike the Korean language is realized in Jeju dialect,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in Jeju dialect will be reviewed. Also, the educational utilization plan about time expression in Jeju dialect will be reviewed.

Finally, the fifth chapter will organize the discussion in the text, and finalize the study by suggesting the insufficient part and future task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mal grammar about time expression in Jeju dialect, suggesting the educational utilization plan in the future.

* Keywords: Jeju dialect, school grammar, tense, phase, and grammaticaliza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